



Bulletin of Incheon Research

인천연구

통권 제7호

2013. 09



인천발전연구원
Incheon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기획논단

인천의 해양도시(海港都市)적 성격과 해양역사상 - 고대를 중심으로	윤명철	7
서해안 지역 임업업 신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서종원	55

일반논문

인천시 육지지역 상록활엽수 식재현황 및 도입가능성	권전오	87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효과	유광민 · 한성호	113
: 인천 기업(2000~2010)의 패널자료 분석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생산성 추세변화 비교분석	한하늘	141
-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		

도시리포트

근대 개항도시의 화교(華僑)사회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리위롄(李玉蓮)	183
- 인천(仁川)과 요코하마[橫濱]를 중심으로 -		

서 평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이기봉 저, 새문사, 2008)	김종혁	209
『자본의 도시』 (최병두 저, 한울, 2012)	서종국	227
『장소』 (팀 크레스웰 저, 심승희 역, 시그마프레스, 2012)	현광일	235

『인천연구』 규정

『인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244
『인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51
『인천연구』 논문심사 규정	254
『인천연구』 연구윤리 규정	261
『인천연구』 편집위원회	270

기획논단

인천의 해항도시(海港都市)적 성격과 해양역사상

- 고대를 중심으로 • 윤명철

서해안 지역 임경업 신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 서종원

인천의 해항도시(海港都市)적 성격과 해양역사상

- 고대를 중심으로

윤 명 철*

- I. 서론
- II.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고대도시의 해양적 성격
 - 1.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도시의 형성
 - 2. 海港도시의 성립조건
- III. 인천 지역의 海港도시적 환경과 구조
 - 1. 해양환경의 검토
 - 2. 해항도시조건 검토
- IV. 인천의 해양적 역사상 - 고대를 중심으로
- V. 결론

I. 서론

동아시아에는 몇 개의 크고 중요한 만(灣)이 있었고, 그 만에는 항구도시들이 발달했었다.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가장

* 동국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역사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만은 경기만이였다. 인천(仁川)은 경기만(京畿灣)에 형성된 몇 개의 해항도시들을 이어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거점도시였다. 즉 경기만의 남부 해안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역사를 이루어온 도시였다. 본고는 인천지역이 ‘동아지중해(東亞地中海)’에서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필자는 그 동안 몇 번의 작업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접근을 시도했었고, 이번 작업은 고대 해항도시의 틀을 설정한 다음에 보다 구체적으로 인천이 그 위상에 걸맞는 조건을 갖추었는가를 이론을 통해서 검증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또는 동아지중해에서 고대에 해항도시의 생성이 가능했는가를 살펴보고, 그에 적합한 조건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이론을 토대로 해항도시의 조건에 적합한 인천의 자연환경, 항구조건 항로 및 해양방어체제 등을 분석하고 검증해보고자 한다.¹⁾

1) 본고를 작성하면서 활용한 필자의 연구성과들은 『윤명철 해양논문선집 8권』(학연문화사, 2012)_ 및 『해양사연구방법론』(학연문화사, 2012) 에 수록되어있다. 본문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논문의 각주를 달았다.

2) 필자는 역사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위상(位相, place)과 역할에 대하여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역사학자들이 수용할 만한 공간이론을 제기한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투안이 있다. 그는 공간과 장소를, 환경을 구성하는 근본요소로서 1.경험의 생물학적 토대, 2. 공간과 장소의 관계, 3. 인간 경험의 범위라고 분류하고 있다. 이-푸 투안 지음,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1995. p.7. 참고.

공간의 중요성은 아래 글을 참고할 만하다. 공간이란 논제는 21세기의 학제적 담론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보편적인 어젠다이다. 근대 이후 공간에 대한 이론은 철학 분야 이외에도 기하학·물리학·건축학·지리학·기호학·도시공학·조경학·주거학·교육학·심리학·정치학·사회학·생태학·문화이론·공간예술론 등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강학순, 존재와 공간, 한길사, 1976. p.22.에서

역사에서 공간은 기하학적(幾何學的)인 공간(空間) 혹은 자연적(自然的)인 공간(空間), 또 물리적인 평면(平面)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²⁾ 지리정치적(地理政治的, geo-politic)으로는 영토이며, 지리경제적(地理經濟的, geo-economy)으로 생산 장소와 시장이며, 지리문화적(地理文化的, geo-culture)으로는 소속된 주민들, 세계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지심학적(地心學的, geo-mentality)³⁾으로는 유사한 자연환경이 지닌 유사한 정서와 사유의 공유 등 인간과 집단이 지닌 가치관의 결정체이다.⁴⁾ 그러므로 자연공간을 넘어선 역사공간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연지리의 개념과 틀을 포함하면서 역사(歷史)와 문화(文化) 또는 문명(文明)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문지리의 결정체인 도시(都市) 또한 유사하다. 도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관점과 방식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내리

-
- 3) ‘地心學’이라는 용어는 필자가 만든 조어인데, 우리의 전통적인 풍수관 등을 보면 지리로 표현되는 자연공간이 마음이나 심리 등과 직결된 것은 분명하다.(이러한 논리를 전개한 책들은 많지만 간단하게 여러 설을 정리한 것으로 김광언, 『바람·물·땅의 이치』, 기파랑, 2009이 있다.) 와 쓰지 데쓰로우가 주장한 ‘風土論’ 등이나 러브록(Lovelock) 등의 ‘가이아 이론’ 등도 개념상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地’, ‘地形’ 또는 ‘land’, ‘space’, ‘field’ ‘터’라고 개념정의가 되거나 용어화된 공간에서 마음 또는 정신과 연관된 요소들을 유형화시켜서 부각시킬 필요는 있다. 필자는 地心學이라는 용어를 geo-psychology, 또는 geo-mentality 중에서 고민하였으나 geo-mentality로 결정하였다. 비판과 조언을 부탁한다.
 - 4) 공간은 실제적인 측면 외에도 명분으로도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포의 형성과정부터 시작하여 존재의 원근거를 모색하는 행위, 그리고 나아가 집단의 탄생과 발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앞으로 역사학에서 공간문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동물행동학 유전학 등은 인간의 활동범위와 성격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시각을 제공한다. 인간이 자연공간을 이용하는 능력과 방식에 대해서 통념을 깨고 전향적인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예는 그레이엄 크랄크 지음, 정기문 옮김, 『공간과 시간의 역사』, 푸른길, 1999, 참조. 특히 역사학에서 활용할 만한 책은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에드워드 홀 지음, 최효선 옮김, 『숨겨진 차원-공간의 인류학을 위하여』, 한길사, 2005 등.

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보편적이다.⁵⁾ 하지만 도시는 촌락 또는 시골 · 농촌 · 농촌취락(rural settlement)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⁶⁾ 마찬가지로 고대도시를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⁷⁾ 동아시아 및 한국역사 속의 도시를 정의하고 이해하는데 무리가 적다. 그 다음 장에서는 필자가 구축한 이론과 실제로 분석한 도시를 통해서 해양도시의 성격을 살펴보고,⁸⁾ 다음 장에서 인천과 연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 5) 都市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기능이나 구조, 성격, 사상성, 미학, 정치권력 등과의 관계 등이 규명의 대상이었다.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도시에 관심을 가진 채 연구해왔다. 영어의 Urban에 해당하는 것은 ‘중심’ 혹은 ‘원’을 이룬다는 뜻이며, ‘뜰’ 또는 ‘마당’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어의 city는 라틴어의 civis에서 기원한 것인데 본래 의미는 강력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회를 가리키며 지방의 취락에 비하여 더 많은 권력과 자유를 가진 도시사회를 뜻하는 것이었다. (남영우 저, 『도시공간구조론』, 법문사, 2007, p.3. 참고.) 董鑒泓 等 편, 成周鐸 역주, 『中國都城發達史』, 학연문화사, 1993, p.3. ‘중국도성발달사는 도성을 여러 종류의 물질적 요소로 구성된 하나의 종합체로 보고 이를 연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도성의 총체적 배치의 변천(도로망, 주거지역, 상가분포, 녹지 및 수로 등을 포함), 도성 계획의 이론과 중심사상, 도시 공간 배치의 예술성, 도성의 유형 및 그 분포 등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中國歷代 수도의 유형과 사회변화』, 『역사와 도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강좌 한국고대사』 7-촌락과 도시,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 2002.) 한자 문화권의 동양사회에서는 도시를 王都 또는 王城의 의미로 왕이 거처하며 시장이 형성되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상태의 의미로 사용하여 수도로서의 정치기능과 경제기능과의 보유를 강조하였다. (남영우 저, 『도시공간구조론』, 법문사, 2007, pp.3~5.)
- 6) 남영우 저, 『도시공간구조론』, 법문사, 2007, p.5.
- 7) 아래의 글은 본고의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신석기 혁명(nelithic revolution)이라고 불리며, 이 혁명은 결국 농업혁명으로 발전하였고 또 도시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류 최초의 고대도시는 B.C 6000 ~ B.C. 5000년 사이에 등장하였다. 고대도시란 수천 명 이상의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취락이며 주로 비농업적 기능, 즉 상업 · 공업 · 정치 · 종교 · 군사적 기능을 보유하거나 부분적으로는 농업중심지로서의 기능도 보유한 취락을 가리킨다.(남영우 최재현 손승호 저, 『세계화시대의 도시와 국토』, 법문사, 2009, p.240.)
- 8)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윤명철, 『해양역사상과 항구도시들』(『윤명철 해양논문선집 5권』), 학연문화사, 2012 참고.

II.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고대도시의 해양적 성격⁹⁾

1.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도시의 형성

수도 또는 도시는 종합적 목적을 갖고 생성되었으며,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때문에 정치시설물, 방어용의 군사시설, 종교시설물, 지배계급의 고분군 등, 그리고 대외교류와 연관된 시설물들을 구비해야 한다.¹⁰⁾ 즉 도시는 방어, 정치, 행정, 경제, 종교 등의 5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대에도 중요한 도시들은 가능한 한 단위의 지리적인 중앙이라는 위치뿐만 아니라, 교통의 잇점 등을 포함하여 역할과 기능의 핵심에 있었다. 특히 실질적인 이익과 직결된 위치는 교역 및 방어에 적합해야 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도시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에는 ‘방어와 교역’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반영되었다.

동아시아에서도 도시의 시작 년대를 올려 잡고 있다. 중국의 고대도시는 농업경제의 시작과 함께 나타났으며, 결국 작은 촌락들이 통합되어 형성되었다. 오래된 도시유적으로는 요서지방에 위치한 ‘홍산(紅山)문화’¹¹⁾와

9) 제 2장은 필자가 주장하는 해양도시론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구축한 이론들을 소개하는 장이다. 따라서 기존의 동일한 주제의 논문에서 사용한 내용임을 밝힌다.

10) 선사시대 고대 중세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도시들을 열거하면서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류제현 편역, 테리 조든 비치코프, 모나 도모시 지음, 『세계문화지리』 살림, 2008, pp.192-197.

11) 紅山문화 시대는 bc 4500에서 3000년 사이에 발전한 문화로서 ‘요하문명론(遼河文明論)’의 핵심이다. 이 문화의 존재는 일찍부터 알려졌다. 대표적인 유적은 ‘牛河梁 유적지인데, 길이 160m에 너비 50m의 규모인데, 거대한 적석총들과 내부에 석관묘들이 있었고 기원전 35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된 여신상의 파편들이 출토됐고, 제단도 발견됐다. 적석총 안의 석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가공수준이 뛰어난玉器들이 다수 나왔다. 이미 국가단계에 들어온 古國이라고 말한다. 일종의 도시국가이다.

뒤를 이은 ‘하가점(夏家店) 하층문화’¹²⁾시대에 있었던 도시유적, 양자강 중류에 위치한 ‘성두산(城頭山) 유적’¹³⁾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국 최초의 도시는 BC. 1500년 경 은나라의 도시인 황화 유역의 안양(安陽)과 정주(鄭州)이다.¹⁴⁾ 이 시대에는 도시국가로 발전하면서 높은 구릉지에 수장의 처소와 신전을 둘러싸는 성벽이 강화됨과 동시에 성하(城下)의 주민 주거지 역에도 간략한 토벽을 설치한 방어시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은(殷)시대의 중소읍은 이러한 ‘산성식(山城式)’ 도시가 일반적이었다.¹⁵⁾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고대도시는 어느 시기에 발달하였으며, 어떠한 위치에 있었고, 어떤 성격을 지녔을까?¹⁶⁾

우선 도시를 이해하기 위하여 역사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는 역사공간을 1차적으로 영토나 영역, 정치장소로서 성격을 살펴본 다음

‘요하문명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했다.

郭大順, 『龍出遼河源』, 百花文藝出版社, 2001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李亨求, 「발해연안 석묘문화의 원류」, 『한국학보』 50, 일지사, 1988.

「발해연안 빗살무늬토기문화의 연구」, 『한국사학』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尹乃鉉, 『고조선연구』, 일지사, 1994.

한창균, 「고조선 성립배경과 발전단계 시론」, 『국사관논총』 제33집, 국사편찬위원회, 1992.

12) BC 2400에서 1500년 사이에 발전한 문화로서 필자는 대표적인 三座店 유적 등은 전형적인 ‘山頂都市(hill top town)’의 형태를 띄었다고 판단한다.

김영근, 「하가점 하층문화에 대한 고찰」, 『단군학 연구』 14, 단군학회, 2006, pp.103~126.

복기대, 『요서지역의 청동기 시대 문화연구』, 백산자료원, 2002.

13) 이시 히로유키, 야스다 요시노리. 유아사 다케오 지음, 이하준 옮김.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경당, 2003.

14) 남영우. 최재현. 손승호 저, 『세계화시대의 도시와 국토』, 법문사, 2009, p.245.

15) 남영우, 『지리학자가 쓴 도시의 역사』, 푸른길, 2011, p.174. 하지만 해양과 연결한 지역에서 다른 입지와 방식을 차용했다.

16) 우리역사에서 도시의 발달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姜大玄, 『도시지리학』, 교학사, 1980, p.61.

에 총체적인 연결망, 즉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접근한다. 왜냐하면 하나의 공간에서도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하고, 시대와 역할에 따라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 필자는 역사공간을 ‘터¹⁷⁾와 다핵(field & multi core) 이론’으로 이해하고 있다. 핵은 행정적 기능을 가진 대성에 해당하며, 일종의 교통의 길목으로서 방사상(放射狀)으로 퍼지는 일종의 허브(hub)형이다. 자체적으로도 존재이유가 있지만, 다른 상태로 전화가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관리와 조정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인체의 穴(경혈)처럼 경락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집합과 배분기능도 함께 하면서 문화를 주변에 공급하는 능력도 있다.

하지만 터 이론에서는 중핵(中核)문화를 모방하거나 변형된 행성(行星)과 위성(衛星)들도 중심으로 향하면서 영향을 끼친다. 즉 전입과 전파가 하나가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여러 요소들이 일방적 관계이거나 격절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체가 부분이 되고, 부분들이 전체로 되돌아가는 유기적(有機的)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터’ 이론¹⁸⁾의 성격과 시스템은 은동아시아 전체, 우리역사의 터, 그리고 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동아시아라는 역사의 ‘터’는 지리적인 관점에서는 중국이 있는 대륙,

17) 필자가 개념화한 ‘터’는 자연 지리 기후 등으로 채워지고 표현되는 단순한 공간은 아니고, 생태계 역사 등 등이 모두 포함된 총체적인 환경이다.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다른 논문과 저서에 설명하였다.

18) 이 이론의 보다 상세한 소개와 이론을 이용하여 역사상의 실제적인 분석한 몇몇 연구가 있다. 줄저, 『고구려는 우리의 미래다』, 고래실, 2004 ; 『장수왕 장보고 그들에게 길을 묻다』, 포름, 2006 ; 줄고, 「장보고를 통해서 본 경제특구의 역사적 교훈과 가능성」, 남덕우 편, 『경제특구』, 삼성경제연구소, 2003 ; 「동아시아의 해양공간에 관한 재인식과 활용 - 동아시아중해 모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학』 14, 동아시아 고대학회, 경인문화사, 2006.

북방으로 연결되는 대륙의 일부와 만주일대, 한반도, 일본열도, 그리고 해양으로 이루어졌다. 즉 대륙(大陸)과 해양(海洋)이 만나고 엮어지는 해륙적(海陸的) 환경의 지역이다. 또한 기후라는 면에서는 온대와 아열대 아한대가 섞여 있으며, 바다와 평원 초원 사막 대삼림과 강(江) 등이 한 터에 있으면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생활양식과 종족들의 분포 정치체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적이다.¹⁹⁾ 또한 문화적으로도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바다 주변의 주민과 문화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환류(環流)시스템’을 이루고 있었다. 필자는 동아시아의 이러한 지리적이고 문화적인 특성을 설명할 목적으로 동아시아의 내부 ‘터’ 이면서 동방문명의 중핵으로서 ‘동아지중해(東亞地中海, EastAsian-mediterranean-sea)’란 모델을 설정하고 학문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델 속에서 몇몇 국가들은 대륙과 해양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터’ 속에서 생성하고 발전한 해륙국가(海陸國家)임을 주장해왔다.²⁰⁾ 그리고 자연환경, 역사적인 계승성,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필연적으로 그 국가들의 수도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로서 해륙도시(海陸都市)의 성격을 가졌음을 강조하였다. 도시 또는 성들도 수도 및 국토와 유기적(有機的) 체제(體

19) 근래에 발표한 윤명철, 『渤海 유역의 역사문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이해-‘터(場, field) 이론’의 적용을 통해서-』, 동아시아 고대학회, 2007. 「고구려 문화형성에 작용한 자연환경의 검토-터이론을 통해서-」, 『한민족 연구』 4, 2007 등 참고.

20) 윤명철, 『海洋史觀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발전과 종언』, 『한국사연구』 123, 2003. 「한국사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제언」, 『한국사학사학회보』 9, 한국사학사학회, 2004. 「한국 고대사 연구의 반성과 대안」, 『단군학 연구』 11, 단군학회, 2004. 「東아시아의 海洋空間에 관한 再認識과 活用- 동아지중해 모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학』 14, 동아시아 고대학회, 경인문화사, 2006. 기타



〈그림 1〉 동아시아중해의 범위도

制)를 가져야 하는 만큼 그러한 성격을 가졌을 가능성을 고구려의 예를 들어서 언급하였다.²¹⁾

위치상으로 볼 때 이 공간의 도시들은 대체로 강하구 및 바다와 연관된 지역에 생성된 항구도시들로서 필자의 논리에 따라 유형화시키면 ‘내륙항구(河港)도시’, 강해(‘江海)도시’, ‘해항(海港)도시’ 들이다.²²⁾

해항도시는 육지와 해양이 직접 만나는 곳에 형성된, 면(面)을 매개로 접촉하는 나루나 포구에서 형성된 도시이다. 삼국(三韓) 78개국의 상당수는 강하구(江河口), 만 내부, 해안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나루, 포구 등에서

21) 윤명철, 「고구려 수도의 海陸의 성격 검토 - 江海都市論을 중심으로-」, 『백산학보』 80호, 2008, 4.

22) 이 도시들의 생성과 기능 등에 대해서는 윤명철, 『해양사 연구방법론』 학연, 2012의 5장 3절 ‘수도 및 도시의 해륙적 성격’ 참고. 기타 「한민족 歷史空間의 이해와 江海都市論 모델」, 『동아시아 고대학』, 『동아시아 고대학』 23, 2012. 등 참고.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무역을 통해서 번창한 ‘도시국가(polis)’의 성격을 가진 일종의 ‘나루국가’였다.²³⁾ 한편 해항도시는 고구려의 비사성(大連, 요동반도 남단)과 남포항, 백제의 미추홀(彌鄒忽, 인천) 관미성(關彌城, 강화도) 및 익산(益山), 신라의 금성(金城,), 나주(羅州, 영산강), 금관가야의 중핵이었던 김해(金海) 등 이다. 그리고 삼척(三陟), 강릉(江陵), 울산(蔚山) 및 서산(瑞山), 당진(唐津) 등은 이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유사한 시대에 일본의 노국(奴國)·말로국(末盧國)·이도국(伊都國) 등 비교적 큰 도시들은 해항도시국가(海港都市國家)였을 것이다.²⁴⁾ 반면에 야마대국(邪馬臺國)은 내륙에 위치한 중심소국이었다.²⁵⁾

그렇다면 동아시아해 또는 우리 역사터의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시가 발달했으며, 역사의 전개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까?

23) ‘나루국가설’과 그 개념 및 성격에 관해서는 윤명철, 『한반도 서남해안의 海洋 歷史的 환경에 대한 검토』, 전주박물관 죽막동 유적학술회의, 1995. 『동아시아해와 고대일본』, 청노루, 1996.에 언급하였으며, 이후 계속해서 하항도시 해항도시 이론들을 설정하여 역사상을 규명하였다.

24) 윤명철, 『동아시아해와 고대일본』, 청노루, 1996, pp.93~94. 및 江上波夫, 『古代日本の對外關係』, 『古代日本の國際化』, 朝日新聞社1990, p.72참조. 武光 誠, 『大和朝廷は古代の水軍がつくった』JICC, 1992, pp.32~36 참조.
그런데 중국사에서 은시대의 邠을 도시국가로 파악하고 있다. 남영우, 『지리학자가 쓴 도시의 역사』, 푸른길, 2011, p.177.

25) 『삼국지』, 위지 동이전 왜인전에는 구야한국에서 야마대국까지 가는 순서와 거리, 그리고 인구수와 함께 특성 또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기록들을 분석하면 야마대국은 해항도시가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온, 그러나 해안과 가까운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지리와 지형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수의 주민들은 신석기 시대부터 육지와 강과 해양이 연결된 지역에 촌락과 도시를 이루고 살았다. 이러한 점점지역은 지형상으로 내륙수로(內陸水路)와 육로(陸路)가 연결된 후에 해로(海路)와 통합되는 곳이다. 따라서 물자의 공급지와 수요지, 그리고 집결지를 연결시켜 주기에 적합한 공간이다. 또한 자연스럽게 내륙을 정치적으로 통일(統一)시키는데 효율성이 높다. 일종의 하항도시 또는 해항도시가 생성된다. 또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갖춘 하구(河港) 및 해항(海港)을 활용하여 연안항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중해의 대부분 지역과 이어지는 대외항로(對外航路)를 사용함으로써 주변 소국들 및 외국과 교섭하면서 무역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충적평야에서 이루어지는 농경(農耕)이나 바다를 활용한 소금의 획득과 해로(漁撈) 등 생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치세력들은 강가의 나루나 바다의 포구(浦口)에서 생성했고, 수도나 중요한 도시 등을 건설하여 국력을 강하게 키우고 백성들을 풍요롭게 살게 하는데 활용했다.

2. 해항도시(海港都市)의 성립조건

항구도시가 되려면 일반적인 도시의 조건 외에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더 갖추어야 한다. 첫째, 교통이 발달해야 한다. 해륙적(海陸的)인 환경 속에서, 또한 국가가 해양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육로교통(陸路交通) 뿐만 아니라 내륙수로교통(內陸水路交通)에도 적합해야 하고, 모든 지역이 바다와 연결되고, 대외적으로 교섭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양교

통에도 유리해야 한다. 물류의 거점이고, 교통의 결절점(結節點)이어야 한다. 즉 인류(人流), 문류(文流), 물류(物流)의 요충지 기능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류의 허브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양질의 항구(港口)와 부두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지역 간의 교류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제관계에서 사신선을 비롯한 군선 등 각종 선박들이 발착(發着)하는 훌륭한 항구시설이 필요했다. 항구는 내항(內港)과 외항(外港)의 쌍체제(雙體制)로 구축되어야 한다. 큰 국가의 수도는 물론이고 해안가의 큰 소국이거나 도시가 내륙으로 들어온 지역일 경우에는 외항을 따로 구비해야 한다. 단순한 어항(漁港)과 달리 국가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외항은 바다가 가까워서 대기하다가 즉시 먼 바로 뜰 수 있어야 한다. 백제는 한성시대에 내항으로 풍납(風納)토성에 부두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화도에는 외항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미성(關彌城)이 있었으며,²⁶⁾ 인천지역에는 한진(大津)²⁷⁾등이 있었다.

셋째, 군사력과 해양방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해항도시는 선단(船團)을 보유하고 수군을 양성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은 내부가 넓거나 내륙 깊숙하게 길게 뻗어야 한다. 아울러 주변에 조선에 사용될 숲이 조성되고, 조선소를 비롯하여 수군함대기지 등을 설치하는 장소가 될

26) 한강하구 또는 강화도 북부, 교동도설이 있지만 필자는 강화도의 봉천산설을 주장하였다. 윤명철, 『江華지역의 해양방어체제연구-關彌城 位置와 관련하여』, 『사학연구』58, 59 합집호, 1999.12.

27) 인천시 남구의 옥련동에 있는 凌虛臺 자리.



〈그림 2〉 해양방어체계의 개념도

요했다. 또한 해양의 메카니즘상 방어상에 문제가 노출되므로 강변방어체제²⁸⁾ 및 해양방어체제²⁹⁾와 유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해안처럼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한 곳은 곳(串)과 포(浦), 만(灣)이 많아, 장소와 전술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곶성(串城)’, ‘포구성(浦口城)’, ‘진성(津城)’을 쌓는다. 하지만 만 전체를 주변지역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도의 한 가운데, 반도와 육지가 이어지는 부분, 내륙에 있는

28) 윤명철, 「한강 고대 강변 방어체제 연구-한강하류지역을 중심으로-」, 『향토서술』 61,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1. 「고대 한강 강변방어체제연구 2」, 『鄉土서술』 64호, 서울시사편찬위원회, 2004. 「국내성의 압록강 방어체제연구」 『고구려 연구』 15집, 고구려연구회, 2003.

윤명철,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 2012. 「해양방어체제와 강변방어체제」(『윤명철 해양논문선집 4권』), 학연문화사, 2012.

29) 해양방어체제의 성격과 기능에 대하여는 윤명철, 「江華지역의 해양방어체제연구-關彌城 위치와 관련하여」, 『사학연구』 58, 59 합집호, 1999. 및 「경기만 지역의 해양방어체제」, 『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체제』, 백산출판사, 2000 참조.

대성(大城) 내지 치소(治所)와 이어지는 곳에는 규모가 큰 거점성을 건설한다. 조선시대에 설치한 진성(鎭城)들의 일부는 이러한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곳은 대체로 해항도시의 역할을 한 곳이고, 삼한의 소국들이 주로 있던 곳이다. 그 외에도 항구도시는 물류의 허브로서 적절한 시장 공간, 큰 창고 등이 구비되어야 한다.

III. 인천 지역의 해항 도시적 환경과 구조

본고의 주제인 인천은 해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앞글에서 제시한 해항도시의 성격과는 어느 정도 부합되고 있을까? 자연환경과 지리적인 구조, 그리고 역사상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앞글에서 언급한 ‘터 이론’을 적용하여 현재 지명으로 인천, 부평, 강화도, 안산 및 한강 하류 등을 포함한 지역을 하나의 ‘터’로서 이해하고자 한다.

1. 해양환경의 검토

항해에 영향을 끼치는 자연조건 중에서 기본적인 것은 해류와 조류, 바람이 있다. 해류는 항류(恒流)와 연안에 흐르는 연안반류(沿岸返流)가 있으며 또한 지역적인 조류가 있다. 동아시아 해류에는 쿠로시오(黑潮)와 그 본류에서 갈라져 나온 지류(支流)들이 있다.³⁰⁾ 동중국해에는 쿠로시오 외에

큐슈서안(九州西岸)의 쿠로시오 분파가 있고, 또한 이 해류에서 갈라져 황해 중앙부를 북상하는 것과 동계에는 중국 해안을 남하하는 한류가 있다. 한국 서안에는 연안을 남하하는 한류가 있어 북상한 쿠로시오 일파와 합류하여 대마 해류의 상층수를 형성하고 있다.³¹⁾ 황해 및 동중국해의 해류는 바람의 영향, 중국대륙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수의 유입량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화가 많다.³²⁾ 한편 중국연안을 남하하는 해류는 발해(渤海) 및 황해 북부에서 기원하며 중국대륙연안을 따라 남하하다 남중국해(南中國海) 방면으로 사라지는데 동계에는 수온이 낮다. 그런데 이 흐름이 7·8월에는 상해만 해역에서 동으로 방향을 틀어 한반도 남부방향으로 동북상한다. 최근 해양생물학자들은 양자강에 홍수가 나면 그 물결에 의해 상해만 쪽의 물길이 제주도 쪽으로 흐른다는 설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항주만을 가운데 두고 남쪽에서 올라오던 해류는 동으로 회전한 다음에 일본열도의 서부인 고토(五島)열도 방면으로 사라진다.³³⁾

해류의 흐름은 항해술·조선술 등 인간의 문화발전과는 관련 없이 인간을 일정한 장소(場所)에서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준다. 또한 때로는 인간

30) 黑潮를 가장 협의로 한다면 東中國海로 들어서면서부터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東中國海의 흑조는 중국연안에서 일본전역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日本 北陸外海에서 북태평양을 東方으로 흘러가는 暖流系의 해류이다. 黑潮에 대하여 역사적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 이론적 접근을 한 글은 茂在寅南의 『古代日本の航海術』, 小學館, 1981, pp.88-90. 『韓國의 近海航路志』

31) 荒竹清光, 「古代環東シナ海と對馬海流」, 『東アジアの古代文化』29號, 大和書房, 1981, p.89 참조. 茂在寅南 『古代日本の航海術』, 小學館, 1981, pp.91-93.

32) 増澤謙太郎, 「日本をめぐる海流」, 『MUSEUM KYUSU』14, 1984. 博物館等建設推進九州會議. 東中國海 海流 등 다양한 자료가 있다.

33)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물리 등 자연과학의 연구성과를 수용했으며, 필자의 다른 논문들에 출처를 인용하였다.

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인간과 문화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해류의 흐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문화와 역사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없다. 하지만 문화의 전파과정에서 해류의 흐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해류는 해역에 따라 조류의 영향을 받으며, 바람의 영향 또한 상당히 받는다. 따라서 대양항해가 아닌 근해항해인 경우 해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 다음은 조류(潮流)이다.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한 물길의 발견과 항로의 선택이다. 안전한 물길이란 바람·해무(海霧) 등 해상상태의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섬들이 많고, 조류의 움직임이 복잡하면 항로의 선택이 매우 어려울뿐더러 항해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양이 아니고 연안 혹은 근해항해를 할 경우에는 조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의 동해안은 조류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방향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복잡한 지역은 지역조류에 익숙한 해양민이 아니면 항해가 불가능하다.³⁴⁾ 따라서 지역물길에 익숙한 집단이 그 지역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세력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류의 특성은 각 지역마다 개별적인 해상호족세력의 존재가능성을 암시한다. 선사시대(先史時代)와 고대(古代)사회에서 해안근처에 집단분포의 흔적이 있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³⁵⁾

34)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 나오는 재당신라인들인 暗海者란 바로 그러한 물길을 아는 항해자들을 말한다.

35) 윤명철 「西南海岸의 海洋歷史의 環境에 대한 검토」, 『扶安 竹幕洞 祭祀遺蹟』, 國立全州博物館 開館 5주년 기념 심포지움, 1995. p.28.

한편 해양조건, 특히 항해환경에 있어서 바람의 영향은 지대하다. 바람 중에서 특히 해양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절풍(季節風)이다. 계절에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람을 상시적(常時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동아시아는 계절풍 지대이다. 황해나 동중국해는 동계에는 북서풍, 풍력 3-5이고, 때때로 편북에서 편북동풍이 된다. 하계에는 편남 또는 편남동풍이 많고 風力은 3-4이고, 4월 말에서 5월 초 및 9월에는 부정풍(不定風)이 많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 바다의 바람이다.

한편 항해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조건은 각 지역 간의 항해거리와 항법이다. 황해는 얕은 바다와 복잡한 지형인 리아시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해는 평균 44m로서 일반적으로 수심이 낮고 해안선이 복잡한데다 발달된 만과 섬들이 산재해 있다. 즉 근해항해의 가능성이 많다.

황해에서의 근해항해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자연환경과 아래에 예시한 시인거리계산법을 통하여 추적해본다.

시인거리(視認距離)

$$K(\text{해리}) = 2.078(\sqrt{H} + \sqrt{h})$$

** H = 목표물의 최고 높이

h = 관측자의 眼高(7m) ** 계산 방식³⁶⁾

36) 이 방법은 視認距離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Bart J. Bok · Frances W. Wright 지음, 정인태 역, 『앞의 책』, p.26 및 茂在寅南, 『古代日本の航海術』, 小學館, 1981, p.22 참조.

차례	物標		높이(m)	거리(해리)
①	南浦	牛山	507	52.29
		九月山	945	69.38
②	海州	首陽山	995	69.38
③	群山	千房山	110	27.29
④	仁川	桂陽山	396	46.85
⑤	古群山	群島	150	30.96
⑥	浙江省		1000급	71.21
⑦	上海	云台山	625	57.45
⑧	靑島	嶗山	1153	75.44

이렇게 계산과 도표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아래 그림과 같다. 황해의 대부분 해역은 근해항해가 가능하다.



〈그림 3〉 실선 안의 A구역은 육지를 바라보면서 항해할 수 있는 해역이다.

2. 해항도시조건 검토

경기만은 북으로 황해도의 장산곶부터 해주만·강화만·인천만·안산만·남양만·평택만까지 이르는 넓은 해역을 가리킨다.³⁷⁾ 고대에는 연안항해(沿岸航海)와 근해항해(近海航海)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한반도 남부의 세력들과 제주도(濟州道), 일본열도(日本列島)를 오고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통과해야할 곳은 경기만이다. 그 때문에 정치적인 교섭, 交易, 군사작전을 막론하고, 모든 해양교통의 길목이었다. 한반도 북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길과 중국의 강남(江南)에서 들어오는 길, 그리고 제주도(濟州道)에서 올라오는 길, 한반도의 남부동안(南部東岸)에서 오는 길, 그리고 일본열도(日本列島)에서 오는 길 등 모든 물길이 상호교차(相互交叉)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바로 경기만이다. 경기만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한강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다산 정약용은 특히 한반도를 흐르는 여러 강³⁸⁾ 가운데에서 한강이 가장 으뜸이라고 강조하고,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강은 전장 514km로서 하계망(河系網)³⁹⁾을 구성하면서 서해 중부로 흘러 들어가 경기만과 유기적인 체제를 이룬다. 하류에서 백두대간의 산속에서 발원한 남·북한강이 하류인 서울 외곽인 양수리에서 합류하여 서울지역을 통과한 후에 주

37) 1955년 자료에 따르면 해안선 총 연장은 1,415.6km로 나타난다.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 상권, 1955, p.13) 그 크기는 약 4,000km²에 달한다.

38) 강과 연관된 자료는 박병익, 「하천과 산맥」, 『백제의 기원과 건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07, pp.26~37 참고하여 작성.

39) 河系網의 이론에 대해서는 權赫在, 『地形學』, 법문사, 1991, pp.108~117 참조.

변의 작은 강들과 함께 황해로 들어간다.⁴⁰⁾ 이 경기만의 한가운데에 있는 지역이 인천이다.

인천이 해양도시의 조건에 적합한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천은 항구가 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지역은 비류가 세운 미추국의 종말에서 보이듯 고대국가가 성립하는 핵심지역으로 적합한 곳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해양활동을 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안선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되어 있고, 만의 안쪽에는 월미도(月尾島) 작약도(芍藥島) 등이, 바깥에는 영종도(永宗島), 영흥도(靈興島) 등 큰 섬이 있어 파도의 흐름을 안정시키고, 만 내부가 넓어서 항구로서의 양호한 조건을 갖추었다. 반면에 만안으로 진입하려면 물길이 매우 복잡하여 현지의 해양민들이 아니면 거의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조건은 해상토착세력의 등장과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들 세력들은 중앙권력과 상호협력관계를 맺고 중국과 교섭하



〈그림 4〉 문학산성 주변의 지형과 전략지도(1890측도, 1911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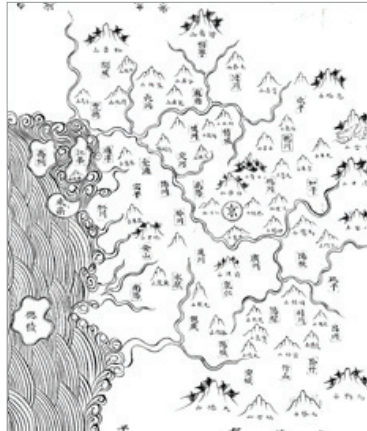
40)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漢江史』, 1985, pp.28~29.

는데 일정하고 비중 있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현재 강화도 일대와 주변 지역도 인천만과 연결되고 있다. 강화도는 한강과 예성강이 바다와 만나는 거대한 경기만의 한가운데를 막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서쪽지역과 개성 남쪽의 풍덕(豐德)과 웅진(襄津), 해주(海州) 등 황해도의 남부해안 일대가 마주치는 북부경기만의 입구를 꼭 채우고 있다. 그러므로 강화도는 한반도 서안의 연안항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 경유하거나 해역권을 통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중부세력이 대외교섭을 하고자 할 때 출해구(出海口)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강화도이다. 인천만과 연결되면서 경기만을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만이 남양만이다. 남양만도는 해양교통을 고려할 때 경기만의 남쪽에 위치한 가장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내부에 몇 개의 작은 만과 굿(串)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안산만, 남쪽으로는 평택만 및 당진만이 있다. 이처럼 경기만은 삼국시대



〈그림 5〉 인천 부평 김포 강화를 그린 청구도



〈그림 6〉 『해좌승람』 경기도 일대와 경기만

에는 중국을 오고가는 교통로로서 중요했고, 삼국이 접전을 벌였던 지리적 인 위치로 인하여 정치적으로는 물론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⁴¹⁾

자연조건이 적절하게 갖추어졌다 해도 양질의 항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한 항구가 모든 시대를 일관해서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목적,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외교섭의 방향 등 시대상황에 따라 용도와 사용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천은 위 지도에서 보이듯 만이 매우 복잡하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다. 만이 육지의 깊숙한 곳까지 연결되면 만의 포구뿐만 아니라 내륙의 강가에도 부두가 생기고 항구가 발달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 있는 항구들은 해당시대의 유적 유물과 함께 기록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고려 시대 이후에는 조운과 조창, 사용되었던 포구들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인천만은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서 항구가 발달하였다. 대표적인 고대항구는 현재 남구의 옥련동에 있는 한진(大津)이다. 능허대(凌虛臺) 밑에 있으며 백제시대의 국제 항구이었다.⁴²⁾ 지금은 해변가 공원으로 변해있다. 제물포⁴³⁾의 옛 지명은 미추홀(彌趨忽縣, 彌鄒忽縣) 혹은 매소홀현(買召忽縣)이었는데, 이는 ‘거친 들판(맷골)’, ‘물로 둘러싸인 고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선사시대에도 인간이 거주하고 어업의 터전이었으며 항구역

4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명철 『해양활동과 국제항로의 이해』, (『윤명철 해양논문선집 제3권』), 학연문화사, 2012. 윤명철 『해양방어체제와 강변방어체제』, (『윤명철 해양논문선집 제4권』), 학연문화사, 2012. 윤명철, 『해양역사상과 항구도시들』(『윤명철 해양논문선집 제5권』), 학연문화사, 2012.에 수록된 관련논문들 참고.

42) 『대동지지』 권4, 인천 산수조에는 ‘凌虛臺 西南九里海岸’ 라고 되어 있다.



〈그림 7〉 경기만(대동여지도)

할을 했었을 것이다. 백제시대에 들어와 항구의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고이왕 이후에는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시대에는 바깥바다에 자연도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포구였다.

1882년 제물포조약이 체결된 뒤 개항장으로서 성장하였다. 1968년 제물포 지역은 중구로 편입되었다.⁴⁴⁾ 영종포진(永宗浦鎭)⁴⁵⁾은 영종도에 있는데, 본 이름은 자연도(紫燕島)이다. 선사시대의 토기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에는 각 국이

43) 『대동지지』 仁川, 津渡에는 ‘濟物鎭 西四十里入永宗鎭者由此水路十餘里’ 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卷9, 仁川都護府, 鎭堡에는 제물진에도 둘레가 250보되는 토성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44) 『한국민족문화 백과대사전』 원경렬 집필 참조.

45) 『대동지지』 권4, 인천, 영종포진: ‘古城 鎭西一里有土築遺址’.

구축한 방어체제가 있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사신들이 오고가면서 묵는 경원정이 있었다. 서공이 쓴 『고려도경』에 이곳에 관한 기록이 있다.⁴⁶⁾ 나진(羅津)은 인천시 검암동, 공촌동일대인데, 염전이 있었으며, 삼국시대에는 해수와 강물이 범람해 나룻배를 이용하여 건너다녔다고 한다.⁴⁷⁾ 소래포구(蘇來浦口)는 인천시의 연수동과 안산 사이의 만으로 진입하여 내륙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두 번째로 인천지역은 군사력과 방어력을 구축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만(灣)의 밖에서는 내부의 움직임이 관측되지 않으므로 수군함대를 감추어둘 수 있다. 또한 갯벌이 많아 선박이 깊숙하게 진입하고 접안하는 일이 어려우므로 적선의 공격을 반격하는데도 유리한 환경이다. 조선시대에 제물진(濟物鎭)을 설치하고 수군을 배치하였으며, 만호(萬戶)가 주둔하였다. 『대동지지』 인천, 진도(仁川, 津渡)에는 “濟物鎭 西四十里入永宗鎭者由此水路十餘里”라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인천도호부, 진보(鎭堡)에는 제물진에도 둘레가 250보되는 토성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대동지지』에는 영종포진(永宗浦鎭)에 “고성(古城)에 진이 있는데, 서쪽에 토축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하였다. 청구도에는 중국으로 가는 물길이 표시되어 있다. 월미도진(月尾島鎭)은 매립되어 인천 연안부두의 한 부분이 되었다. 반달이 꼬리처럼 길게 늘어진데서 온 이름이다. 청구도에는 월성(月星)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효종 때 북벌을 계획하면서 행궁(行宮)을 지었

46) 경원정터는 지금의 뱃터로 추정한다.

47) 이훈익, 『인천지방향토사답』, p.304.

다. 하지만 전략적 가치로 보아 고대에도 해양방어체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지역은 고대사회에서 해안을 통해서 현재의 서울로 진입하는 길이 통과하는 곳이다. 현재 인천시의 연수동과 안산 사이의 만으로 진입하여 내륙으로 들어가는 곳에 소래포구(蘇來浦口)가 있다. 소래포구는 천연적인 포구로서 고대에도 역시 해양방어체제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660년 당나라의 소정방이 지휘하는 수로군이 공격할 때 일시로 머물면서 신라함대를 만난 곳이 덕적도이다.

또한 인천만에서 주안(朱安)으로 상륙하여 시흥과 부천사이로 빠져나가 광명(光明)을 지나 한강 이남의 서부지역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 이 길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하는 방어시설 가운데 하나가 문학산성(文學山城)이다. 문학산성은 문학산 지역의 위치나 역할로 보아 인천지역의 중심성이다. 해안 가까이 있으면서도 중앙에 있고, 해안에 있었던 군소 해안방위성(海岸防衛城) 등을 지휘하였던 성이다. 문학산성은 현재 옥련동(玉蓮洞)이고, 한진으로서 능허대(陵虛臺)의 유지가 남아있는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학산성은 내륙으로 진입하는 적을 공격하는 한편 내륙의 다른 성들과 연결하면서 유기적으로 해안방어를 총 책임지는 산성이었다.⁴⁸⁾

48) 윤명철 「경기만 지역의 해양방어체제」, 『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체제』, 백산출판사, 2000.



〈그림 8〉 능허대 (옛자리에 복원한 모습, 1999년 촬영)

계양산성은 부평의 한가운데에 있는 계양산에 있는 석성이다. 부평(富平)은 『大東地志』에는 ‘本百濟主夫吐’ 였으나 신라 경덕왕(新羅 景德王) 16년에 장제군(長堤郡)으로 바꾸었다.라고 되어있다.⁴⁹⁾ 물론 처음에는 백제의 영토였다. 후에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으며, 『三國史記』 지리지 고구려편이나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주부토군(主夫吐郡)으로 되어있다. 인천 · 서울 · 김포 등과 연결되는 중심에 있고, 바다와는 서쪽으로 14리 밖에 안된다.⁵⁰⁾

계양산의 주봉(395m)이 아닌 동쪽 아래의 203m 봉우리와 바로 옆의 또한 봉우리의 거의 정상부분을 돌아가며 쌓았다. 이규보의 『望海誌』에는 이곳이 삼면이 물이라고 하였다⁵¹⁾고 되어 있다. 계양산성은 이 지역 해양방어 체제의 중심성으로서 경기만 북부해안지역에서 한성을 향하여 진입하는 적

49) 『대동지지』 권4, 富平, 沿革.

5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富平都護府.

5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富平都護府, 形勝條.

을 방어하고, 해안진성들을 지휘하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허암산성은 인천시 서구 검암동(黔巖洞)과 공촌동(孔村洞)의 경계에 있는 해발 98m의 야산 정상부 부근을 둘러싼 테뫼식 산성이다. 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⁵²⁾ 허암산성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소금을 생산하고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부평의 중심성인 계양산의 전방방어성으로서 일종의 해안방어성(海岸防禦城) 겸 해상과 해안을 관측(觀測)하는 초소성(哨所城)으로 기능을 하였다. 할미성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시내 바로 가까이에 위치한 야산에 있는데, ‘검단산성’ 이라고 하거나 현지인들은 ‘할미성’ 이라 부른다.

세 번째로 인천은 국제항로가 발달하였다. 첫째, 환황해 연근해항로이다.⁵³⁾ 크게 보면 4개 구역으로 이루어졌으나 기본적으로는 환상형(環狀形)의 항로이므로 특정한 출발지와 도착지가 없고, 다만 경유지가 있을 뿐이다. 둘째, 중국지역을 대상으로 삼은 ‘황해중부 횡단항로’ 이다. 초기에는 경기만과 일부 남부지방의 항구에서 횡단성 항해를 하여 산둥반도의 여러 지역에 도착하는 항로였다.⁵⁴⁾ 그런데 동진(東晉)정권은 강남(江南)으로 도피하고 수도를 양자강 하구인 건강(建康, 현 南京)에 두었다. 백제는 광개토

52) 이 곳을 주목한 사람은 인천의 향토사학자인 이훈익씨로서 그에 의하여 『仁川地誌』에 기록되었다.

53) 중국의 남쪽인 절강성 해안을 출발하여 산둥반도를 거쳐 요동반도로 복상한 다음, 동으로 방향을 틀어 압록강 유역인 西韓灣에 진입한다. 이어 대동강 하구와 경기만을 지나 계속 남향한 다음에 서남해안, 남해안의 일부, 대마도, 큐슈 북부로 이어진 긴 항로이다.

54) 엄격하게 지리적인 기준으로 구분하면 한반도 남부해안에서 산둥반도 하단부로 이어지는 해역도 황해중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반도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경우에는 서해중부해역만을 황해중부로 인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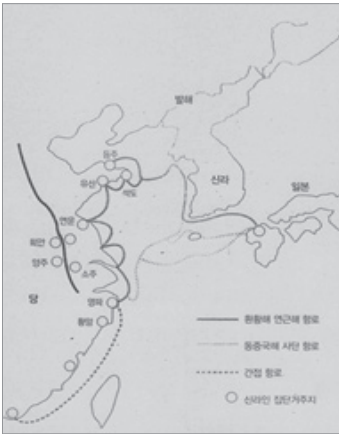
태왕의 경기만 작전 이후로 추정되지만 황해남부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항로를 개발하여 동진(東晉) 및 송(宋)과 교류하였다. 셋째, 황해남부 사단 항로이다. 전라도 등의 해안에서 출발하여 사단으로 항해하여 강소성, 절강성 등의 해안으로 도착하는 것이다. 당나라 남부지역으로 가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고려시대는 중기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다. 넷째, 동중국해 사단 항로이다. 절강 이남지역을 출발하여 동중국해와 제주도 해역, 황해남부를 거쳐 경기만으로 들어오는 항로이다. 마찬가지로 고려시대 중기 이후에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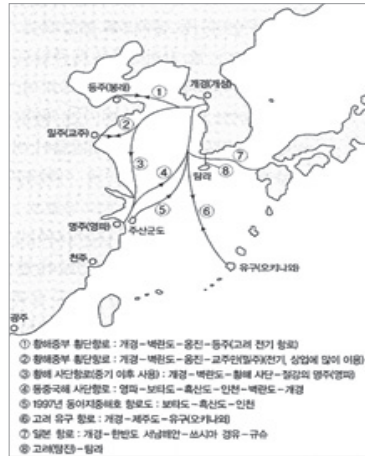
〈그림 9〉 황해연근해항로



〈그림 10〉 기원 전후의 항로도



〈그림 11〉 신라시대에 사용한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볼 수 있다.



〈그림 12〉 고려 시대의 대외항로

IV. 인천지역의 해양적 역사상 - 고대를 중심으로

인천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해양도시로 발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다가 정치 군사적으로 삼국의 이해가 마주치는 경계선에 있었으므로 전략적가치가 높았으므로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 경기만과 한강 하류를 장악하면 중부해상권의 장악은 물론이고 하계망과 내륙수로를 통해 내륙을 통합시키는데 유리하다.⁵⁵⁾ 정치적으로 내륙을 통합시키는 계

55) 윤명철, 「長壽王의 남진정책과 東亞地中海의 역학관계」, 『高句麗南進 經營史의 研究』 백산 자료원, 1995, p. 509.

기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물류체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경제권을 형성시킨다. 일본열도를 출발하여 압록강 하구와 요동반도를 경유하여 산둥까지 이어지는 남북 연근해항로의 중간기점이고, 한반도와 산둥반도를 잇는 동서횡단항로가 마주치는 해양교통의 결절점이었다. 마한의 소국들, 백제 고구려 신라가 각각 대중국교통로를 확보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인천은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에 속했으며 ‘미추홀’이라 불렸다. 『여지도서(輿地圖書)』의 인천도호부 고적조에도 미추왕(彌鄒王)의 옛 도읍지이며, 석성이 있었다고 하였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인천(仁川)은 ‘本百濟買召忽(一云 彌鄒忽國)’라고 하였다.⁵⁶⁾ 그 후의 기록들 역시 대동소이하다. 비류와 온조 집단 또한 해양세력들의 도움과 협력을 받아 이미 개설된 항로를 이용하여 남하하였을 것이다. 비류는 현재 경기만의 한 가운데인 인천만에 정착하여 미추홀(彌鄒忽)을 세웠는데, 이는 일종의 해항(海港)도시였다. 온조는 하북 위례성(河北 慰禮城)에서 하남 위례성(河南 慰禮城)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는 한강수계를 통해서 바다와 이어지는 일종의 강해도시(江海都市)였다.

백제가 점차 고대국가로 발전하고, 중국지역과 교섭할 때 인천지역은 대외교통로로서 중요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온조왕(溫祚王)이 43년(25)에 아산원(牙山原)에서 5일 동안 사냥을 함으로써⁵⁷⁾ 해안 방어와

56) 『대동지지』 권4, 仁川, 沿革.

57)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溫祚王 43年「四十三年 秋八月 王田牙山之原 五日」.

해양 진출을 동시에 모색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고이왕(古爾王) 3년(236)에 “10월에 왕은 서해의 대도(大島)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왕은 손수 사슴 40마리를 쏘아 잡았다”⁵⁸⁾라는 기록이 있다. 이 때 서해의 큰 섬은 강화도, 영종도, 덕적도로 추정되는데, 강화도일 가능성이 높다. 3섬은 모두 해상방어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해양진출을 시도하고 해상권을 장악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이는 전략적인 가치가 충분한 서해중부 해상권(西海中部 海上權)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추진한 것이다.

최근의 발굴로 인하여 밝혀진 풍납토성은 백제가 초기부터 교역이 활발했고, 한강변의 하항(河港)도시로서 잇점을 충분히 활용했음을 알려준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거점을 확보하면서 한강수계와 서해중부 해안이 가진 경제·외교적인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북진정책을 취하면서 평양성을 공격하여 남진해오는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이 결과 경기만을 완전하게 내해화 하고, 그 배후인 황해도 지방을 장악하였다. 이 시대 백제의 해양활동 능력은 왜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서기(日本書紀)』 신공기(神功紀) 기사에 따르면 백제와 왜의 교섭은 근초고왕(近肖古王) 20년(366)에 처음으로 나타난다.⁵⁹⁾ 백제는 372년부터 황해를 건너 건강(健康 현 남경)에 수도를 둔 동진(東晉)을 비롯해서 중국의 북부지역과 활발히 교섭하였다.⁶⁰⁾ 『삼국사기』에 의하면 근구수왕(近仇首王), 침류왕(枕流王)때까

58)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古爾王 3年 「三年冬十月 王獵西海大島 王手射四十鹿」.

59) 『日本書紀』 卷9 神功紀 攝政 46年.

春 三月…遣于百濟國 慰勞其王. 時百濟肖古王 深之歡喜 而厚遇焉…

60) 『晉書』 권9 本紀 簡文帝.

지 동진(東晉)과 사신 교류가 있다.⁶¹⁾ 또한 개성 부근에서 서진시대의 청자 호자(靑磁虎子)가 발견된 것을 비롯해 동진계의 자기가 석촌동 고분군과 원주 근처 법천리에서 발굴되었고, 몽촌토성에서 남조의 청자편이 발견되었다.⁶²⁾ 황주지역에서도 백제 토기가 출토되었다.⁶³⁾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인천 지역은 백제의 국제항구가 있었을 것이다. 현재 남구의 옥련동에 있는 능허대(凌虛臺) 밑인 한진(大津)은 국제항구이었다.⁶⁴⁾

고구려는 4세기에 들어서면서 남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경기만을 빼앗고자 하였다.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고, 정치적인 통일을 실천하고, 대외교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이른바 동아시아중해 중핵국가로서 발돋움 하려는 목적 때문이다. 광개토태왕은 즉위한 직후인 7월에 남벌(南伐)하여 백제의 석현(石峴) 등 10성을 빼앗았다. 그리고 9월에 거란(契丹)을 정벌하고 난 후에 막바로 10월에 다시 백제를 공격하여 관미성(關彌城)⁶⁵⁾을 함락시켰다. 관미성 전투가 벌어진 양상과 그 성에 대한 지형묘

61)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近仇首王 5년조, 枕流王 원년조.

62) 崔夢龍, 「上古史의 西海交涉史 研究」, 『國史館論叢』 3집, 1989. pp.23~25 도표.
-----, 「考古學的 資料를 통해서 본 黃海交涉史 研究序說」, 『제1회 環黃海韓中交涉史研究 심포지움』, 震檀學會, 1988, p.178~180. 權五榮, 「고고학적 資料를 통해서 본 백제와 중국의 문물교류」, 『위의 자료』. 尹龍二, 「百濟遺跡發見의 中國陶磁」, 『馬韓·百濟文化研究 成果와 課題』, 제9회 마한·백제문화 국제학술회의 발표요지, 1987.

63) 최종택, 「황주출토 백제토기 예」, 『한국상고사학보』 4, 1990. pp.329~340참조.

64) 『대동지지』 권4, 仁川 山水條에는 ‘凌虛臺 西南九里海岸’ 라고 되어 있다.

65) 關彌城 위치비정에 대한 제설은 다음과 같다.

李丙燾, 『한국고대사 연구』, 박영사, 1976. 『國譯 三國史記』는 喬桐島說.
今西龍, 「廣開土境好太王碑の就いで」, 『朝鮮古史の研究』, 1970, p.466. 江華 沿安一帶說.
文定昌, 『百濟史』, 柏文堂, 1975, p.185에서 江華說.
金聖晃,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 知文社, 1984. p.85 金川郡의 助邑浦說.
武田幸男,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p.171.에서 開城說.

사, 그리고 양국 간의 쟁탈전이 벌어진 것을 볼 때 관미성 전투는 해양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어 6년(396)에는 대규모의 수군(水軍)을 투입하여 백제의 58성과 700촌을 탈취하였다. 강화도(교동도를 포함) 혹은 한강수계 하류지역의 한 지점으로 비정되는 관미성(關彌城), 통진(通津)으로 추정되는 비성(沸城)과 아차성(阿朶城), 인천지역으로 비정되는 미추성(彌鄒城)과 남양만(南陽灣) 지역 등을 점령하였다.⁶⁶⁾ 제 1로는 대동강 유역에서 출발하여 예성강 하구와 한강이 만나는 강화 북부에서 한강하류를 거슬러 오면서 김포반도와 수도를 직공 하는 것이다. 제 2로는 김포의 수안산 지역, 인천의 여러 지역 특히 공촌동 한진 제물포 소래 등의 해안을 통해서 상륙작전을 감행한 다음에 부평의 계양산성이나 문학산성으로 추정되는 인천의 미추성을 점령하는 것이다.⁶⁷⁾ 그 다음에 현재의 서울 서부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인천의 문학산성은 백제가 쌓은 미추성이라고 한다. 제 3로는 안산만과 남양만⁶⁸⁾ 등으로 상륙하여 수원, 용인 과천 등을 거쳐 한성의 배후를 치는 것이다. 남양만

金崙禹, 「廣開土王의 南下征服地에 대한 一考察」 『史學論叢』 龍巖 車文燮教授 華甲記念, 1989.

尹日寧, 「關彌城 位置考」, 『북악사론』 2, 1990.은 烏頭山城.

손영중, 『앞의 책』, p.297에서 백마산 古城說.

66) 윤명철, 「高句麗前期의 海洋活動과 古代國家의 成長」, 『韓國上古史學報』 18호, 한국상고사학회, 1995

윤명철, 「광개토태왕의 군사작전에 대하여-수군을 중심으로-」, 『고구려연구회 학술총서』 3, 고구려연구회, 2002.

67) 『廣開土大王陵碑文』에는 병신년에 점령한 성 가운데 彌鄒城이 나타나고 있다.

68) 옛 남양땅은 백제의 黨項城이었으나 『고려사』에서 고구려의 당성군이라고 언급한 이후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에서 당성을 고구려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 명칭도 唐城縣, 唐城郡으로 되어있다.

은 동쪽은 용인군과 광주군이 있고, 북으로는 수원시와 시흥군이 남쪽은 평택군이 충청도와 만나고 있다. 이어 475년에는 장수대왕이 한성을 전면적으로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삼국사기』에는 齊次巴衣縣, 買召忽縣을 각각 一云 彌鄒忽이라고 하였다.⁶⁹⁾ 『삼국사기』 地理志에는 ‘邵城縣本高句麗’(買召一作彌鄒)라고 하였다.⁷⁰⁾

백제가 5세기 중엽 무렵에도 경기만의 항구를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장수왕이 추진한 남진정책으로 인하여 경기만을 비롯한 황해 중부 해상권을 상실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주변국들과 활발한 외교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고, 국제사회에서는 위상이 약화됐다. 471년 개로왕이 북위에게 보낸 국서(國書)의 내용은 그 무렵에 백제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개로왕(蓋鹵王)의 죽음과 한성(漢城)을 상실한 이후에 백제는 웅진(熊津)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나 백제는 꾸준히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한강 유역의 영토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기도는 무왕(武王) 때에 이르러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후에 신라의 진흥왕이 2차 나제동맹(羅濟同盟)을 깨고, 이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는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한강유역과 경기만은 신라의 대내외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부상하였다. 신라는 곳곳에 수군기지를 두어 수군함대를 양성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해양작전을 실시하였을 것이다. 564년에 북제(北齊)로 조공을 보냈고, 565년에는 북제(北齊)로부터 ‘使

69) 『삼국사기』 권37, 地理志, 高句麗.

70) 『朝鮮各道邑誌』 仁川府에서도 연혁에서 高句麗 買召忽縣이라고 되어 있다.



〈그림 13〉 광개토태왕의 수군작전로

持節都督東夷校尉樂浪公新羅王’의 칭호를 받는다.⁷¹⁾ 이는 독자적으로 황해를 항해하여 중국세력과 교섭을 한 결과이다. 진평왕(眞平王) 5년(583)에 선부서(船付署)를 설치한 사실⁷²⁾은 신라가 국가정책으로 해양활동 능력을 확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평왕(眞平王) 11년에는 원광(圓光)이 진(陳)나라에 갔으며, 18년에는 승려인 담육과 사신이 수(隋)에 파견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양국 간의 교섭은 활발해졌고, 신라의 국제적인 지위를 빠르게 향상시켰다. 당나라가 건국하자 신라의 대외교섭은 더욱 활발해졌다. 김춘추 김인문 등 비중있는 인물들을 수시로 당에 파견하였다.⁷³⁾ 642년

71) 『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 진흥왕 25, 26년.

『北齊書』卷 7 帝紀 第 7 武成帝 河清 3年.

72) 『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 진평왕 5년.

73) 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1984, p.317.

에 백제와 고구려는 당항성을 공격하여 신라 사신단이 당나라에서 귀국하는 길을 끊고자 하였다.⁷⁴⁾ 『삼국사기』에 의하면 668년인 문무왕 8년에 유인궤(劉仁軌)는 당항진(黨項津)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당시 신라가 사용한 항구는 현재 남양반도 지역이다. 그러므로 인천만 지역이 대외교통의 중요한 거점이었음은 분명하다.

통일신라의 후대에 왕건 등 집안은 개주(開州), 정주(貞州), 염주(鹽州), 백주(白州)의 4개주와 강화(江華), 교동(喬桐), 하음(河陰) 등 3개현을 토대로 성장한 해상토호이다. 즉 황해도 남부와 경기도 서부, 강화도가 만나고, 황해와 한강하류와 예성강이 합쳐지는 이 소지중해같은 곳에서 성장한 것이다. 그를 도운 호족들은 해양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인천지역 남양지역 등은 핵심세력이었다. 경기만을 둘러싸고 고려와 후백제는 해전 등을 벌이기도 하였다.⁷⁵⁾ 인천은 그 후 고려가 송 및 남송과 교류하는 외항격으로서, 개경의 내항인 벽란도(碧瀾渡)에 기착하기 직전에 대기하는 항구도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⁷⁶⁾

74)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 선덕왕 11年.

75) 윤명철 「후백제의 해양활동과 대외교류」, 『후백제건원정권과 전주』, 전주시 후백제문화사업회, 2000.

76) 고려의 해양활동과 사용한 항로에 대해서는 『徐熙의 宋나라 使行航路 探究』, 서희 서거 100주기 기념 학술회의. 고구려연구회, 1999.

V. 결론

한 도시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과정과 함께 자연환경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 대륙과 반도와 해양을 포괄하고 있는 자연환경의 특성상 동아시아중해 및 한민족 국가의 대부분 도시는 해양과 관련을 맺고 있다. 서해안 남해안 등 해안선이 복잡한 지역은 만과 굽 등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 포구(浦口), 진(津), 도(渡) 등이 발달했다. 더욱이 해안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촌락과 도시들은 해양적 성격이 강하며, 일부 도시들은 해양과 연관하여 생성되고 발전하고, 쇠락한 해항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강과의 연관성 속에서 하항도시(河港都市)와 연결된 경우가 많았다.

필자는 인천의 해항도시적인 성격을 규명할 목적으로 ‘동아시아중해모델’과 ‘터이론’ 등을 적용하여 경기만 지역의 자연환경을 검토하면서, 해항도시의 조건에 걸맞는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인천은 근대 이후에 개항되기 이전부터, 한민족 국가들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이었으며, 시대상황에 따라서 해항도시의 역할 또한 담당하였다. 인천은 지리적으로 좁게는 안산·부평·강화·한강 하류, 넓게는 경기만 전체의 몇몇 해항도시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때로는 관리 기능까지 한 중심도시이다. 또한 대륙의 한강 주변지역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면서 경기도 해안지역의 많은 부분을 관리하는 중핵도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물론 이는 시대의 발전과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정치적인 상황과 해양문화의 중요성에 따라 그 위상이 영향 받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고대국가가 성립한 이후에 인천 지역을 둘러싸고 정치·군

사·경제 갈등이 계속됐다. 삼국 시대에는 백제가 장악하여 항구 도시로 활용하면서 국제질서에 유리하게 활용하였다. 그 후 광개토태왕이 396년에 인천지역을 공격한 이후 장수왕 시대에 이르러 완전하게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어 신라가 장악하였고, 신라는 강화도 일대와 인천 일대의 수군 세력을 활용하여 대당외교에 활용하였고, 당나라군대와 합동작전을 벌여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활용하였다. 통일신라가 이 지역을 중요하게 여겼음은 당성진(唐城鎭)을 인천만의 남쪽인 남양반도에 설치하였고, 이어 혈구진(穴口鎭)을 강화도 일대에 설치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본고의 성격상 필자의 이론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필자의 글들을 주로 이용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인용하는데 혹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가 발표한 관련 논문에는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질정을 바란다.

참 고 문 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대동지지』 卷4

『新增東國輿地勝覽』 9

『朝鮮各道邑誌』 仁川府

『日本書紀』

『續日本紀』

『續日本後紀』

『三國志』

『周書』 49, 列傳

대한민국 水路局(1973), 『근해항로지』.

해수부 『한국의 해양문화』(2002), 서해(上) 해양수산부.

경기도지편찬위원회(1955), 『경기도지』 상권.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1985), 『漢江史』.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 백과대사전』.

저 서

姜大玄(1980), 『도시지리학』, 교학사.

남영우 저(2007), 『도시공간구조론』, 법문사.

남영우 · 최재현 · 손승호 저(2009), 『세계화시대의 도시와 국토』, 법문사.

남영우(2011), 『지리학자가 쓴 도시의 역사』, 푸른길.

서울대학교출판부(2000), 『역사와 도시』.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2002), 『강좌 한국고대사』 7-춘락과 도시.

무함마드 간수(1992), 『新羅 · 西域 交流史』, 단국대 출판부.

손영종(1997), 『고구려사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申滢植(1988), 『新羅史』, 이화여대출판부.

신형식 · 최근영 · 윤명철 · 오순제 · 서일범(2000), 『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체제』, 백산출판사.

尹乃鉉(1994), 『고조선연구』, 일지사.

윤명철(1996), 『동아지중해와 고대일본』, 청노루.

윤명철(2002),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학연문화사.

윤명철(2003), 『고구려 해양사 연구』, 사계절.

윤명철(2003), 『바닷길은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사계절.

윤명철(2003), 『한국 해양사』, 학연문화사.

윤명철(1988), 『渤海의 海洋活動과 동아시아의 秩序再編』 고구려연구 6, 학연문화사.

윤명철(2012), 『윤명철 해양논문선집 8권』, 학연문화사.

윤명철(2012), 『해양방어체제와 강변방어체제』(『윤명철 해양논문선집 제

4권』), 학연문화사.

윤명철(2012), 『해양역사상과 항구도시들』(『윤명철 해양논문선집 제 5권』),
학연문화사.

윤명철(2012), 『해양사연구방법론』, 학연문화사.

任德淳(1988), 『政治地理學原論』, 일지사.

역 서

그레이엄 크랄크 지음(1999), 정기문 옮김, 『공간과 시간의 역사』, 푸른길.

董鑒泓 等 편, 成周鐸 역주(1993), 『中國 都城 發達史』, 학연문화사.

류제현편역, 테리 조든 비치코프. 모나 도모시 지음(2008), 『세계문화지리』
살림.

바트 T 보크, 프츠란시스 W 라이트 지음, 정인태譯(1963), 『基本航海學』, 대
한교과서주식회사.

에드워드 홀 지음, 최효선 옮김(2005), 『숨겨진 차원-공간의 인류학을 위하
여』(시리즈), 한길사.

에머리 존스 저, 이찬 권혁재 역(1985), 『人文地理學 原理』 법문사.

李成市 저, 김창석 역(1999), 『동아시아의 왕권과 교역』, 청년사.

존 펄린 지음, 송명규 옮김(2006), 『숲의 서사시』, 따님.

테리 조든 비치코프, 모나 도모시 지음, 류제현 편역(2008), 『세계문화지리』,
살림.

SIBIL MOHOLY-NAGY 著, 崔宗鉉·陳景敦 譯(1990), 『都市 建築의 歷史』,
p.22.

외국서

중국

孫光圻(1989), 『中國古代航海史』, 海洋出版社.

李永采(1990), 『海洋開拓 爭霸簡史』, 海洋出版社.

일본

古廐忠夫 編(1994), 『東北アジアの再發見』, 有信社.

茂在寅南(1981), 『古代日本人の航海術』, 小學館.

西嶋定生(1985), 『日本歷史の國際環境』, 東京大出版社.

西谷正(1994), 「朝鮮式山城」, 『岩波講座日本歷史』3권(古代 2).

井上秀雄(1983), 『變動期の東アジアと日本』, 日本書籍.

佐佐木高明, 『照葉樹林文化』, 『續 照葉樹林文化』.

논문

권오영(1988), 「4세기 백제의 지방통제방식 일례-동진 청자의 유입경위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18.

- 박병익(2007), 「하천과 산맥」, 『백제의 기원과 건국』,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윤명철(1995), 「長壽王의 남진정책과 東亞地中海의 역학관계」, 『高句麗南進 經營史의 研究』, 백산자료원.
- 윤명철(1995), 「廣開土大王의 對外政策과 東亞地中海戰略」, 『軍史』 30, 국방군사편찬위원회.
- 尹明喆(2000), 「하남지역의 방어체제 연구노트 1」, 『백제역사문화자료집』 창간호, 백제문화연구회.
- 윤명철(2002), 「비류집단의 이동경로와 정착에 대한 검토」,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시아중해』, 학연문화사.
- 윤명철(2007), 「渤海 유역의 역사문화와 동아시아 세계의 이해- ‘터(場, field) 이론’의 적용을 통해서-」, 동아시아 고대학회.
- 윤명철(2008, 4.), 「고구려 수도의 海陸의 성격」, 『백산학보』 제 80호, 백산학회.
- 윤명철(1999), 「江華지역의 해양방어체제연구-關彌城 위치와 관련하여」, 『사학연구』 58 · 59 합집호.
- 윤명철(2000), 「경기만 지역의 해양방어체제」, 『고구려 산성과 해양방어체제』, 백산출판사.
- 윤명철(2009), 「백제 수도 한성의 해양적 연관성 검토1」, 『위례문화』 11 · 12 합본호, 하남문화원.
- 윤명철(2009. 10. 22.), 「해양사 연구의 방법론 검토와 제언」, 『해양문화학 학술대회』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윤명철(2006), 「동아시아의 해양공간에 관한 재인식과 활용 - 동아시아중해 모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고대학』 14, 동아시아 고대학회, 경인문화사.

윤명철(2009), 「경주의 해양도시적 성격에 대한 검토」, 『동아시아 고대학』 20호.

윤명철(2010. 06. 05.), 「서울지역의 강해도시적 성격검토」, 『2010, 동아시아 고대학회 학술발표대회』, 동아시아 고대학회.

윤명철(2010, 12.), 「한민족 역사공간의 이해와 강해도시론 모델」, 『동아시아 고대학』 23호.

이도학(1992), 「백제 한성시기의 도성제에 관한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이도학(2007), 『百濟의 文物交流』,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10,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李亨求(1988), 「발해연안 석묘문화의 원류」, 『한국학보』 50, 일지사.

李亨求(1989), 「발해연안 빗살무늬토기문화의 연구」, 『한국사학』 10,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외 국

王俠, 「集安 高句麗 封土石墓與日本須曾蝦夷穴 古墓」, 『博物館研究』, 42期, 1993-2期.

『文物』 1984-1기].

國分直一(1981),『古代東海の海上交通と船』,『東アジアの古代文化』29號,大和書房.

荒竹清光(1981),『古代 環東シナ海 文化圈と對馬海流』,『東アジアの古代文化』29號 大和書房.

吉野正敏(1984),『季節風と航海』,『Museum Kyushu』14號. 博物館等建設推進九州會議.

堀 敏一(1993),「中國と古代 東アジア世界」,『岩波書店』.

국 문 초 록

인천의 해항도시(海港都市)적 성격과 해양역사상 - 고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는 육지와 해양으로 구성되어있고, 주민의 교류, 전쟁, 무역 등의 모든 역사 활동들도 해양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항구도시들이 발달했었다. 그 중 경기만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이며, 그 핵심은 인천만이다. 따라서 인천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문화가 발달했으며, 역사시대에 들어오면서 해항도시가 생성되었다. 해양환경과 지리환경을 고려하면 인천만은 국제항로가 발달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만이 복잡하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크고 작은 항구가 발달하였으며, 해안가 주변은 물론이고, 내륙으로 진입하는 지역에는 산이 발달하여 방어에 적합한 지형이다. 또한 수로망이 긴 한강과 연결되며, 정치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지역을 배후에 두고 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발달할 수 있었다. 때문에 고대국가가 성립한 이후 인천 지역을 둘러싸고 정치, 군사, 경제, 갈등이 계속됐다. 삼국 시대에는 백제가 이 지역을 장악하여 항구도시로 활용하면서 국제질서에 유리하게 활용하였다. 그 후 광개토태왕이 396년에 인천지역을 공격한 이후 장수왕 시대에는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신라에 의해 장악된 이후에는 강화도 일대와 인천 일대의 수군세력을 활용하여 대당외교에 활용하였고, 당나라 군대와 합동작전을 벌여 백제를

멸망시키는데 활용하였다. 통일신라가 이 지역을 중요하게 여겼음은 당성진을 인천만 남쪽인 남양반도에 설치하였고, 이어 혈구진을 강화도 일대에 설치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인천, 국제항로, 해항도시, 방어체제, 항구

Abstract

Characteristics as a port city and ocean historical perspective of Incheon

Professor Myung-chul Youn
(Dong-guk university)

East Asia is consisted of land and sea. It is deeply related to wars, trades, and the way residents connected each other so that port cities have been developed in the area. Gyung-gi Bay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regions in East-Asia history, and Incheon Bay is right at the core. In the area of Incheon, civilization began in prehistoric times and developed port cities in historic times. Incheon Bay is adequately located to develop international routes considering its oceanic and geographical environments. Small and big sized port cities were developed with its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complexity of bays and range of the sea level during the ebb and flow. The area is mountainous around the coast and the land which provides a perfect condition for defense. It has waterways connected to Han River and is located near Seoul, the center of politics and economies which enables Incheon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Therefore, it was inevitable that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s continued in Incheon area since there was an ancient nation until now.

Key words: Incheon, International routes, Port city, Defense system, Port

서해안 지역 임경업 신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서종원*

- I. 서론
- II. 임경업 신앙 개관
- III. 연구 현황
- IV. 연구 과제
- V. 결론

서
종
원

I. 서론

고래로부터 서해안 지역은 문화 교류가 활발하였다. 실제로 이 지역은 동아시아 내지 황해문화의 남북 연결로 외에 동서 연결로의 구실을 겸하고 있어, 중국 이북의 해안보다 정치·군사적 성격이 약하고 활동 폭은 적은 반면 문화적으로 매우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¹⁾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1) 윤명철(1998), 「서해안 일대의 해양역사적 환경에 대한 검토」, 『부안 죽막동 수성당 제사 유적 연구』, 전주박물관, pp.103-104.

서해안 지역은 일찍부터 해로(海路)가 잘 발달된 곳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활발한 문화 교류 역시 이 해로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²⁾ 오래전부터 이 해로는 조운로(漕運路)로도 이용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상당수의 상선들이 전국의 희귀한 물품들을 이 해로를 통해 서울 등의 대도시 장에 내다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³⁾ 전자의 경우는 특히 조선시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입증해주듯 서해안 여러 지역에는 조창(漕倉)이 있었다.⁴⁾

이런 환경을 지닌 덕분에 서해안 지역에는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서해안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임경업 신앙이다. 조선시대 역사 인물인 임경업과 관련 있는 임경업 신앙은 내륙과 해안 지역에서 나타나는데, 해안 지역의 경우는 서해안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해안 지역의 문화적 실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임경업 신앙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분명하다. 오늘날 임경업 신앙이 서해안 여러 지역에 전승되고 있으며, 비교적 넓은 신앙권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 문화코드가

2) 조선시대에 미곡 등 무거운 화물의 대량 수송은 주로 수운에 의존하였다. 특히 세곡은 각지의 창고에 집적한 후 내륙 수로나 해로를 통하여 서울로 운송하였다(고동환(1998), 『조선후기 서울상업사발달연구』, 지식산업사, p.145).

3) 숙종 대 이후로 전국적인 해로 유통권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포구의 신설과 복설이 진행되었다. 해로의 전국적인 개척은 국내 상업의 발달에 따른 것이었다. 상업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통의 발달이 필수적이었으므로 대량 운송이 용이한 해운업이 숙종 대를 거쳐 영·정조시기에 크게 발전하였다(이민웅(1995),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론』 34,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p.23).

4) 범성창, 덕성창, 안흥창과 같은 대표적인 조창이 서해안 지역에 있었다.

다. 특히 임경업 신앙이 서해안의 조기 어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역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임경업 신앙의 연구는 필자를 비롯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임경업 신앙의 형성과정을 비롯해 전승과정 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여러 가지 면에서 보완할 내용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민속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기록된 문헌 자료를 활용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시대를 살았던 임경업이라는 인물이 신으로 좌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자료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경업 신앙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현황과 미비점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현황에서는 기존 연구를 총망라하여 임경업 신앙 연구에서 주로 논의되는 내용과 함께 부족했던 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연구 과제에서는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피력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임경업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3장에서 언급할 연구 현황에서는 필자가 박사논문(2009년)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이후에 발표된 연구까지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임경업 신앙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II. 임경업 신앙의 개관

임경업 신앙은 조선 시대를 살았던 임경업과 관련된 신앙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임경업 신앙이라 명하는 이유는 임경업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 행위가 비교적 여러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임경업을 신으로 모시는 의례가 점차 확대되어 하나의 종교 행위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도 필자가 신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주된 이유이다.⁵⁾

임경업 신앙과 관련된 실존 인물 임경업(林慶業:1594-1646)은 충주 달천에서 태어난 장군(將軍)이다. 그는 국가를 위해 여러 가지 공을 세웠으나, 역모에 관련된 혐의로 심문을 받다 옥사(獄死)를 당한 인물이다. 그가 신으로 모셔지게 된 연유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오늘날 임경업 신앙은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내륙과 해안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륙에서 임경업이 신으로 모셔져 있는 지역은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하나는 충주의 충민사에 모셔져 있는 것처럼 사당에 모셔져 있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낙안읍성에서 볼 수 있듯이 마을 주민들이 그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⁶⁾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과 달리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임경업 신앙이 전승되고 있다는 특징은 지닌다.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보이긴 하나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충청도와 경기도·인천광역시·황해도 지역

5) 이에 대해서는 설성경 등 다양한 연구자들이 먼저 언급하였다.

6) 김효경의 연구에 따르면 내륙지역에서 임경업이 신앙의 대상으로 좌정된 지역은 낙안을 비롯해, 파주군 문산읍, 태백시 황지동에서 모셔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효경(1998), 「한국 마을 신앙의 인물신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114).

에서 임경업 신앙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옹진군에 속한 대청도·덕적도·소청도에서, 충청도의 경우에는 창리 마을에서 임경업을 신으로 모시고 있다.⁷⁾ 아래에 소개할 표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을 토대로 해안 지역에서 임경업 신앙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정리한 것이다.⁸⁾ 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임경업 신앙은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던 조기[石首魚]라는 어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임경업 신앙은 형성·전승 과정에서 조기라는 어종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표에 소개한 지역들 대부분이 과거에 조기 어업이 활발하였다.

道	송배지역
황해도	철산대호도, 송화초도, 장연몽금포, 대수압도, 소수압도, 옹매도
인천·경기도	옹호도, 육개마을, 해남,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소연평도, 덕적도, 문갑도, 강화군 갑곶리 진해, 외포리, 산산면 매음리 어유정, 석모리 창마을, 옹유도 소무의리, 파주군 문산리 하동마을, 화성군 우음도, 인천시 북성포
충청도	창리, 서산시 대산면 독곶, 안면도 황도,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 원성호, 광천읍 음암리, 태안군 근흥면 정중리 정산포,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 성구미

7) 서해안 지역에서 임경업 신앙이 형성된 지역은 주강현의 「서해안 조기잡이와 어업생산물습」(『역사민속학』 창간호, 1991, 110쪽)를 참고하길 바람.

8) 아래 제시할 표는 김효경의 석사논문 114쪽 표 11를 참고하였으며, 여기에서 누락된 지역들은 다른 자료를 토대로 추가 정리하였다. 추가한 자료는 이인화(2005)의 「충청남도 내포지역 마을제당에 관한 연구-민속지리적 접근」(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과 강성복(2007)의 「조선후기 홍성 성호리 洞祭의 성격변화 연구」(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다. 이 표는 이들 연구를 토대로 오늘날 행정 구역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해안 지역에서 모셔져 있는 임경업 신앙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전승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대청도[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근래[1980년대 무렵]에 행해졌던 임경업 신앙과 관련 된 제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청도의 당 고사는 이미 20년 전에 사라졌으나 35년 전인 27세 때 당고사의 하제수를 지냈던 대청도 주민 지성중(62) 씨에 따르면 예로부터 9월 9일 자정이 되면 도민의 안녕과 풍어를 위한 당고사가 어김없이 행하여졌다고 한다. 당시 당고사는 생기복덕을 보아 그해에 생기가 맞는 사람 중에서 喪主라든가, 기타의 부정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 상제수 1명과 하제수 4명을 선정하여 이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는데 선정된 상제수와 하제수는 목욕재계함으로서 몸을 청결히 유지하였다. 당고사에 필요한 제물은 하제수들이 준비하는데 2-3년 된 소 한 마리, 시루떡, 메(쌀밥), 주과포 등이 준비되었다. 9월 9일 자정이 되면 상제수와 하제수들은 준비한 제물을 정성스럽게 당에 차려 놓은 후 먼저 임경업장군의 화상이 걸려 있는 임장군 당에서 고사를 지냈으며 이어 애기씨 당에서 고사를 지냈다.⁹⁾

그렇다면 어떤 연유로 임경업 신앙이 서해안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되는 것일까? 무엇보다 본래 연평도 지역을 수호하던 임경업 신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래 연평도 지역의 임경업 신앙이 오늘날 서해안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원인

9) 한상복·전경수(1982), 『한국의 낙도민속지』, 집문당, p.71.

은 서해안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조기 어업을 주목해야 한다.¹⁰⁾ 이런 내용들을 고려하면 연평도 지역이 과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기 어장인 관계로 이곳을 찾은 조기잡이 어민들을 중심으로 오늘날처럼 서해안 여러 지역으로 임경업이 신앙이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¹¹⁾

임경업 신앙이 서해안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양상은 비교적 여러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에 속한 소무의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술 자료를 확보하였다.

소무의도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마을에서 임경업을 마을신으로 모시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라 한다. 마을에서는 본래 임경업을 마을신으로 모시지 않았으나, 해방 이후 연평도로 조기를 잡으러 다니던 어부들이 마을에 임경업을 모시는 당집을 짓자고 하여 지은 것이라 한다. 이를 계기로 매년 음력 3월 중순이 되면 배를 부리던 사람들만 참여하여 임경업 당집에서 제의를 지냈다.¹²⁾

그런데 개별 지역에 따라 이러한 양상은 차이를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해안 여러 지역을 오가며 굿하던 무녀가 임경업 신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였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남는

10)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박사논문 IV장 임경업 신앙의 형성과 정립, V장 임경업 신앙의 확대 과정을 참조하기 바람.

11)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오늘날 임경업 신앙이 전승되는 지역들 역시 과거에는 조기 어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2) 필자 현지 조사, 2008. 3. 8.

다. 여러 지역에서 임경업 신앙이 전승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연평도 지역에서 임경업 신앙이 형성되었을까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임경업 신앙 연구에서 이 점은 중요하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임경업 신앙이 연평도 지역에서 형성될 무렵의 시대·지역적 배경은 물론, 임경업이 조기 어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어업사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후자인 조기 어업과 관련된 내용은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임경업이 연평도 지역민들에게 조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연평도 지역의 조기 어업을 개척했다는 점이다. 이런 흔적은 아래의 설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는 임경업이 두려워서 북방의 육로를 쳐들어오지 않고 서해로 쳐들어와 마침내 조선의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세자대군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을 볼모로 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갔다. 임경업 장군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죽을 까봐 음식과 물을 모두 버리고 임장군에게 먹을 물과 음식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가시나무를 꺾어오라고 하여 그 나무를 빙 둘러 바다에 꽂으니 가시마다 조기가 걸려나와 그것으로 반찬을 했다. 그 이후로 연평도에서 조기잡이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연평도에서 조기잡이를 나갈 때에는 언제나 임장군에게 제를 지낸다.¹³⁾

위의 설화는 비교적 넓은 분포권을 지닌다. 전라도 고창지역부터 그 위쪽인 충청도와 경기도, 그리고 과거에는 황해도 일대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설화가 전승되었다. 반면 임경업 신앙의 분포권은 설화에 비해 넓지 않다.

임경업 신앙이 연평도 지역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시대·지역적 배경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¹³⁾에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여기에서 임경업이라는 인물이 신앙의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선택·수용된 이후, 그리고 신앙의 형성단계와 정립 단계로 나눠 각각의 배경을 정리하였는데, 필자가 특히 주목한 내용은 임경업 신앙이 형성되던 당시 연평도의 지역적 상황이었다. 외부에서 적지 않은 유민이 유입되고, 생업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임경업이라는 실존 인물이 연평도 지역의 마을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런 연유로 연평도 지역의 마을신으로 모셔졌던 임경업 신은 조기 어업이 확대되고, 그의 영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자연스레 조기잡이 어민들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 여러 지역의 신으로 모셔지게 되었다.¹⁴⁾ 예전처럼 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긴 했으나 오늘날까지도 일부 어민들은 그를 모시면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조기 어업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어종과 관련된 신으로도 모셔지고

13) 이윤석(1985), 『임경업전연구』, 정음사, p.54.

14) 일제강점기 임경업 신앙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 소개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에 도 외지 어선들이 임경업 장군을 신으로 모시고 고사를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연평현을 말할 때 제외하지 못할 민속은 임장군 신앙이다. 병자호란 당시에 황해 연안 방어하던 임경업 장군은 어부들이 신앙하는 것이다. 무장과 어부하면 기묘한 콘트라스트이지만 연평바다에 조기 잡으러 갈 예정을 하고 어선을 新建할 때도 임장군을 위하는 고사가 있고, 또 현장인 연평에 당도하여도 정성껏 그들은 치성을 드린다. 그러므로 양력 3월경에 한강의 노들(노량진) 등에서는 가끔 이 조깅배의 진수고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연평도 석수어업과 임장군과의 관계가 대단히 깊은데 그것은 임장군이 연평도에서 가시답불로 조기 낚기를 시작한 연고라고 한다(송석하(1936.5.1), 「조선팔도풍속개관·황해도」, 『신동아』 6권 5호).

있다. 오늘날 연평도 지역의 꽃게잡이 어부들은 그를 모시면 많은 양의 꽃게를 잡을 수 있다고 하여 그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

임경업이라는 인물이 신으로 모셔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실존 인물신과 마찬가지로 그가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기본적인 배경도 반드시 눈여겨보아야 한다. 가령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거나 혹은 그가 장군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임경업과 관련된 다양한 설화¹⁵⁾와 역사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그의 성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임경업은 평소 나쁜 행동을 하는 양반을 혼내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의로운 사내지만, 성급한 성격 때문에 판단을 잘못하는 약점을 지닌 인물이라는 점도 그가 신앙의 대상으로 좌정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보인다. 이밖에 억울하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신원(伸冤)이 된 점도 그가 신으로 모셔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임경업이 신으로 모셔질 수 있었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인물신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요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공통적인 요인은 그가 지역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지역민들의 삶에 공을 세웠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그가 지역민들에게 조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신으로 좌정될 수 있었다. 이는 임경업 신앙이 지역의 생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다.

15) 지금까지 임경업 설화는 『구비문학대계』 등 다양한 연구물에서 100여 개에 달하는 설화가 소개되었다. 이들 설화들을 보면 임경업의 출생담과 관련된 이야기와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 김자점에게 죽음을 당한다는 이야기, 조기잡이와 관련된 이야기 등이다. 이들 설화에서 임경업은 담이 크고 용력이 센 인물이지만 천기를 볼 수 없는 능력으로 인해 그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III. 연구 현황

임경업과 관련된 연구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둔 소설과 傳, 설화,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게 될 신앙 분야 등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 중 소설과 전의 경우에는 임경업 관련 소설과 전의 형성에 관한 내용과 임경업이라는 인물의 성격인 영웅성·비극성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설화 분야의 연구는 설화와 다른 분야(소설, 전)들과의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복규 등의 연구자들은 설화와 소설, 그리고 임경업 전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성향의 연구물들은 이들 분야가 상호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피고, 임경업과 관련 설화가 다양한 형태로 오늘날까지 전해오는 이유를 이들 연관성을 통해 밝히고 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 보이는 임경업 설화를 대상으로 이들 설화에서 보이는 특징을 임경업이라는 인물과 관련지어 언급한 연구도 있다. 특히 천기를 보지 못한 임경업 설화의 경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이한 임경업의 삶과 결부지어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신앙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자는 설성경·주강현·홍태한·이은봉·서종원 등¹⁶⁾이다. 이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물들은 서해안 지역에 임경업 신앙이 집중적으로 보이는 점을 특징으로 보고, 임경업 신앙이 이 지역에서 형성된 이유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경업 신앙의 전승 양상과 실태, 그리고 특징 등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임경업 신앙 연구는 여타 인물신과 비교를 통해 진행되기도 하였다. 실

존 인물신의 특징과 형성배경을 밝히기 위해 신으로 모셔진 여러 인물과의 비교 연구가 그것이다. 김효경·강남주·홍태한 등¹⁷⁾에 이루어진 연구물이 대표적인데, 특히 김효경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형태의 인물신, 그리고 이들 인물신의 지역 분포와 제의 형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녀는 인물 신앙의 제의 형태를 堂祭형, 당굿형, 별신굿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인물신과 지역과 관련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여러 인물신의 형성과정과 신앙적 특징 등을 통해 여러 인물신이 상호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¹⁸⁾

16) 설성경(1987), 「서해안 어업민속에 나타난 임장군신」, 『기전문화연구』 16,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주강현(1991), 「서해안 조기잡이와 어업생산풍습」, 『역사민속학』 1, 한국역사민속학회.

홍태한(1990), 「서해안 임장군 풍어전설의 의미」, 『高風論集』 7, 경희대학교 대학원.

이은봉(2007), 「서해안 임경업 신앙의 형성과 과정 연구」, 『인천역사』 4호-인천 민속의 재발견-,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줄 고(2006), 「서해안 지역의 임경업 신앙 연구」, 『東아시아古代學』 14, 東아시아古代學會.

줄 고(2007), 「서해안 지역 인물신 임경업의 신격화 배경」, 『민속학연구』 20, 국립민속박물관.

줄 고(2009), 「서해안 임경업 신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줄 고(2011), 「충청남도 해안 지역의 조기어업과 임경업 신앙」, 『충청남도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3 생업과 마을조직』, 민속원.

줄 고(2012), 「조기 어로민속을 통해 본 서해안의 문화적 특징」, 『민속연구』 2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7) 김효경(1998), 「한국 마을신앙의 人物神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남주(1994), 「실존인물의 신격화 과정-日本 岐阜縣 治水神社 大祭의 경우-」, 『비교민속학』 11, 비교민속학회.

홍태한(1994), 「說話와 民間信仰에서의 實存 人物의 神格化 過程 -南怡 將軍과 林慶業 장군의 경우-」, 『한국민속학보』 3, 한국민속학회.

18) 임경업 신앙 연구는 서해안 지역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산동성의 민속과 비교 연구되기도 하였다. 물론 직접적인 상호 비교가 아니라, 중국 산동성의 어로 민속을 이야기하면서 임경업 신앙을 개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정연학(2006), 「경기만과 중국 산동성의 어로민속」, 『東아시아古代學』 14, 東아시아古代學會).

본장에서는 여러 연구 중에서 임경업 신앙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설성경·홍태한·주강현·서종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임경업 신앙의 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논쟁점과 함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피력하고자 한다.

설성경¹⁹⁾은 평안도 철산바다에서 전라남도 흑산도까지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는 풍어제에 임장군신이 등장한다는 점을 동·남해안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현상으로 보았다. 그의 연구는 임장군 신앙의 발생 근거를 비롯하여, 그 신앙의 형태를 밝혀봄으로써 서해안의 조기잡이 관련 된 임장군신이 어업 민속에 구현된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임장군신은 서해안의 조기 어업의 확장과 함께 그 신력을 넓혀갔다가 최근에는 조기 어장과 민간신앙의 쇠퇴로 인해 위력을 잃고 전통 구전물로 자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공동체인 꽃창고과 개인제인 배연신굿에서 임장군신이 모셔지는 사례를 통해 임경업 신앙이 이들 제의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설성경의 연구에서는 또한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는 ‘배치기(어업요)’와 임장군 신과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홍태한은 오늘날 서해안 일대에 보이는 임경업 설화의 내용을 조기잡이와 관련된 풍어 설화로 간주하고, 이 일대에서 임경업 신앙이 보이는 이유를 임경업을 모시면 풍어를 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물론 홍태한의 이러한 접근은 설성경이 먼저 시도하였다. 하지만 서해안 여러 지

19) 설성경(1987), 앞의 논문.

역에서 보이는 임경업 설화를 구체적으로 풍어 설화로 규정지었다는 점에서 설성경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홍태한의 연구에서 주목할 내용은 오늘날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보이는 풍어제의 신과 임경업 신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²⁰⁾

주강현은 임경업 신앙을 서해안의 대표적인 어업인 조기 어업과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임경업 신앙이 오늘날 서해안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그는 조기잡이 어업 생산기술이 발달(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에게 임경업 신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서해안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임경업 신앙의 전승 지역을 현지조사와 문헌자료를 통해 제시하면서 임경업 신앙과 설화의 전승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다는 중요한 사실도 밝혔다.

이들 연구 이외에, 이은봉은 임경업과 관련된 여러 설화를 통해 사대부들의 반청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임경업 장군의 영웅화와 민간의 조기잡이 설화가 만들어낸 임경업 장군의 신성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상층민이 선양하는 영웅화된 존명배청의 충신 임경업이 적신 김자점에 게 억울하게 죽은 원령(怨靈)도 아닌 하층민을 위한 인물로 형상되다가 연평도 조기잡이 어업과 관련한 풍어신으로 모셔진 것으로 보았다.

한편 임경업 신앙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주목할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임경업 신을 모시고 진행되는 연평도 지역의 풍어제(굿)이다. 『웅진군향리지』(웅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 1996)와 이경업의 「연평도의 무속 전통

20) 홍태한(2006), 「서해안 풍어굿의 양상과 특징」, 『도서문화』 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과 풍어굿」(『서해와 연평도』, 민속원, 2012)이 대표적인 연구이다. 「연평도의 무속 전통과 풍어굿」은 2008년 3월 11일 연평도에서 열렸던 풍어굿을 조사·정리한 것이다. 당시 이 굿은 연평도의 선주회 주최로 열렸으며, 김금화 만신이 주관하였다.²¹⁾

『웅진군향리지』 제2편 松林面 ‘연평도와 임경업 장군’에는 당산을 비롯해 임경업 장군의 억울한 죽음, 당섬의 임경업 장군 사당, 임경업 사당에 얹힌 설화, 임장군의 墨子, 연평도 풍어제(유래, 배영신굿) 등이 소개되어 있다. 이 자료에 언급된 연평도 풍어제의 유래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경업 장군이 명나라를 통해 청나라를 치고자 중국 산둥성(山東省)을 향하던 중 연평도를 통과하게 될 무렵 선원들의 식수와 부식을 얻기 위하여 연평도에 정박하였다. 임경업 장군은 선원을 시켜 가시나무(뽕로수 나무)를 꺾어 연평도 앞바다에 있는 당섬과 모이도 사이 갯골(안목)에 꽂게 하였는데, 간조 시에 가보니 가시마다 조기가 하얗게 걸렸다고 한다. 이때부터 연평도에서 처음으로 조기잡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연평도 주민들은 임경업 장군의 선견지명을 숭앙하여 사당을 짓고 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봄마다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조기잡이 출어 전에 임장군 사당에서 당맞이굿을 하고 뱃고사를 지낸 다음에야 안심하고 조기 만선의 꿈을 안고 바다를 향하게 된다. 풍어제는 무녀가 사제하는 당굿과 뱃굿이 있고, 마을 사람과 선원들이 각각 주관하는 당제와 뱃고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²²⁾

21) 이경엽(2012), 「연평도의 무속 전통과 풍어굿」, 『서해와 연평도』, 민속원, pp.80-81.

이렇듯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앙분야에서의 연구는 임경업 신앙이 서해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연유를 설화와 임경업이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서해안의 조기잡이 어업을 통해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강현의 연구는 임경업 신앙이 서해안 지역에서 널리 형성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을 조기 어업이라는 생산력을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임경업 신앙의 연구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진행됐음에도 연평도 지역[임경업 신앙의 발생지]에서 어떤 연유로 임경업 신앙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임경업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 문제는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임경업 신앙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임경업이 연평도 지역민들에게 조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는 점만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필자는 평소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어떤 연유로 임경업 신앙이 연평도 지역에서 형성되었으며, 오늘날 서해안 여러 지역에서 임경업 신앙이 전승되고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였다. 주강현 등의 선행 연구자들 역시 조기라는 어종을 통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쉽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연평도라는 지역과 당시의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대한 해답

22) 웅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1996), 『웅진군향리지』, pp.236.

을 제시할 수 있었다.²³⁾

이렇듯 활발한 연구 덕분에 임경업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이다. 임경업 신앙의 전승 지역이 파악되었으며, 임경업 신앙이 어떤 연유로 연평도 지역에서 형성되어 여러 지역으로 퍼져갔는지가 밝혀졌다는 점은 추후 연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논쟁점과 한계(미비점)를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주요 논쟁점과 연구 과정에서 미비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주요 논쟁점

- ① 내륙과 해안 지역에서 임경업 신앙이 전승되는 이유와 관련성 문제
(어떤 연유로 임경업 신앙이 내륙과 해안 지역 모두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두 지역 간의 차이점 분석)
- ② 북한을 비롯한 임경업 신앙의 전승 지역과 신앙권 문제(임경업 신앙이 전승되는 지역, 임경업 신앙권의 하한선 문제) 등

23) 필자는 「서해안 임경업 신앙 연구」(박사논문)를 위해 서해안 여러 지역에 전해져 오는 임경업 신앙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임경업 신앙이 연평도 지역에서 선택과 수용, 그리고 형성되는 과정을 당시의 시대 및 지역적 배경 등을 고려·정리하였다. 아울러 연평도의 지역신으로 모셔졌던 임경업 신이 훗날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전파 주체와 배경 등으로 나눠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임경업 신앙과 여타의 초기 어로 민속을 통해 본 서해안 지역의 문화적 특징에 대해 피력하였다.

■ 미비점

- ① 북한 지역과 인천 등 임경업 신앙과 관련된 지역의 현장 조사
- ② 과거 연평도 지역에서 행해졌던 풍어제의 실상 파악
- ③ 해안의 경우, 임경업 신앙이 서해안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는 이유
- ④ 강화도를 비롯한 인천 지역에서 전승되는 임경업 신앙의 실상 파악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변화 양상 파악 · 분석) 등

IV. 연구 과제

앞서 연구 현황에서 언급한 내용(논쟁점, 미비점)을 토대로 여기에서는 몇 가지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확대를 위해 평소 필자가 고민했던 내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첫째, 임경업 신앙권(하한선) 파악 및 정리

연평도 지역이 임경업 신앙의 메카라는 점과 함께, 임경업 신앙이 서해안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 한다. 다만 서해안 지역에서 임경업 신앙권의 범위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임경업 신앙이 전승되었던 북한 지역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어 단정할 수 없지만, 남한 지역에 해당하는 임경업 신앙의 하한선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임경업 신앙의 하한선 논의 핵심은 임경업 신앙이 어느 지역까지 전승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주장현과 필자

는 충청도 지역까지를 임경업 신앙의 하한선으로 보지만, 일부 연구자(송화섭 등)들은 위도면 치도리(전라북도 부안군) 당집에 모셔진 신을 임경업으로 보고 있다.

임경업 신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중요하다. 임경업 신앙의 분포권과 조기 어업의 어업권 문제가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의 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풍선(風船)을 이용하여 조기를 잡던 시절의 교류 양상도 자세히 들여다 볼 수도 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서해안 지역의 조기 어업의 실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무척 중요하다.²⁴⁾ 앞으로 체계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지역의 실상 파악

임경업 신앙 연구에서 추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임경업 신앙의 실상을 파악하는 일이다. 특히 북한 지역에서 행해지던 임경업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한국 전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여러 지역에서 임경업 신앙이 활발하게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전승 지역 간의 교류 양상은 물론 임경업 신앙의 전파 과정과 분포권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북한 지역을 조사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북한의 서해안 지역에

24) 필자의 박사논문 VI장 임경업 신앙을 통해 본 서해안의 문화적 특징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이점은 비단 임경업 신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해안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이주해 온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광역시를 조사함으로써 북한 지역에서 전승되었던 임경업 신앙의 개략적인 모습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독 서해안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전승되는 이유(동·남해안과의 비교)

임경업 신앙이 왜 하필 서해안 지역에서만 전승되고 있는지를 다른 해안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밝혀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조기 어업과 관련하여 임경업 신앙의 형성 문제를 다루고 있긴 하나,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이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또 다른 이유로 임경업 신앙이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신앙과의 비교 작업도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남해안 지역에서는 최영과 이순신이 신으로 모셔져 있어, 이들 신과의 비교를 통해 임경업 신앙이 지닌 다양한 특징 등을 파악하는 연구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내륙에서 전승되는 임경업 신앙과의 비교

임경업 신앙 연구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왜 내륙과 해안 지역 모두에서 임경업 신앙이 전승되느냐는 문제이다. 실제로 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서해안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으며, 내륙의 경우에는 강원도 원주와 충청북도 충주 등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임경업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주요 맥락은 왜 임경업 신앙이 두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서해안 일대에 보이는 임경업 신앙의 의의와 특징 등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두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임경업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상호 비교하여 두 지역의 특징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동아시아 해양 신앙과의 비교 연구

임경업 신앙의 연구 확대를 위해 동아시아 일대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는 해양 신앙과의 비교 작업도 필요하다. 중국은 물론 마카오와 홍콩, 대만 등지에서 보이는 마조(媽祖)신앙과의 비교 작업이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마조는 중국에서 해신으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마조 신앙은 푸지엔성(福建省)의 메이조우(湄州)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중국의 랴오닝성(遼寧省)에서부터 동남연해를 거쳐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다수의 마조를 모시는 사묘가 있다. 동아시아 일대에서 마조묘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해운업의 발달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송대(宋代) 이후 해운업의 발달에 따라 해상(海商)들은 활동 범위가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로 확대되었고, 마조신앙은 이들을 따라 널리 전파된 것이다. 해상들의 장거리 운항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모시고 있는 마조 신앙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다. 어민 또는 상인은 출항에 앞서 반드시 마조묘를 찾아 그에게 제사를 지냈다.²⁵⁾

마조 신앙은 임경업 신앙과 닮은 점이 많다. 실존 인물신이라는 점, 신앙의 주체 역시 어부들이나 상인들이라는 점 등이 그러하다. 특정 지역에서 모셔지던 것이 후대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점도 유사하다. 그런데

마조 신앙은 일본과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는 전승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가 없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추후 동아시아라는 큰 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임경업 신앙은 동아시아 해양문화, 특히 해양신앙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일대에 퍼진 관음신앙을 비롯해 바다와 관련된 신앙을 총망라하여, 임경업 신앙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 등을 분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이밖에 인천광역시와 임경업 신앙이 상호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지금은 신앙이 약화된 충청남도 홍성의 결성면 성호마을, 인천광역시에 속한 덕적도·소무의도·대청도·소청도 지역의 현지 조사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 작업에서는 공동체 신앙과 관련된 임경업 신앙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임경업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경우 [뱃고사 등]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 임경업 신앙이 활발하게 전승되었던 강화도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연평도 지역에서 임경업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연평도 지역에서 임경업 신앙의 기능과 역할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양

25) 김인희(2001), 「한·중 해신신앙의 성격과 전파-마조신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3, 한국민속학회, pp.67-68.

상을 당시의 시대 및 지역적 상황 등을 고려·분석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생업 환경에 따른 임경업 신앙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과정도 주목해야 한다.

V. 결 론

지금까지 서해안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임경업 신앙의 개요와 연구 현황을 살피고, 추후 연구 과제에 대해 피력하였다. 금번 연구에서는 근래 까지 발표된 연구물까지 아울렀으며, 인천이라는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몇 가지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연구 과제 중에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임경업 신앙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연구 과제만을 골라 언급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경업 신앙은 나름대로 연구가 활발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임경업 신앙이 서해안에서만 보이고, 서해안 지역의 전반적인 특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서해안 지역을 연구하는 데 있어 임경업 신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간 임경업이라는 인물은 비교적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신앙 분야 연구도 다른 문화 현상에 비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앞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연구 과제가 해결되

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임경업 신앙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 작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인천광역시를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임경업 신앙은 중요한 코드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체계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평소 임경업 신앙에 관심이 많은 필자 역시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를 계기로 여러 연구자들이 인천광역시의 임경업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길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남주(1994), 「실존인물의 신격화 과정-日本 岐阜縣 治水神社 大祭의 경우-」, 『비교민속학』 11, 비교민속학회.
- 고동환(1998), 『조선후기 서울상업사발달연구』, 지식산업사.
- 김효경(1998), 「한국 마을신앙의 人物神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희(2001), 「한·중해신신앙의 성격과 전파-마조신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33, 한국민속학회.
- 서종원(2006), 「서해안 지역의 임경업 신앙 연구」, 『東아시아古代學』 14, 東아시아古代學會.
- 서종원(2007), 「서해안 지역 인물신 임경업의 신격화 배경」, 『민속학연구』 20, 국립민속박물관.
- 서종원(2009), 「서해안 임경업 신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종원(2011), 「충청남도 해안 지역의 조기어업과 임경업 신앙」, 『충청남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나3 생업과 마을조직』, 민속원.
- 서종원(2012), 「조기 어로민속을 통해 본 서해안의 문화적 특징」, 『민속연구』 25,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 설성경(1987), 「서해안 어업민속에 나타난 임장군신」, 『기전문화연구』 16,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 송석하(1936), 「조선팔도풍속개관-황해도」, 『신동아』 6권 5호.
- 웅진군향리지편찬위원회(1996), 『웅진군향리지』.
- 윤명철(1998), 「서해안 일대의 해양역사적 환경에 대한 검토」, 『부안 죽막동 수성당 제사 유적 연구』, 전주박물관.

- 이경엽(2012), 「연평도의 무속 전통과 풍어굿」, 『서해와 연평도』, 민속원.
- 이민웅(1995), 「18세기 강화도 수비체제의 강화」, 『한국사론』 34,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이윤석(1985), 『임경업전연구』, 정음사.
- 이은봉(2007), 「서해안 임경업 신앙의 형성화 과정 연구」, 『인천역사4호-인천 민속의 재발견-』,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 정연학(2006), 「경기만과 중국 산둥성의 어로민속」, 『동아시아고대학』 14, 東아시아古代學會.
- 주강현(1991), 「서해안 조기잡이와 어업생산풍습」, 『역사민속학』 1, 한국역사민속학회.
- 한상복·전경수(1982), 『한국의 낙도민속지』, 집문당.
- 홍태한(1990), 「서해안 임장군 풍어전설의 의미」, 『高鳳論集』 7, 경희대학교 대학원.
- 홍태한(1994), 「說話와 民間信仰에서의 實存 人物의 神格化 過程 -南怡 將軍과 林慶業 장군의 경우-」, 『한국민속학보』 3, 한국민속학회.
- 홍태한(2006), 「서해안 풍어굿의 양상과 특징」, 『도서문화』 28,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국 문 초 록

서해안 지역 임경업 신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본 연구는 서해안 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임경업 신앙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임경업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임경업 신앙과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 성과는 크게 임경업 신앙에 주안점을 두었느냐에 따라 직접적인 연구와 간접적인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연구 덕분에 임경업 신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체계적인 정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평소 생각했던 다섯 가지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임경업 신앙의 전승지역과 분포권, 북한 지역의 실상 파악, 임경업 신앙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 작업, 여타 해안 지역과의 비교 작업, 그리고 연구 확대를 위해 동아시아 일대의 해양신앙과의 비교 작업이 그것이다.

추후 활발한 연구를 통해 이들 연구 과제가 해결된다면 서해안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서해안, 임경업 신앙, 조기 어업, 연구 성과, 연구 과제

Abstract

Research Status and Tasks of Lim Kyung-up Deity in the West Coast Area

Seo Jong-won

(Research Professor, Oriental Studies Center of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xisting research performance related to Lim Kyung-up deity that has been transmitted in the west coast area and base on this, suggest a future research assignment. Prior to a full-scale discussion, it also examined the summary of Lim Kyung-up deity.

Studies on Lim Kyung-up deity have been relatively active. The existing research performanc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direct or indirect research whether it focused on Lim Kyung-up deity. Thanks to the researches, a systematic arrangement about Lim Kyung-up deity has been made in its own way.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tasks to be solved.

This study provided five research tasks that have been thought. It is to examine the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areas of Lim Kyung-up deity and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 in North Korea and make a systematic investigation to take a look at the actual condition of Lim Kyung-up deity and compare it to other coastal regions and compare the ocean deities in the whole areas of East Asia to expand the research.

If the research tasks are solved by the future active researches, it is expected that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west coast area will be disclosed more clearly.

Key Words : West Coast, Lim Kyung-up Deity, Croaker Fishing, Research Performance, Research Task

일반논문

인천시 육지지역 상록활엽수 식재현황 및 도입가능성

• 권 전 오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효과 :

인천 기업(2000~2010)의 패널자료 분석 • 유 광 민 · 한 성 호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생산성 추세변화 비교분석

• 한 하 늘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인천시 육지지역 상록활엽수 식재현황 및 도입가능성

권 전 오*

- I. 서론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지
 - 2. 조사분석방법
- III. 결과 및 고찰
 - 1. 주요 도시 간 기온 비교
 - 2. 인천광역시 도심부 상록활엽수 분포현황
 - 3. 고찰

권
전
오

I. 서론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에 속하는 관계로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다양한 자연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무들이 잎을 달지 않는 기간이 겨울을 포함해 상당히 길어 이때의

*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도시경관이 취약해진다. 이러한 취약한 경관을 보완하기 위해 상록수를 심지만 인천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수종은 침엽수가 대부분이고 상록활엽수는 사철나무 등에 국한되어 왔다. 상록침엽수종인 소나무는 나무 가격이 비싸고 재선충 등의 피해로 갈수록 활용하기 어려워지고 있고 해송의 경우 해안지역에 적합하나 식재량이 많아짐에 따라 경관이 단순해지는 어려움이 있다.

식생대 분류에 있어 우리나라는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식생대와 기온과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온량지수와 한랭지수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삼림 중 난대림과 온대림의 경계는 한랭지수 -10 선과 대체로 일치하며, 냉대림과 온대림의 경계는 온량지수 55인 선과 대체로 일치한다(난대: CI>-10, 온대남부: WI>100, 온대중부: WI=85~100). 그리고 우리나라 삼림대의 구분은 온량지수보다 한랭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임경빈, 1985). 따라서 남한 지역은 남쪽부터 난대림, 온대남부림, 온대중부림으로 구분되며 상록활엽수는 대부분 난대림에 분포하고 있다.

난대림의 수평적 대역은 북위 35° 이남, 해안에서는 35° 30' 이남이고, 연평균 14℃ 이상 되는 곳으로서 주로 남해안을 따라 좁은 지방이며 제주도의 저지 및 그 밖의 섬들이 이에 속한다. 동해안에서는 북위 36°, 서해안에서는 약 35°가 한계가 된다(임경빈, 1985). 온대남부림은 북위 38°(강릉이남)까지, 중부내륙은 36°까지, 서해안에서는 37°(충남 중부)까지의 구역이며, 온대중부림은 동해안에서 북위 40°(함남 중부)까지, 중부내륙은 38°까지, 서해안에서는 39°까지의 구역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서해안 지역은 해양의 영향으로 인하여 내륙지방보다 연교차가 적고 하계에는 내륙지방의 기온이 해안지방보다 1~2℃ 높지만 동계에는 반대로 해안지방이 내륙지방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난다(한영호와 정정실, 1991). 즉, 인천은 온대중부림에 속하며,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온대남부에 근접한 위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윤종학 등(2011)은 한반도 난온대 상록활엽수의 분포적지로서 서해안의 백령도에서 남부내륙의 전주, 하동, 대구, 동부해안 지역의 속초를 잇는 선을 경계로 분포적지로 예측하였다.

상록활엽식물의 분포는 기온, 연교차, 강수량 등의 기후요소와 관련이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강수량보다는 기온과 관련이 깊으며, 특히 최한월 기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구경아 등, 2001; 윤종학 등, 2011). 한반도의 난대성 상록활엽수는 1월 평균기온 -1°C , 1월 평균최저기온 -6°C , 연평균기온 12°C 에서 자란다. 한편, 한반도 및 부속도서의 상록활엽수의 뚜렷한 북방한계선이 약 60여년전 Uyeki(1941)에 의해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산악지역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와 무인도서를 포함한 3,000여개의 섬이 부속도서로 있는 전 지역을 당시에 조사하여 상록활엽수의 북방한계선이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윤종학 등, 2011)

인천도서지역의 식물상 연구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나 인천 도서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상록활엽식물은 모두 각 종의 한반도 분포 북한계지로서 종별 분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천 연안의 유·무인도서 174개소를 대상으로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44%에 해당하는 77개 도서에서 상록활엽식물의 분포를 확인하였으며 도서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종은 사철나무, 줄사철나무, 보리밥나무, 동백나무, 도깨비쇠고비이었다(이정현과 최병희, 2008). 그리고 조경수목으로 활용가능성이 있는 것을 판단되는 상록활엽수종으로는 하광대도와 하고도에 분포하는 참식나무, 납섬에서 조사된 붉가시나무, 하광대도, 하고도, 대청도에 분포하는 후박나무,

백아도 등 28개 섬에서 조사된 동백나무, 45개 섬에서 조사된 상록 덩굴성인 보리밥나무 등이 있었다.

한편 송홍선(2003)은 인천 앞바다가 남쪽 흑산도방향에서 올라오는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겨울에는 내륙보다 기온이 다소 온난하며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청도의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사탄리의 동백나무와 해안가의 사철나무, 보리밥나무, 후박나무 등의 분포를 보고하였고 덕적군도에 속한 무인도인 각홀도에서 참식나무 군락(2,500m²)이 분포하며 개체수는 60~100개체, 수고 8m 정도의 순군락이라고 하였다(송홍선, 2009).

인위적인 영향을 적게 받는 섬지역에 다양한 수종의 상록활엽수가 분포함에 따라 인천 도심부에도 이들 상록활엽수종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인천시보다 남쪽에 위치한 대구시의 경우 겨울철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키가 크게 자라는 상록활엽교목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 예로 동대구로 내 폭 20m의 중앙분리대 녹지에는 가시나무, 줄가시나무 등을 낙엽수와 혼식하고 그 하부에는 은목서, 광나무, 피라칸사, 사철나무 등을 심어 겨울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게 하였다(권전오와 오강임, 2004).

최근 들어 인천시에서는 상록활엽수인 사철나무, 피라칸사(반상록), 광나무를 활용하는 예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화의 확대로 도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고 밀집된 건물로 인해 겨울철 온도가 예전보다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난대림의 모든 상록활엽수가 인천지역에서 생육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부 내한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종을 선발한다면 이를 조정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인천 육지지역 내에서 인위적 식재에 의해 생육하고 있는 상록활엽수의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구도심부에 속하는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등 5개 구를 도보 답사하여 19개소에서 상록활엽수의 생육을 확인하였다. 주요 생육지는 오래된 학교, 아파트, 공공기관이었으며 비교적 최근에 식재된 장소인 신설공장, 가로녹지대 등도 포함되었다.



〈그림 1〉 인천광역시 육지지역 상록활엽수 분포 연구대상지 위치도 (번호: 표 1 참조)

〈표 1〉 인천광역시 육지지역 상록활엽수 분포 연구대상지 현황

구 분	대 상 지	개 소 수
공공기관	①중구 시사편찬위 ②남구 주안도서관 ③부평구 농업기술센터 ④연수구 송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학교	⑤동구 영화관광경영고 ⑥동구 동산고 ⑦남구 인천기계고 ⑧남구 인하공업전문대 ⑨남동구 상인천여중 남동구 ⑩한국문화콘텐츠 고교	6
주거지역	⑪남동구 만수주공아파트 ⑫부평구 현대아파트 ⑬부평구 동아아파트 ⑭남동구 구월서초교 옆 주택	4
기타	⑮연수구 대암공원 ⑯남구 방축길 ⑰중구 중봉로 ⑱부평공단 내 개인 공장 ⑲중구 차이나타운 내 상가	5

2. 조사분석 방법

1) 기온분석

온도는 위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주시로부터 인천시까지 주요 대도시를 대상으로 2011년 1월 월평균기온 비교와 함께 대구시, 대전시, 천안시, 인천시의 15년간의 1월 평균기온을 비교하였다. 한랭지수와 온량지수는 온대남부와 온대중부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으면서 인천시와 위도상 남쪽인 대전시와 비교하였다.

인천 육지지역과 동백나무 천연기념물이 있는 대청도 등이 속한 도서지역의 온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인천 기상대(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와 백령도 기상대의 연평균기온, 1월 평균기온, 1월 최저 평균기온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생육현황조사

현황조사는 상록수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겨울철인 2006년 2월과 3월에 1차로 실시하였으며 보완조사는 2009년 12월과 2013년 4월에 추가하였고 현장조사에서는 개별 수목의 생육상태를 함께 파악하였다.

개별수목을 대상으로 수종명, 크기, 생육상태, 향, 건물과의 관계를 기록하였는데, 수목크기는 수고, 수관폭을 기록하였다.

수목의 성상(교목, 아교목, 관목) 구분은 문헌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본 고에서는 상록활엽수의 조경적 활용에 주안점을 두었음으로 김용식 등(2000)이 저술한 조경수목핸드북의 분류를 따랐다.

수목의 생육상태는 현장에 생육하는 상록활엽수의 개략적인 생육상황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정아고사는 중심가지가 죽었는지 여부를 기록하는 것이며, 잎의 변색은 동절기에 동해에 의해 잎이 손상된 정도를 심-중-소로 표현하였다. 수형은 크게 양호와 불량으로 표기하였고 향과 건물과의 관계는 햇빛을 얼마만큼 받는 조건인지를 판단하기 위함인 동시에 사람들의 주동선과의 관계를 짐작하기 위해 표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주요 도시 간 기온 비교

1) 위도에 따른 주요 도시의 1월 평균기온 비교

(1) 2011년 위도별 1월 평균기온 비교

남쪽지방에서 북쪽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연평균기온과 1월 평균기온이 낮아지지만 그 정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남단인 제주시에서 서울시와 인천시(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 기상대)까지 주요 도시에 대한 1월 평균기온을 비교해 보았다. 특히 식물생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장 추운 1월 평균기온을 비교해 본 결과 제주-광주-전주-대전-천안이 지속적인 하강추세를 보이다가 수도권에 속하는 수원, 서울에서 큰 변화가 없다가 인천에서 반대로 평균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2〉 주요 도시의 1월 평균기온 비교(2011년)

(단위:℃)

월 \ 도시	백령도	인천	서울	수원	천안	대전	전주	광주	제주
1월	-4.3	-5.6	-7.2	-7.2	-6.9	-5.7	-4.9	-3.4	2.3

* 기상청(<http://www.kma.go.kr>)

(2) 주요 4개 도시의 15년간 1월 평균기온 비교

위도에 따른 주요 도시간의 1월 평균기온 비교에 이어 인천과 위도의 차이는 있지만 1월 평균기온이 유사하거나 높은 대전시와 천안시, 그리고 대구시의 1월 평균기온을 15년간 비교하였다. 인천과 대전시의 1월 평균기온

은 인천이 대체적으로 낮았으나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의 경우는 오히려 더 높아 따뜻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1월 평균기온에 있어 인천시는 온대남부와 온대중부 식생대의 경계부에 위치한 대전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상록활엽수를 도시녹화에 활용하고 있는 대구시에 비해서는 지난 15년간 평균 2.6℃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상록활엽수의 적극적인 도입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표 3〉 주요 4개 도시의 15년간 1월 평균기온 비교(1998~2012년)

(단위:℃)

도시 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인천	-1.2	-0.7	-1.6	-3.8	0.8	-2.1	-1.2	-1.1	-0.3	0.9	-1.5	-1.3	-3.2	-5.6	-1.9	-1.6
천안	-2.3	-1.6	-2.3	-4.2	0.0	-4.2	-3.1	-2.0	-0.9	-1.9	-2.1	-3.0	-3.9	-6.9	-2.7	-2.7
대전	-0.9	-0.3	-1.2	-2.2	1.7	-1.7	-0.5	-1.5	0.3	0.4	-0.9	-1.7	-2.7	-5.7	-1.5	-1.2
대구	1.1	1.6	1.1	0.7	2.3	-0.4	0.8	0.7	2.6	3.3	1.5	0.7	0.0	-2.5	0.8	1.0

2) 인천기상대와 백령도 기온 비교

인천 섬지역에 다수의 상록활엽수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육지근처보다는 바다쪽으로 더 많은 생육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백령도 남단에 위치한 대청도에는 동백나무 천연기념물 군락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해류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인천기상대(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내)와 백령도 기상대의 기온(2001년~2012년)을 연평균기온, 1월평균기온, 년최저기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지난 12년간 연평균기온 비교결과 앞에서의 제시된 추정과 달리 전체적

으로 인천기상대(내륙지역)가 12.5℃, 백령도가 11.0℃로 1.5℃가 높았다. 수목생육에 영향이 큰 1월 평균기온 비교결과 12년 중 4년만이 인천 내륙지역이 낮았다. 12년간의 평균치 비교는 인천기상대(내륙지역)이 0.1℃가 높았다(표 4).

마지막으로 일년 중 가장 추운 날의 온도를 비교하였다. 년 평균기온과 1월 평균기온과는 달리 백령도에 비하여 인천내륙이 낮은 기온을 보였고 평균적으로는 1.1℃가 낮았으며, 2001년~2012년 사이 12년 중 10년이 낮았다.

〈표 4〉 인천과 백령도 1월 평균기온 비교(2001~2012)

(단위:℃)

년 \ 도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균
인천(a)	-3.8	0.8	-2.1	-1.2	-1.1	-0.3	0.9	-1.5	-1.3	-3.2	-5.6	-1.9	-1.7
백령도(b)	-3.5	-0.3	-2.8	-1.9	-1.6	-1.2	0.6	-1.5	-0.4	-2.7	-4.4	-2.4	-1.8
(a-b)	-0.3	1.1	0.7	0.7	0.5	0.9	0.3	0.0	-0.9	-0.5	-1.2	0.5	0.1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연평균기온과 1월 평균기온 비교결과 바다 쪽에 비해 내륙 쪽의 기온이 높게 나타났으나 년 최저기온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섬 지역에 자생하는 상록활엽수 중 일부 수종은 내륙 도심에서 생육 가능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다만 1월 평균기온에서 내륙지역이 높고 년 최저기온에서는 내륙지역이 낮은 것으로 볼 때, 바다지역에 비해 내륙지역이 온도 변화가 심할 것이고 이것이 식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면 내륙지역에 상록활엽수를 식재할 경우 급격한 온도변화를 차단하는 동절기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한랭지수 비교

인천과 위도상 남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온대남부 내지는 온대중부와 경계선에 위치한 대전시와 한랭지수를 비교하였다. 식생대 구분에서 난대림은 한랭지수가 -10보다 커야하므로 30년간 평균 한랭지수가 -16.8과 -14.9를 보인 인천과 대전시는 난대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지난 30년간 한랭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 30년간 평균은 -16.8이었으나 각각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20.9에서 -15.0, -14.5로 한랭지수가 최근 10년으로 올수록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대전시와의 한랭지수 차이도 -2.3에서 -1.8, -1.4로 그 간격이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인천과 대전 30년간 한랭지수 비교

(단위:℃)

도시 \ 년도	1979~1988	1989~1999	1999~2008	30년간 평균
인천(a)	-20.9	-15.0	-14.5	-16.8
대전(b)	-18.6	-13.2	-13.1	-14.9
(a-b)	-2.3	-1.8	-1.4	-1.8

4) 온량지수 비교

온대 남부 식생대일 경우는 온량지수가 100보다 커야 한다. 분석결과 30년간 평균 온량지수를 보면 인천 101.3, 대전 106.9로 100보다 컸다.

지난 30년간 온량지수는 인천의 경우 평균이 101.3이었으나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97.0에서 100.6, 106.2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7년 이후로는 온대남부식생대의 기준값인 100이하로 내려간 해가 없었다. 즉, 인천시는 온

대남부식생대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전시와의 온량지수차이도 -6.1에서 -3.5로 간격이 줄었다.

〈표 6〉 인천과 대전 30년간 온량지수 비교

(단위:℃)

도시 \ 년도	1979~1988	1989~1999	1999~2008	30년간 평균
인천(a)	97.0	100.6	106.2	101.3
대전(b)	103.0	107.9	109.8	106.9
(a-b)	-6.1	-7.3	-3.5	-5.6

2. 인천광역시 도심부 상록활엽수 분포현황

1) 상록활엽수 조사 결과 종합

교목은 참식나무 1종 1주가 조사되었고 아교목은 동백나무와 광나무를 비롯하여 10종 118주 이상이 조사되었다. 아교목 중 동백나무가 96주로 가장 많았으며 광나무의 경우는 개별 수목도 다수 관찰되었으나 도로변 가로수 아래 녹지대에 군식된 곳도 2개소나 있었다. 관목은 5종 36주가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식나무가 29주로 가장 많았으며 주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오죽의 경우 약 10주이상이 군식되어 있었다.

2) 교목성상 수목

(1) 참식나무

부평구 현대아파트 내에서 생육중인 참식나무는 2006년 2월과 2009년 12월에 동일 수목을 대상으로 2회 조사되었으며 조사 주수는 1주이었다. 그

러나 2013년 4월에 확인 답사하였을 때는 잘리고 그루터기와 거기서 자란 어린 맹아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참식나무가 잘린 이유는 아파트 1층의 환기 문제와 상록활엽수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수고는 4.0m, 수관폭은 1.4m×1.4m이었던 것이 3년 후인 2009년에는 수고 6.0m, 수관폭 3.0m×3.3m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가지의 고사나 잎 변색이 없으며 수형 또한 양호하였다. 생육지 위치는 아파트 동과 동 사이며, 건물의 북쪽에 위치해 햇빛을 많이 받는 조건은 아니었다.

〈표 7〉 인천광역시 도심부 상록활엽수 주요 교목 현황

종명	규격(m)		생장상태			향	위치 (빌딩기준)	위치	조사 시점
	수고	수관폭	정아고사 여부	잎변색	수형				
Neolitsea sericea (참식나무)	4.0	1.4 × 1.4	없음	없음	양호	북향	앞면	부평구 아파트 내	2006. 2
	6.0	3.0 × 3.2	없음	없음	양호	북향	앞면	부평구 아파트 내	2009. 12



〈그림 2〉 부평구 내 참식나무 현황

3) 아교목성상 수목

(1) 동백나무

가장 많은 개체수를 보이는 종이었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주안도서관에 생육 중인 동백나무는 수고 3.1~3.2m로 큰 편에 속하면서도 생육이 양호하였고 향은 햇빛을 잘 받는 남향이었고 건축물의 측면에 위치하였다. 그러나 일부 조사지에서는 정아가 고사하거나 잎의 변색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관찰되었고 수세가 불량해지면서 병해충에 감염된 사례도 다수 관찰되었다. 2013년 4월 답사 결과 주안도서관에 생육중인 동백나무는 일부 잎변색이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꽃봉오리가 추위에 고사하여 꽃을 정상적으로 감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남동구에 위치한 한국문화콘텐츠고교 본관 건물 남쪽에 군식된 12주의 동백나무의 경우에도 주안도서관 동백나무와 같이 꽃봉오리 대부분이 동사하여 몇 개의 꽃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동백나무는 인천지역에서 가장 잘 적응한 수종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 있으나 토양기반이나 바람막이 등의 환경이 취약할 경우 생육이 불량해지고 정상적인 개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광나무

광나무는 쥐뿔나무와 같은 속(Ligustrum)으로 현장 조사결과 남구 주안산업단지와 중구 증봉로 일대 가로녹지대에 열식되어 있었으며 양호한 생육을 보이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혼재하고 있었다. 도심 내에서 관찰된 개별 수목들은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하였으며 주택가에서 관찰된 광나무의 경우에는 수고 2m, 수관폭이 1.2m 이상이었다.

광나무의 경우 내한성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동절기 방한 내지 방풍 조치와 함께 토양의 배수나 토성관리 등의 기반이 양호하게 조성된다면 활용성이 큰 수종으로 판단되었다.

(3) 기타 아교목성 수목

호랑가시나무는 동암역 인근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관내에 있었으며 수고 5m, 수관폭 3.3m로 양호한 상태이었으나 충해가 관찰되었고 구골나무 2주는 차이나타운 내 옛 공화춘 건물 앞 화단에서 관찰되었는데 수고 및 수관폭이 4.0m이었고 양호한 생육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구골나무의 경우 2013년 확인 답사결과 노후된 건물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훼손되었다.

후피향나무는 매립지인 송도국제도시 내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건물 남쪽에 4주가 열식되어 있었는데 수고는 2.0m~2.5m 범위로 잎변색이 다소 있었다. 후피향나무와 함께 식재된 아왜나무 2주는 수고 1.8m, 수관폭 1.2m 내외로 생육이 비교적 양호하였다. 그러나 2013년 4월 답사결과 고사하였는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굴거리나무는 부평산단 내 4주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수고 2.2m~2.7m, 수관폭 1.1m~1.7m로 생육상태는 보통이었고 다소의 잎변색과 고사지가 관찰되었다. 2013년 확인 답사결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돈나무는 수고 1m, 수관폭 0.8m로 아파트 단지 내 양지바른 곳에서 양호한 생육을 보이고 있었으며 인천 섬지역에서 많이 관찰되었던 보리밥나무(수고 2.4m, 수관폭 2.2m) 역시 아파트 단지 내 양지바른 곳에서 양호한 생육을 보였다.

까마귀쪽나무는 수고 0.7m의 어린 묘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실내 화분에서 키우든 것을 노지에 옮긴 것으로 보였으며 생육상태는 불량하였다.

〈표 8〉 인천광역시 도심부 상록활엽수 주요 아교목 현황

종명	규격(m)		생장상태			향	위치 (빌딩기준)	위치	조사 시점
	수고	수관폭	정아고사 여부	잎변색	수형				
동백나무	3.1	1.6 × 1.6	없음	없음	양호	남향	옆면	주안도서관	2006. 2
	3.2	2.0 × 2.0	없음	없음	양호	남향	옆면	주안도서관	2006. 2
	1.5	1.5 × 1.5	있음	있음	불량	남향	옆면	주안도서관	2006. 2
	2.5	4.0 × 4.0	없음	없음	양호	남향	앞면	농업기술센터	2009. 12
광나무	2.0	1.2 × 0.6	없음	소	양호	북향	측면	구월서초교 옆 연립주택	2006.2
까마귀쪽나무	0.7	0.4 × 0.4	없음	심	불량	남향	전면	남동구 만수 주공아파트	2006.2
돈나무	1.0	0.8 × 0.8	없음	중간	양호	남향	전면	남동구 만수 주공아파트	2006.2
후피향나무	2.3	2.0 × 2.0	있음	중간	양호	남향	전면	송도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2009.12
호랑가시나무	5.0	3.3 × 3.0	없음	소	양호	북향	후면	농업기술센터	2009.12
	0.8	0.3 × 0.3	있음	중간	불량	북향	전면	부평구 동아 아파트	2006.3
보리밥나무	2.4	2.2 × 2.2	없음	소	양호	남향	전면	남동구 만수 주공아파트	2006.2
굴거리나무	2.4	1.1 × 1.4	있음	중간	양호	남향	전면	한국 MDI	2009.12
	2.2	1.7 × 1.3	없음	소	양호	남향	전면	한국 MDI	2009.12

종명	규격(m)		생장상태			향	위치 (빌딩기준)	위치	조사 시점
	수고	수관폭	정아고사 여부	잎변색	수형				
구골나무	4.0	4.0×3.0	없음	소	양호	남향	전면	중구 차이나타운	2009.12
	4.0	4.0×3.7	없음	소	양호	남향	전면	중구 차이나타운	2009.12
아왜나무	1.8	1.2×1.0	없음	소	양호	남향	전면	송도 생산기술 연구소	2009.12
	1.8	1.2×1.2	있음	중	양호	남향	전면	송도 생산기술 연구소	2009.12



〈그림 3〉 인천관내 상록 아교목(동백나무:좌상, 광나무:우상, 돈나무:좌하, 후피향나무:우하)

4) 관목성상 수목

(1) 금식나무

금식나무는 현장조사결과 동백나무와 광나무 다음으로 많은 주수인 29주가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수고 1.5m, 수관폭 1.2m 내외가 많았으며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이었으나 부분적으로 동해를 입어 잎변색이 나타나는 개체가 많았다.

(2) 기타 관목성상 수목

팔손이는 3주가 조사되었고 1주는 수고 0.5m, 나머지 2주는 수고 1.5m~2.0m, 수고 1.8m로 잎변색 없이 양호한 생육을 보였고 치자나무 2주는 수고 0.5m인 개체는 잎변색이 있었으나 수고 1.0m인 개체는 생육이 양호하였다. 그리고 다정큼나무는 수고가 0.4m의 어린 개체로 잎변색과 함께 수형이 불량하였다. 즉, 실내화분에서 노지로 이식된 초기에는 불량한 생육을 보이다가 점차 안정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다.

오죽은 연수구에 위치한 대암공원과 부평구 동아아파트에서 조사되었는데 아파트단지 내 오죽은 수고 3.5m, 수관폭 1.5m 내외이었으며, 대암공원 내 오죽은 수고 5.0m 내외로 10주 이상이 균식된 상태로 양 지역 모두 양호한 생육을 보였다.

〈표 9〉 인천광역시 도심부 상록활엽수 주요 관목 현황

종명	규격(m)		생장상태			향	위치 (빌딩기준)	위치	조사 시점
	수고	수관폭	정아고사 여부	잎 변색	수형				
금식나무	1.2	1.2×1.2	없음	소	양호	남향	후면	부평구 동아아파트	2006.3
	1.2	1.2×1.0	없음	소	양호	북향	전면	부평구 동아아파트	2006.3
다정큼나무	0.4	0.3×0.6	없음	중	불량	동향	전면	남동구 만수주공아파트	2006.2
팔손이	0.5	0.5×0.4	있음	심	불량	남향	전면	상인천여중	2006.2
	2.0	0.4×0.8	없음	소	양호	북향	전면	부평구 현대아파트	2006.2
차자나무	1.0	1.0×1.0	없음	소	양호	남향	전면	상인천여중	2006.2
오죽	5.0	1.5×1.5	없음	소	양호	남향	후면	대암공원	2009.12



〈그림 4〉 인천관내 상록관목(왼쪽: 금식나무, 오른쪽: 오죽)

3. 고찰

1) 인천의 식생대

기존 문헌을 검토한 결과 대청도를 비롯한 인천 연안 섬지역에 다수의 상록활엽수가 조사되고 있었으나 식생대 상으로는 온대중부 식생대로 분류되어 왔다. 위도에 따른 주요 도시간 1월 평균기온, 15년간 1월 평균기온을 분석한 결과 위도가 낮은 대전 지역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한랭지수 비교결과 인천은 난대림지역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10년단위 분석결과 한랭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대전시와의 한랭지수 차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온량지수 비교결과 인천지역이 온대남부 식생대임을 알 수 있었고 지난 30년간 온량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이후에는 온대남부의 온량지수 기준선인 100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인천 내륙인 인천 기상대와 백령도의 연평균기온, 1월 평균기온, 연최저기온을 비교한 결과 내륙지역이 연평균기온과 1월 평균기온에서 높았고 연최저기온에서 1.1℃ 만이 낮아 섬지역에 상록활엽수가 생육한다면 내륙에도 생육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도입 가능성 검토

문헌고찰과 함께 도심 내 분포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식재가능 종을 제안하였다. 우선 제안종의 경우는 인천섬지역에서 생육이 확인되었으면서 내륙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양호한 생육을 보인 종과 내륙에서 이미 활용중이거나 다수의 나무가 양호한 생육을 보이는 종으로 선정하였고, 차선 제안종은 다수의 섬에서 조사된 수종과 현장조사에서 양호한 생육을 보이거나 조사

주수가 적거나, 보통 정도의 생육을 보이는 종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우선 도입을 제안한 종은 참식나무, 보리밥나무, 동백나무, 광나무, 금식나무, 오죽 등 총 6종이었으며 차선종은 후박나무 등 6종을 제안하였다.

우선 제안종을 중심으로 양호한 토양, 광, 방풍 등의 종합적 환경을 갖추어 식재 실험을 실시한 후 단계별로 인천 기후에 적응(순화)시켜 특별히 의미 있는 공간부터 제한적으로 이들 상록활엽수종을 활용할 것은 제안하고자 한다.

〈표 10〉 인천광역시의 상록활엽수 도입 가능성 제안

수목 성상	1순위 도입종명	2순위 도입종명	종수
교목	<i>Neolitsea sericea</i> (참식나무)	<i>Machilus thunbergii</i> (후박나무)	2
아교목	<i>Elaeagnus macrophylla</i> (보리밥나무), <i>Camellia japonica</i> (동백나무), <i>Ligustrum japonicum</i> (광나무)	<i>Osmanthus heterophylla</i> (구 골나무), <i>Ilex cornuta</i> (호랑가시나무), <i>Pittosporum tobira</i> (돈나무),	6
관목	<i>Aucuba japonica</i> for. <i>variegata</i> (금식나무), <i>Phyllostachys nigra</i> (오죽)	<i>Fatsia japonica</i> (팔손이), <i>Gardenia jasminoides</i> for. <i>grandiflora</i> (치자나무)	4
총 종수	6	6	12

투고(접수)일 : 2013. 06. 24 심사(수정)일 : 2013. 07. 17 게재확정일 : 2013. 07. 22

참 고 문 헌

- 구경아, 공우석, 김종규(2001), 「한반도 상록활엽수의 지리적 분포와 기후요소」, 『대한지리학회지』 36, pp.247-257.
- 권전오, 오강임(2004), 「간선도로의 중앙가로녹지대 확충을 통한 녹지축 조성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용식, 송근준, 안영희, 오구균, 이경재, 이유미(2000), 「조경수목핸드북」, 광일문화사.
- 송홍선(2003), 「대청도의 식물상과 지리적 분포에 관한 연구」, 『풀꽃나무』 19, pp.12-32.
- 송홍선(2009), 「덕적군도에 늘푸른 참식나무 집단분포」, 『풀꽃나무』 46, p.35.
- 임경빈(1985), 『조림학원론』, 향문사.
- 윤종학, 김중현, 오경희, 이병윤(2011), 「한반도 난온대 상록활엽수의 분포 변화와 기후조건」, 『한국환경생태학회』 25(1), pp.47-56.
- 이정현, 최병희(2008), 「서해중부 인천 도서지역의 상록활엽식물 분포」, 『식물분류학회지』 38(3), pp.315-332.
- 한영호, 정정실(1991), 「해수온도가 우리나라 서해안 지방의 기온 및 습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상학회지』 27, pp.197-203.
- 기상청, <http://www.kma.go.kr>.

국문초록

인천시 육지지역 상록활엽수 식재현황 및 도입가능성

동절기에 삭막해지는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천 도심부에 식재 가능한 상록활엽수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에 따르면 인천시 경계 내에 속한 174개소의 유·무인도 중 77개소에 상록활엽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인천시 육지지역 내에는 몇몇 종의 상록활엽수가 식재되어 왔다. 이에 인천시 육지지역 내 상록활엽수 생육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인천시의 기온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랭지수는 최근 30년 사이에 10년 단위로 -20.9, -15.0, -14.5로 상승하고 있었으며 위도가 낮은 대전시와의 차이도 줄고 있었다. 온량지수는 온대남부 식생대 기준치 100보다 큰 101.3이었고 1997년 이후 100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따라서 인천시 육지지역의 식생대는 온대 중부식생대에서 온대 남부식생대로 변화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섬지역과 육지지역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백령도 기상대와 인천기상대의 기온비교결과 연평균기온에서 1.5℃, 1월평균기온에서 약 0.1℃ 인천기상대가 높았으나 년 최저기온에서는 1.1℃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도심부에도 상록활엽수의 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천시 육지지역 중 구도심에 식재된 상록활엽수를 조사한 결과 교목성 수종은 참식나무 1종 1주, 아교목성 수종은 10종 118주 이상이 조사되었다.

관목의 경우에는 5종 36주가 조사되었다. 이들 수목의 생육상태는 일부 종은 불량한 것도 있었으나 일부 종은 양호한 편이었다. 따라서 인천 도서지역에 자생하고 있거나 인천시 육지지역에 식재되어 생육 중인 종을 중심으로 향후 조경수로 활용 가능한 우선종으로 교목은 참식나무, 아교목은 보리밥나무, 동백나무, 팥나무, 관목은 금식나무, 오죽 등 6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식생대, 참식나무, 동백나무, 조경수, 한랭지수

Abstract

The Study on Status and Using the Evergreen Broad-Leaved Trees, Incheon Region, Korea

Kwon, Jeon-O

Incheon city has four seasons so most trees don't have leaves in winter season. I want to improve the city landscape in winter season to use evergreen broad-leaved trees. It was been reported that there have been many evergreen broad-leaved trees in 77 of 174 islands, Incheon Korea. It was insisted that Incheon's temperature zone was the middle of temperate zone which the evergreen broad-leaved trees could not be used in, but this report revealed that Incheon's temperature has been changing, so it became under the temperate zone which meant the possibility of the evergreen broad-leaved trees livings. The coldness index has increased from -20.9 to -14.5 for 30 years. And the temperature of main land of Incheon was similar to the islands' temperature. In the main land of Incheon, we could find the evergreen broad-leaved trees which were 1 species(*Neolitsea sericea*) of 1 tall tree, 10 species(*Camellia japonica*, etc) of 118 small trees, 5 species of 36 shrubs. Some were bad condition, but the others were no bad, so 6 species were suggested for landscape trees.

Key words: climate zones, *Neolitsea sericea*, *Camellia japonica*, landscape trees, coldness index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효과: 인천 기업(2000~2010)의 패널자료 분석

유 광 민*·한 성 호**

- I. 서론
- II. 기존연구 검토
- III. 데이터 및 분석 모형
- IV. 분석 결과
- V. 요약 및 결론

유광민 · 한성호

I. 서론

경쟁환경이 더욱 격화되고, 저성장 시대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에게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동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인 성장창출은 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일정 규모에 이르면 성장 정체가 발생하는 현상에

* 제1저자, 인천테크노파크 연구원

** 교신저자, 인천테크노파크 전략기획실장

대해 그 이유를 알아내고 해결하는 것이 최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견기업이 성장정체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야, 일자리가 증가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구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이후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중견기업 지원정책이 전정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성장동력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¹⁾

인천의 경우에도 지난 몇 년간 기업들의 성장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여지는 가운데 지역내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 지자체 관련 정책 추진부서나 기관들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을 찾고 있다. 인천에서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어느 지역보다도 향후 성장이나 경제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고성장기업의 출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견기업 혹은 고성장기업은 지역의 전반적 경제 성장과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1) 최근의 한국의 기업성장에 관한 집약적 연구로는 최성호, 박정수, 한준, 성상현, 박기백, 구정환(2012) 참조. 이 연구는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에 비추어 기업성장 패러다임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기업성장에 대한 통계분석, 기업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기업서베이 및 대표적 고성장기업 사례조사를 통해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산업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10여년 간의 인천 기업 패널자료를 통해 지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로 칭함) 투자가 성장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주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R&D 투자는 몇 년의 시차를 두고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의 R&D 투자는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고성장기업일수록 R&D 투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설정한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R&D 투자의 기업성장 효과를 다룬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관련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모델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분석모델에 의거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지역내 R&D 추진 정책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II. 기존연구 검토

기업 단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명시적으로 연결시킨 최초의 작업으로 Mansfield(1962)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Mansfield는 성공적인 혁신이 기업의 성장률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해 두드러진 혁신을 달성한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보다 평균 2배 정도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정도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영

향 받으며, 혁신은 소규모 기업의 성장률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 이후 혁신 혹은 R&D 투자의 기업성장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실증적 결과는 확정적이지 않고 혁신유형, 분석 대상이나 분석 기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동안 외국에서는 기업성장과 R&D 투자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던 데 비해 국내에서는 거의 이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며, 특히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최근 외국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비교적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항과 그 분석방법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많은 연구에서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대해 당해 연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음의 효과를 보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야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코드는 2~3년의 시차를 두고 R&D 투자가 기업 성장에 영향을 준다고 하고 있고(Coad et. al., 2006), 포오크는 R&D 투자가 2년 지난 후에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Falk et. al., 2012). 이재성·안준기(2008)는 3,300개 국내 중소기업 패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R&D 투자가 4년 후의 총자산이익률 증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오는 일본과 중국의 기술집약 12개 분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에서 R&D 투자가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중국의 경우에는 2년, 일본의 경우에는 1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일본이 보다 유리한 혁신환경을 갖고 있고, 정책은 R&D 투자 활성화에 적합한 혁신환경 조성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ao et. al., 2013).

둘째,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기업규모에 따라 다른 영

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결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침케는 유럽 혁신스코어보드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5~250명), 대기업(250~1,000명), 거대기업(1,000명 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R&D 투자의 기업성장에 대한 영향을 발견할 수 없었던 데 비해 대기업일수록 그 영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Schimke et. al., 2011). 데미렐은 미국의 248개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양의 영향을 끼치나 그 효과는 주로 대기업에서 나타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R&D의 지속적인 투자가 있을 때만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Demirel et.al., 2012). 이에 비해 양 등은 대만의 전자산업 3,4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소기업(1~99명)에서 R&D 집약도가 고용성장률에 가장 두드러진 효과를 보인다고 하고 있다(Yang et. al., 2005).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최근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인천 기업패널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R&D 집약도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그 효과의 시차는 어느 정도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기업 성장률 분위별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최근의 연구 내용 중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사항은 고성장 기업일수록 R&D 투자의 기업성장에 대한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드는는 컴퓨터, 수송, 광학 장비 등 소위 복합기술부문(complex technology sectors)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률 분위 50% 이상 기업들에서 R&D 집약도와 기업성장률 관계의 유의미성을 지적하고 있다(Coad et. al., 2006). 콜롬벨리는 프랑스 기업혁신조사 CIS 패널기업

1,074개를 대상으로 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에서 성장률이 높은 기업일수록 혁신으로 인한 기업성장 효과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성장 단계별 지원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을 하고 있다(Colombelli et. al., 2011). 세가라는 유럽의 CIS 패널기업 5,017개를 대상으로 한 고성장기업과 저성장기업의 R&D 투자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성장률 고분위 기업들에게는 내부 R&D의 유의미성이, 중분위 기업들에게는 외부 R&D의 유의미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egarra et. al., 2011). 세라케이로는 포르투갈의 2,27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기업성장과 성장요인의 관계가 비선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장기업의 경우에 R&D 집약도와 기업성장이 양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 비해 매출액이 감소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것이 음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고 있다(Serrasqueiro et. al., 2011). 포크는 오스트리아의 R&D 기금에 지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년간의 고용 성장률에 대한 전년도 R&D 집약도 영향의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중간 이상 성장률의 기업에서 그 영향력이 유의미함을 보이면서 성장유형별 타겟정책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Falk et. al., 2012). 가르찌는 유럽 18개 국가의 혁신스코어보드 통계를 이용하여 고,중,저 기술 및 지식집약 기업으로 구분한 연구에서 성장률 분위 50% 이상 기업들에서 R&D 집약도와 기업성장의 유의미성을 실증하고 있다(Garcí et.al., 2012).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R&D 투자와 기업성장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R&D 투자와 기업성장으로 연계되는 시사, R&D 투자와 기업 규모간 관계, R&D 투자와 고성장 기업간의 관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주요 연구 주제들과 연구방법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1>와 같다.

〈표 1〉 R&D 투자와 기업성장에 관한 기존 연구

연구주제	기존 연구	모형
R&D 투자와 기업성장의 시차	코드 외(Coad A., Rao R., 2006)	고정효과 모형, system GMM, Quantile
	포크 외(Falk M., 2012)	기간별 OLS, 분위별 회귀분석
	라오(Rao J., Yu Y. and Cao Y., 2013)	OLS
	이재성 · 안준기(2008)	OLS, 고정효과모델
R&D 투자와 기업규모	침케 외(Schimke A., Brenner T., 2011)	OLS
	데미렐 (Demirel P., Mazzucato M., 2012)	Arellano-Bond panel GMM
	양 외(Yang C.H., Huang C. H., 2005)	고정효과, 임의효과, GMM(내생성)
R&D 투자와 고성장 기업	코드(Coad A., Rao R., 2006)	고정효과 모형, system GMM, Quantile
	콜롬벨리(Colombelli A., Haned N. and Le Bas C., 2011)	OLS, 고정효과모델, 확률효과모델, quantile, GMM-SYS 등
	세가라(Segarra A., Teruel M., 2011)	OLS, Quantile
	세라케이로 (NunesP.M, Serrasqueiro Z. and Leitão J., 2012)	GMM
	포크(Falk M., 2012)	기간별 OLS, 분위별 회귀분석
	가르피(García V., Romero-MerinoM.E., 2012)	OLS, GMM, Quantile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인천 기업들에게 적용시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해보고자 한다. 첫째, 인천 기업들의 R&D 투자 성과는 몇 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가? 둘째, 인천 기업들의 R&D 투자 영향이 기업규모에 따라 상이한가? 셋째, 인천 고성장기업과 저성장기업간 R&D 투자의 효과는 상이한가? 이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Ⅲ. 데이터와 분석 모형

1. 데이터와 기초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한 자료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성장실태를 파악하고자 구축한 패널자료로서 2010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30억 원 이상 1조 원 미만인 기업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다. 매출액, R&D 투자 등의 지표가 조사 가능한 기업 434개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사기업의 지역구별, 산업별 분포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조사기업의 지역구별 분포

지역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계양구	합계
기업수	35	5	36	53	93	165	27	20	434
비중	8.1%	1.2%	8.3%	12.2%	21.4%	38.0%	6.2%	4.6%	100.0%

<표 3> 조사기업의 산업별 분포

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기업수	1	290	143	434
비중	0.23%	66.8%	33.0%	100.0%

시간적 범위는 2000년부터 2010년이며, 이 중 제조업은 290개, 제조업 이외의 업종은 144개이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들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4>과 같다. 단, 모형 추정시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변수 중 매출액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2005년 실질가격으로 변환하였다.

<표 4> 기술통계량

단위: %, 년, 명, 억원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관측빈도	합계
기업 성장률	overall	1,259	42,146	-1,000	1957,097	N=4171
	between	1,259	2,245	-0.003	6,257	n=434
	within	1,259	42,092	-5,999	1952,098	T-bar=9.61
R&D 집약도	overall	0,023	0,287	0,000	18,000	N=4590
	between	0,023	0,015	0,011	0,065	n=434
	within	0,023	0,287	-0,042	17,958	T-bar=10.58
기업 연령	overall	18,539	10,857	1,000	75,000	N=4652
	between	18,539	2,819	14,665	23,030	n=434
	within	18,539	10,522	-0,491	70,509	T-bar=10.72
고용 인력	overall	2,194	0,991	1,000	4,000	N=4545
	between	2,194	0,907	2,161	2,219	n=434
	within	2,194	0,401	0,976	4,033	T-bar=10.47
매출액	overall	482	710	-	9450	N=4599
	between	482	609	351	657	n=434
	within	482	367	-175	9,270	T-bar=10.69

2. 변수와 패널 분석 모형

R&D 투자의 기업성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종속변수로서 기업 성장률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기업성장의 지표로서 기업의 시장 가치, 고용, 매출액, 영업이익, 부가가치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지만 매출액이 가장 적절한 지표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고²⁾, 자료의 안정성 면에서 본고에서는 매출액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기업성장률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로 표시하였다.

설명변수인 R&D 투자의 지표로서는 매출액 대비 R&D 지출액을 나타내는 R&D 집약도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혁신유형(제품, 공정혁신 등), 특허, 내부 R&D, 외부 R&D 등 다양한 지표가 활용되고 있으나 활용 자료의 제약으로 본고에서는 R&D 집약도를 적용하였다. 또한 R&D 적용 시차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전까지의 R&D 지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R&D 집약도 이외의 설명변수로서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의 특성과 성과를 나타내는 기업연령, 전년도 매출액, 제조업 여부를 사용하였다. 이외에 기업성장률의 자기 상관을 파악하기 위한 전년도 기업성장률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업원 규모별 더미변수를 도입하였다. 또한 연도에 따른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각 연도별 더미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식으로 다음과 같은 패널 분석 모델을 설정하였다.

2) García et. al(2012)

$$GROW_{i,t} = \beta_0 + \beta_1 GROW_{i,t-1} + \beta_2 RDI_{i,t-k} + \beta_3 CP_{i,t(-1)} + \beta_4 EmpD_{j,t} + \beta_5 YearD_i + v_i + d_t + e_{i,t}$$

($k = 0, 1, 2, 3, j = 1, 2, 3, 4$)

GROW: 기업성장률

R&DI: R&D 집약도

CP: 기업연령, 전년도매출액, 제조업더미

EmpD: 기업규모 더미(49명 이하,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YearD: 연도별 더미(2001, 2002 2010, 각 년도)

ν_i : 비관찰 개별효과

d_i : 비관찰 시간효과

$e_{i,t}$: 오차항

위의 변수 중 개체에 따라 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회귀계수의 편의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전년도 매출액은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활용하는 자료가 패널데이터이므로 추정의 편의가 발생될 우려가 높은 Pooled OLS 모형은 제외하고 고정효과모텔(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텔(Random Effect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Kennedy(2003)에 따르면 고정효과모텔과 확률효과모텔은 대표적인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으로 고정효과모텔은 집단내(within) 변이를 통한 추정을 시행하고, 확률효과모텔은 집단간(between) 변이를 통해 추정한다고 한다. 고정효과모텔은 각각의 횡단자료에 더미를 취하여 Pooled OLS의 편의를 해결하지만 자유도 손실 및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독립변수의 추정에는 제한적이다(Kennedy, 2003). 반면 확률효과모텔에 비해 선택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건하

다고 한다(Kennedy, 2003; 김태은, 2008).

고정효과모델과 확률효과모델 중 어떠한 모델이 더 타당한 지는 개별효과(ν)와 독립변수(X)의 상관관계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별효과와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있다면 고정효과모델을 선택하고, 상관관계가 없다면 확률효과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Wooldrige, 2008). 고정효과모델과 확률효과모델의 선택을 위한 방법으로 보통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이 권고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다.

기업규모에 따른 R&D 투자효과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49명 이하,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의 네 가지 규모로 나누고, 각 집단별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성장률 분위에 따른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전통적 회귀분석이 종속변수의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을 중심으로 하는 선형모형을 사용하는 데 비해, 분위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조건부 분위(conditional quantile)를 중심으로 하는 선형모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종속변수의 분위별로 종속변수의 결정변수가 다를 가능성이 있을 때, 전체 집단의 평균적 결정요인을 추정하는 일반적 회귀분석으로는 분위별 결정요인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전체 표본을 해당 기업 성장률 분위에 따라 분리한 후 동일한 추정식을 통상최소자승법으로 추정하는 방법은 분석대상을 그 분위에 해당되는 관찰치만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의로 표본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심각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분위회귀분석은 임의로 표본의 관찰치를 분할하지 않고, 표본의 모든 관찰치를 활용하며, 각 분위에 따른 가중치를 다르게 주는

방법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표본집단의 분위간 특성이 상이할 때 분위회귀 분석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성장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분위별로 각 독립변수들이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IV. 분석 결과

조사된 자료를 고정효과모델에 의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총 표본수는 3,268개, 그룹 수는 434개, R^2 는 within=0.4911, between=0.0329, overall=0.3525이다. 또한 모델의 패널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오차항의 분산이 전체 오차항의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rho의 값은 0.3620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단위효과 '0'을 가정한 F-검증 결과, F값이 1.69로 나타나 Pooled OLS 모형에 비해 고정효과모델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확률효과모델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통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표본수는 3,268개, 그룹 수는 434개, R^2 는 within=0.4611, between=0.3035, overall=0.4480이며, rho 값은 0이다. 또한 확률효과모델을 추정하기 위한 Breusch & Pagan의 LM (Lagrangian Multiplier) 검정을 시행한 결과, 확률효과모델 또한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정효과모델과 확률효과모델 중 더 타당성이 높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하여 하우스만 검정을 수행한 결과, 통계량은 1409.17이고, p값이 0.05보다 작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이 확률효과모형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정효과모델에 따라 해석하기로 한다.

기업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우선 R&D 집약도 변수에서는 당해 연도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Coad et. al.)와 일치하였다. R&D 투자의 시차를 살펴보면, R&D 투자는 1, 2년의 시간이 지난 후 유의미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t-1년도의 R&D 집약도가 기업성장률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차이는 전체 434개 기업 중 종사자수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392개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단시일 내에 사업화나 상품화가 가능한 R&D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³⁾ t-2년도의 R&D 집약도는 t-1년도의 R&D 집약도에 비해 영향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하나 여전히 기업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t-3년도의 R&D 집약도는 기업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당해 연도의 R&D 집약도가 기업성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R&D 투자가 개별 기업에게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즉,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시차는 약 1년에서 2년 사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균 과제 수행기간은 1.9년이다(김용희, 2012)

4) 예를 들면, 2000년에 제조업종이었던 기업은 2010년까지 제조업종을 유지하므로 연도간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5〉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Coef.	Std.Err.	Coef.	Std.Err.
R&D집약도					
t		-63.84	22.48	-104.75**	15.08
t-1		85.40**	2.17	93.22**	2.13
t-2		10.34**	2.70	-2.300	2.589
t-3		-2.61	2.06	-1.18	1.96
기업성장률					
t-1		-0.14**	0.018	0.005	0.172
매출액					
t-1		-20.96**	1.35	-9.23**	0.81
기업연령		1.19**	0.36	-0.027	0.063
제조업더미		0(omitted)	-	-4.63**	1.512
기업규모더미_1_t-1		7.89**	3.05	2.46	1.82
기업규모더미_2_t-1		14.75**	3.91	7.61**	1.89
기업규모더미_3_t-1		19.87**	6.18	18.63**	3.152
R ²	within	0.4911	0.4619	0.4619	
R ²	between	0.0329	0.2804	0.2804	
R ²	overall	0.3525	0.4455	0.4455	
rho		0.3620		0	
모형검증		F=1.690**		Wald chi2(11)=2636.88**	
Number of obs = 3,268					

*p<0.05, **p<0.01

한편, 기업 특성 변수에 있어서는 t-1년도 기업성장률, t-1년도 매출액, 기업연령이 유의미한 변수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집단내(within) 추정을 통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하므로 분석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 제조업 더미에서는 추정계수가 산출되지 않았다.⁴⁾ 제조업더미에 한해서 확률효과모형에 의하여 기업성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회귀계수가 -4.63로 제조업이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비해서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규모에 따른 R&D 투자의 영향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규모별로 회귀계수를 추정하였다. 기업규모는 총 4개의 집단으로 나누기 때문에 4개의 모델이 추정되었다. 고정효과모델과 확률효과모델로 모두 추정한 결과, 고정효과모델보다는 확률효과모델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에 따른 R&D 집약도의 기업성장에 대한 영향력은 확률효과모델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4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t-1년도의 R&D 집약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t-2년도, t-3년도의 R&D 집약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99인 규모에서 R&D 집약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t-1년도의 R&D 집약도의 계수를 비교하면, 1~49인에서 R&D 집약도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50~99인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100인 이상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표 6〉 기업규모별 R&D 집약도가 기업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비교

	1~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Coef.	표준편차	Coef.	표준편차	Coef.	표준편차	Coef.	표준편차
R&D집약도								
t	-134.87**	57.59	-2.95**	0.71	-5.37**	0.41	-1.47	0.588
t-1	95.12**	13.76	1.09	0.64	8.76**	0.52	2.42**	0.83
t-2	-1.28	6.23	0.51	0.50	-3.43**	0.467	0.08	0.86
t-3	-19.02	38.73	-0.07	0.43	0.01	0.03	-0.94	0.63
기업성장률								
t-1	0.01	0.03	-0.09**	0.03	0.09	0.03	0.08	0.06
매출액								
t-1	-40.48**	4.55	-0.83**	0.06	-0.29**	0.05	-0.38**	0.07
기업연령	-0.203	0.236	0.00	0.00	-0.00	0.00	-0.00	0.00
제조업더미	-6.549	4.26	-0.13	0.07	-0.07*	0.04	-0.10	0.07

*p(0.05, **p(0.01

규모에 따른 R&D 투자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R&D 집약도와 기업 규모간 상호작용변수를 생성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보았다. 기업규모 더미 변수 3개와 시차별 3개 연도(t-1, t-2, t-3)의 R&D 집약도 변수 3개를 사용하여 기본모형에 9개의 상호작용변수를 추가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 결과, 기업규모와 R&D 집약도간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검증된 것은 t-1년 & 100~299인인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상호작용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다른 기업규모에 따른 R&D 투자의 차별적 효과는 통계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장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간 R&D 투자의 기업성장에 대한 영향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성장률을 기준으로 총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1분위 집단과 4분위 집단의 기술통계량은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기업성장률 분위별 기술통계량

단위: 억원, %, 년

분위	빈도	매출액	성장률	R&D 집약도	기업연령
1분위	1,045	375	-0.275	0.043	19.804
2분위	1,041	512	-0.004	0.016	21.449
3분위	1,045	572	0.143	0.015	20.254
4분위	1,040	531	5.185	0.017	15.161
전체평균		498	1.259	0.023	19.169

다음으로 기업성장률이 낮은 기업과 높은 기업간 R&D 집약도가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성장률을 기준으로 한 분위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8〉에서 보듯이 1분위 집단의 기업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년도 매출액과 기업규모이고, 기업규모가 큰 집단일수록 기업 성장에 보다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R&D 집약도는 기업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4분위 집단은 t-1년도의 R&D 집약도가 기업 성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R&D 집약도가 1% 증가할 때, 기업 성장률은 98.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특성변수에서는 t-1년도 매출액, 기업연령, 제조업더미가 기업 성장에 미미한 수준의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기업규모는 유의미한 영향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t-1년도의 높은 R&D 투자가 기업 성장에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1분위 집단과 4분위 집단을 비교하면, 1분위 집단은 기업규모의 증대에

의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4분위 집단은 높은 R&D 투자에 의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률이 낮은 기업은 R&D 투자보다는 종사자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성장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역으로 말하면 종사자수 증가에 의한 노동집약적 성장은 고성장을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고성장기업의 성장에는 종사자수 증가에 따른 기업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고성장기업은 높은 R&D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성장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R&D 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저성장기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있어서도 R&D가 핵심요소임을 시사한다.

〈표 8〉분위회귀분석 결과

	1분위		4분위	
	Coef.	표준편차	Coef.	표준편차
R&D집약도				
t	-3.867	11.655	-58.687*	23.849
t-1	3.375	19.191	98.955*	47.065
t-2	0.092	11.335	-1.330	12.655
t-3	0.047	1.045	0.015	2.579
기업성장률				
t-1	0.001	0.020	0.015	0.094
매출액				
t-1	-0.086*	0.024	-0.174**	0.045
기업연령	-0.001	0.000	-0.005**	0.001
제조업더미	0.029	0.017	-0.116**	0.034
기업규모더미_1_t-1	0.060**	0.016	-0.009	0.031
기업규모더미_2_t-1	0.070**	0.022	-0.011	0.044
기업규모더미_3_t-1	0.125**	0.032	0.065	0.059

*p(0.05), **p(0.01)

V. 요약 및 결론

기업성장에 있어 R&D가 핵심적 요소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강조되어 왔 으면서도 정작 R&D가 기업성장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본 연구는 기업의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R&D 투자는 기업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R&D 투자로 인한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2년의 시차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년 후의 성장에 대비한 R&D 투자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9인,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 전년도 R&D 투자가 기업의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성장기업일수록 R&D 투자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추진해야 될 R&D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내 기업성장을 위해서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사실 인천 지역의 기업들은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R&D에 투자할 자금도, 장비도,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R&D에 투자하지 않게 될 경우, 성장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며, 이는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돌아오게 된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R&D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는 최소 1년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기업 R&D 지원사업의 지원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즉, 단기간의 R&D 지원에 의한 조급한 성과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R&D 지원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하다. 소규모 기업에서는 작은 규모의 R&D 투자 증대로도 큰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규모 이상에 이르면 R&D 투자에 의한 성장 효과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중견기업의 성장 정체 또한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반면, R&D 투자 효율성은 오히려 저하되는 것에도 기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기업에게는 R&D 투자 자체를 증대시킬 수 있는 R&D 지원프로그램이, 중견기업에게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R&D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저성장기업과 고성장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수단이 병행되어야 한다. 앞의 분석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고성장기업은 종사자수의 증대에 따른 기업성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저성장기업은 R&D 투자에 의하여 성장이 유도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수 확대에 의하여 성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 R&D 정책에 있어 두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지역의 고성장 기업 육성은 R&D 투자에 의해서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천에 다수 집적되어 있는 영세 저성장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인력지원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성장기업에게는 R&D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저성장기업에게는 R&D 지원과 더불어 인력확보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의 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업의 R&D 투자와 성장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제 기업의 성장에는 CEO의 역량, 경기변동, 산업 특성 등도 중

요한 변수이나, 이들 변수들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니며, 또한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인천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유도하는 R&D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성장 정체 위기에 처한 중견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R&D 정책 또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용희(2012),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 『혁신이슈페이퍼 2012-03호』.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김태은(2008), 「정부규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패널자료 분석을 통한 근거의 제시」. 『한국행정학보』 42(3): 111-141.
- 민인식 · 최필선(2012),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이동규 · 이철규 · 김정환(2008), 「벤처기업의 R&D 투자와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The Journal of Business and Venturing』 3-1: 1-28.
- 이재성 · 안준기(2008),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성균관대HRD센터.
- 정성호(2013), 『STAT를 활용한 사회과학통계』. 서울: 박영사.
- 최강식 · 정진욱 · 정진화(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1): 135-156.
- 최성호, 박정수, 한준, 성상현, 박기백, 구정환(2012), 『새로운 기업성장 패러다임과 신산업정책 방향 연구』, 산업연구원.
- Coad A., Rao R.(2006), *Innovation and Firm Growth in Complex Technology Sectors: A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Cahiers de la MSE.
- Colombelli A., Haned N. and Le Bas C.(2011), “On Firm Growth and Innovation: Some new empirical perspectives using French CIS(1992-2004)”, *ICER Working Paper*, No. 7/2011.
- Corsino M., Gabriele R.(2010), “Product innovation and firm growth: evidence from the integrated circuit industry”,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20(1), pp. 29-56.

- Del Monte, A., Papagni, E.(2003), “R&D and the growth of firms: empirical analysis of panel of Italian firms”, *Research Policy*, 32, pp.1003-1014.
- Demirel P., Mazzucato M.(2012), “Innovation and Firm Growth: Is R&D Worth It?”, *Industry and Innovation*, 19(1), pp.45-62.
- Falk M.(2012), “Quantile estimates of the impact of R&D intensity on firm performance”, *Small Business Economics*, 39, pp.19-37.
- García J.V.,Romero-MerinoM.E.(2012), “Research, development, and firm growth. Empirical evidence from European top R&D spending firms”, *Research Policy*, 41, pp.1084-1092.
- Kennedy, Peter. (2003), *A Guide to Economics(Fifth Edition)*. Messachusette: Cambridge The MIT Press.
- Hölzl, W.(2009), “Is the R&D behaviour of fast-growing SMEs different? Evidence from CIS III data for 16 countries”, *Small Business Economics*, 33, pp.59-75
- Mansfield, E.(1962), “Entry, Gibrat’s law, innovation and growth of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52, pp.1023-1051.
- NunesP.M, Serrasqueiro Z. and Leitão J.(2012), “Is there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R&D intensity and growth? Empirical evidence of non-high-tech vs. high-tech SMEs”, *Research Policy*, 41, pp.36-53.
- Nunes P.M, Serrasqueiro Z., Mendes L and Sequeira T.V.(2010), “Relationship growth and R&D intensity in low-tech and high-tech Portuguese service SMEs”, *Journal of Service Management*, 21(3), pp.291-320.

- Rao J., Yu Y. and Cao Y.(2013), “The effect that R&D has on company performance: comparative analysis based on listed companies of technique intensive industry in China and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and Research*, 1(4); 1(8).
- Schimke A., Brenner T.(2011), “Long-run factors of firm growth-a study of German firms”, *Karlsruher Institut für Technologie 21*, Working Paper Series in Economics.
- Schimke A., Brenner T.(2011), “Temporal structure of firm growth and the impact of R&D”, *Karlsruher Institut für Technologie 32*, Working Paper Series in Economics.
- Segarra A., Teruel M.(2011), *High-Growth Firms and Innovation: an empirical analysis*. Universitat I Virgili.
- Serrasqueiro Z., Nunes P.M, Leitão J., Armada M.(2010)., “Are there non-linearities between SME growth and its determinants? A quantile approach”,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9(4), pp.1071-1108.
- Yang C.H., Huang C. H.(2005), “R&D, Size and Firm Growth in Taiwan's Electronics Industry”, *Small Business Economics* 25, pp.477-487.
- Wooldridge, Jeffrey M.(2008),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Fourth Edition*, Cengage Learning.

국 문 초 록

R&D 투자의 기업성장에 미치는 효과: 인천 기업(2000~2010)의 패널자료 분석

본 연구는 인천 기업의 2000-2010년간 패널자료를 기초로 연구개발 활동(R&D) 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위회귀분석과 패널회귀분석에 의한 분석결과, 첫째, R&D 투자가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데 1~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하며, 둘째, 종사자수 규모에 따라 R&D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마지막으로 고성장 기업일수록 R&D 투자의 성장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감안할 때 인천 R&D 투자 정책은 고성장하는 기업에 중점을 두되, 규모에 따른 상이한 R&D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키워드: 연구개발 투자, 기업성장, 기업규모, 분위회귀분석, 패널회귀분석

Abstract

The effect of R&D on the growth of firm: empirical analysis of a panel of firms in Incheon(2000~2010)

Gwangmin Yoo, Seongho Han

This paper aims to draw a policy implica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effect of R&D investment on the firm growth based on the panel data of firms located in Incheon.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quantile regression and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re is one or two-year lag between the R&D investment and the subsequent sales growth of the firm. Secondly,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on the growth of firms differ depending on the number of employees. Finally, the more rapidly enterprise grows, the stronger the R&D investment influences on its growt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vestment policy of Incheon should focus on the high-growth enterprises and develop differentiated support program based on the size of them.

Keywords: R&D investment, Firm growth, Firm size, Quantile regression, Panel Regression with fixed effects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생산성 추세변화 비교분석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한 하늘**

- I. 서론
- II. 인천의 연구개발 자원과 특허성과 현황
- III. 연구설계
- IV. 실증분석
- V. 결론

한
하
늘

I. 서론

인천은 수도권 지역의 수출산업기지로서 1970년 대 이후 전통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한국은행(2012)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

* 본 논문은 2012년 7월 9일 정석물류통상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던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해주셨던 정승연 교수님(인하대), 윤희택 팀장님(인천상공회의소)과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세심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본 논문은 2011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1-413-1300008).

**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교수

지역 제조업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간 연평균 0.4% 성장에 그쳐 전국 수준(+6.4%)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내 제조업의 성장정책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관련 중장기 성장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과학기술통계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인천 지역의 연구원 수는 13,573명, 연구개발비는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국 대비 각각 약 4% 수준에 불과하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약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인천지역의 취약한 연구 기반 수준은 산업구조 고도화와 같은 성장 정책 개발과 실행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 기반 확대 정책이 요구되나, 제한된 연구개발 자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적 노력도 동시에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인천의 연구개발 생산성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향후 성장전략을 위한 전략적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기법에 기초한 Malmquist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vity Index; 이하 MPI)를 이용하여 특허성과(출원과 등록)를 중심으로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생산성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인천 지역의 연구개발 정책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음 II장에서는 인천의 연구개발 자원과 특허성과 현황을 검토한다. III장에서는 연구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분석이론, 선행연구를 각각 검토한다. IV장에서는 실증 결과를 정리하며, 마

지막으로 V장에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한다.

II. 인천의 연구개발 자원과 특허성과 현황

본 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연구개발 자원의 투입변화와 특허성과의 추세변화를 지역별로 비교분석하고, 인천지역의 상대적 수준을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지역별 연구원 수와 연구개발비 변화

(단위 : 명, 억 원)

구분	연구원 수			연구개발비		
	2003년	2009년	증감율	2003년	2009년	증감율
서울	52,787	86,852	0.65	36,783	73,042	0.99
부산	7,351	10,107	0.37	3,323	8,111	1.44
대구	4,799	7,592	0.58	2,316	5,308	1.29
인천	6,022	11,629	0.93	5,824	14,407	1.47
광주	4,162	6,651	0.60	2,533	5,269	1.08
대전	18,428	25,014	0.36	23,978	43,567	0.82
울산	3,150	3,678	0.17	3,181	3,945	0.24
광역시 소계	96,699	151,523	0.57	77,938	153,650	0.97

구분	연구원 수			연구개발비		
	2003년	2009년	증감율	2003년	2009년	증감율
경기	61,500	105,460	0.71	81,576	155,632	0.91
강원	3,220	4,354	0.35	1,149	2,772	1.41
충북	4,512	7,803	0.73	3,182	6,256	0.97
충남	7,262	15,878	1.19	5,242	21,261	3.06
전북	4,126	6,268	0.52	2,137	4,934	1.31
전남	2,229	3,093	0.39	1,796	3,898	1.17
경북	9,835	13,302	0.35	8,691	15,748	0.81
경남	8,293	13,763	0.66	8,669	14,039	0.62
제주	495	1,731	2.50	307	1,095	2.57
도 소계	101,472	171,652	0.69	112,749	225,635	1.00
전국	198,171	323,175	0.63	190,687	379,285	0.99

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is.go.kr>)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먼저 지역별로 2003년과 2009년의 연구원 수, 연구개발비를 요약한 <표 1>을 살펴보면 국내 연구원 수는 2003년 198,171명에서 323,175명으로, 연구개발비는 190,687억 원에서 379,285억 원으로 증대되었으며, 약 63%, 99%의 증가율을 각각 보이고 있다.

이를 광역시, 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광역시의 연구원 수는 2003년 96,699명에서 2009년 151,523명으로 증가하여 약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의 경우 2003년 101,472명에서 2009년 171,652명으로 약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광역시의 증가율에 비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광역시의 경우 2003년 77,939억 원에서 2009년 153,650억 원으로 약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의 경우 2003년 112,749억 원에서 2009년 225,635억 원으로 약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상대적으로 광역시의 증가율에 비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9년 기준으로 광역시 전체 연구원 151,523명 중 서울지역의 연구원 수는 86,852명으로 약 57% 차지하고 도의 경우에도 전체 171,652명 중 경기지역의 연구원 수는 105,460명으로 약 61%를 차지하여 전체 연구원 323,175명 중 서울, 경기지역이 약 6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비의 경우에도 2009년 기준 광역시 전체 연구개발비 153,650억 원 중 서울지역이 73,042억 원으로서 약 48%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도의 경우에도 225,635억 원 중 경기지역이 155,632억 원으로서 약 69%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연구개발비 379,285억 원 중 이 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로서 수도권 지역 중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연구개발 자원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같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인천은 2003년과 2009년 사이에 연구원 수는 93%, 연구개발비는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 기준 연구원 수는 11,629명, 연구개발비는 14,407억 원으로서 전국 대비 연구원 수,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 수준이며,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대비 연구원 수,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6%로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2〉 지역별 특허성과의 변화

(단위 : 건수)

구분	특허출원건수			특허등록건수		
	2005년	2011년	증감율	2005년	2011년	증감율
서울	51,013	43,132	-0.15	22,284	21,980	- 0.01
부산	2,456	4,132	0.68	994	2,104	1.12
대구	2,070	3,568	0.72	943	1,959	1.08
인천	2,935	6,139	1.09	1,311	2,943	1.24
광주	1,531	2,093	0.37	926	1,247	0.35
대전	5,796	10,112	0.74	2,848	5,223	0.83
울산	674	2,722	3.04	237	735	2.10
광역시 소계	66,475	71,898	0.08	29,543	36,191	0.23
경기	42,908	40,109	-0.07	16,756	22,583	0.35
강원	745	1,638	1.20	238	934	2.92
충북	2,036	2,574	0.26	992	1,644	0.66
충남	2,350	4,923	1.09	1,207	2,600	1.15
전북	1,146	3,051	1.66	443	1,041	1.35
전남	735	1,942	1.64	360	828	1.30
경북	3,488	7,008	1.01	2,504	3,557	0.42
경남	2,091	4,415	1.11	1,092	2,362	1.16
제주	172	461	1.68	94	237	1.52
도 소계	55,671	66,121	0.19	23,686	35,786	0.51
전국	122,146	138,019	0.13	53,229	71,977	0.35

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또한 특허성과를 지역별로 정리한 〈표 2〉를 살펴보면 국내 특허출원건수는 2005년 122,146건에서 2011년 138,019건으로, 특허등록건수는 53,229건에서 71,977건으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약 13%, 35%의 증가율을 각각 보였다.

이를 광역시, 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광역시의 특허출원건수는 2005

년 66,475건에서 2009년 71,898건으로 증가하여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의 경우 2005년 55,671건에서 2011년 66,121건으로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광역시의 증가율에 비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허등록의 경우에도 광역시의 경우 2005년 29,543건에서 2011년 36,191건으로 약 23% 증가하였으며, 도의 경우 2005년 23,686건에서 2011년 35,786건으로 약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상대적으로 광역시의 증가율에 비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한 2011년 기준으로 광역시 전체 특허출원 71,898건 중 서울의 출원건수가 43,132건으로 60%를 차지하고 있고, 광역시 전체 특허등록 36,191건 중 서울의 특허건수가 21,980건으로 약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기간 비록 서울의 특허출원건수와 등록건수는 감소하였지만 광역시 특허성과 중 과반수를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경우에도 2011년 기준 도 전체 특허출원 66,121건 중 경기지역의 출원건수는 40,109건으로 2005년에 비해 7% 산출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약 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등록건수는 도 전체 35,786건 중에서 22,583건을 차지하여 약 6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1년 기준 국내 전체 특허출원건수 138,019건 중 83,241건이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산출되었고, 전체 특허등록건수 71,977건 중 44,563건이 동지역에서 산출되어 출원건수, 등록건수의 약 60%, 약 62%를 각각 차지하여 전체 국내 특허성과 중 과반수를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특허출원건수는 2005년과 2011년 사이에 2,935건에서 6,139건으로 109% 증가하였고, 특허등록건수는 같은 기간 1,311건에서 2,943건으

로 증가하여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기준 인천의 특허출원건수는 6,139건, 특허등록건수는 2,943건으로 전국 대비 특허출원·등록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대비 특허출원·등록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의 연구개발 자원의 투입량 비중은 전국 대비 약 4% 수준으로 수도권 대비 약 6% 수준으로 나타났고, 특허성과 비중은 전국 대비 약 4% 수준으로 수도권 대비 약 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반 수준과 성과가 매우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열악한 연구기반과 성과 수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내 산업구조 고도화 등 중장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나마 최근까지 인천지역 연구개발 자원의 투입량과 특허성과의 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상대적 수준은 매우 취약하며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자원 투입을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자원 활용의 생산성을 강화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와 연계된 특허성과를 증대하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연구설계

앞 장에서는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자원과 특허성과 현황을 각각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설계한다.

다만, 본격적인 연구설계에 앞서 분석이론과 관련 선행연구를 각각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분석이론

본 연구의 주요 방법론인 MPI는 기술적 효율성을 추정하는 확정적·비모수적 접근 방법인 DEA에 기초한다. 먼저 기술적 효율성이란 주어진 생산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투입요소를 산출량으로 전환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기술적 효율성을 실제 계측하기 위해 DEA는 선형계획모형에 기초하여 효율성을 평가하며, 기본 개념은 Charnes, Coopers, and Rhodes(1978)에 의해 제안되었다. 하지만 DEA 그 자체는 효율성의 변화가능성을 배제하므로 본 연구와 같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다. 이에 관한 대안적 방법 중의 하나가 MPI이다. 이는 1953년 Malmquist가 처음 제안한 이후, Cave, Christensen and Diewer(1982)에 의해 정의되었고, Färe, Grosskopf, Norris and Zhang(1994)이 DEA모형을 이용한 Malmquist 지수측정 방법을 개발하여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t 기의 기술수준 하에서 t 기의 생산점을 평가할 때 거리함수는 (식 1)과 같다.

(식 1)

$$D^t(x^t, y^t) = [\max \phi : (x^t, \phi y^t) \in P^t]^{-1}$$

D : 거리함수

x : 투입물, y : 산출물, t : 시점

ϕ : 기술적 효율성

P : 생산기술

또한 (식 2)는 Charnes, Coopers and Rhodes(1978)의 산출방향 불변규모 수익(Constant Return to Scale ; 이하 *CRS*)을 가정한 거리함수 측정모형이다.

(식 2)

$$(D_c^t(x^{k,t}, y^{k,t}))^{-1} = \text{Max } \phi^k$$

$$s.t. \quad x_n^{k,t} - \sum_{k=1}^K \lambda^{k,t} x_n^{k,t} \geq 0 \quad n = 1, \dots, n \quad (2.1)$$

$$\phi^k y_m^{k,t} - \sum_{k=1}^K \lambda^{k,t} y_m^{k,t} \leq 0 \quad m = 1, \dots, m \quad (2.2)$$

$$\lambda^{k,t} \geq 0 \quad k = 1, \dots, k \quad (2.3)$$

(식 2)에서 x , y 는 투입과 산출 벡터를, m 은 산출 종류, n 은 투입 종류, κ 는 분석대상, λ 는 DMU_κ (Decision Making Units ; 이하 *DMU*)가 효율적 변경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는 가중치 변수, $(D_c^t(x^{k,t}, y^{k,t}))^{-1}$ 의 아래 첨자 C 는 *CRS*를 각각 의미한다.

즉 (식 2)는 t 기의 특정 평가 대상 DMU_k 의 산출-투입요소와 t 기의 기술 간 산출거리함수를 나타낸 것이다. 제약조건식 (2.1)은 투입요소에 대한 제약조건식이며 t 기의 DMU_k 에 의한 n 번째 투입요소의 사용량은 t 기의 모든 DMU 들이 사용한 투입요소 n 의 선형결합보다 작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제약조건식 (2.2)는 산출요소에 대한 제약조건식으로서 t 기의 DMU 에 의한 m 번째 산출물은 t 기의 모든 DMU 들이 생산하는 산출물 m 의 선형결합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약조건식 (2.3)의 λ^k 는 t 기에 DMU_k 가 효율적 변경 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의미한다.

목적함수인 θ^k 는 산출방향의 경우 DMU_k 가 효율적이면 1의 값을 가지며, 비효율적이면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즉 θ^k 는 $1 < \theta^k \leq \infty$ 값을 가지며 k 번째 평가대상의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 TE)은 $1/\theta^k$ 로 표시되고 $0 < TE \leq 1$ 이 되어 TE 가 1일 경우 평가대상은 효율적이며 비효율적이면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된다.

또한 MPI는 기간 간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므로, 거리함수와 투입 및 산출 벡터의 시점이 다른 거리함수 측정모형을 구성하면 (식 3) 과 같다.

(식 3)

$$\begin{aligned}
 & (D_c^t(x^{k,t+1}, y^{k,t+1}))^{-1} = \text{Max } \phi^k \\
 & s.t. \quad x_n^{k,t+1} - \sum_{k=1}^K \lambda^{k,t} x_n^{k,t} \geq 0 \quad n = 1, \dots, n \\
 & \quad \phi^k y_m^{k,t+1} - \sum_{k=1}^K \lambda^{k,t} y_m^{k,t} \leq 0 \quad m = 1, \dots, m \\
 & \quad \lambda^{k,t} \geq 0 \quad k = 1, \dots, k
 \end{aligned}$$

(식 2)와 (식 3)을 이용하면 Färe, Grosskopf, Norris and Zhang(1994)이 정의한 MPI를 측정할 수 있으며, 이는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즉 MPI는 동일한 생산함수 가정 하에 t 와 $t+1$ 시점의 산출물과 투입요소에 의한 거리함수 비율을 t 와 $t+1$ 시점 간 기하 평균한 것으로 이를 통해 두 기간 간의 생산성 변화를 측정한다. 가령, $M_c = 1$ 인 경우에는 생산성은 t 기와 비교하여 $t+1$ 기에도 변화가 없으며, $M_c < 1$ 이면 생산성의 감소를, $M_c > 1$ 이면 생산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식 4)는 (식 5)와 같이 두 부분으로 각각 분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은 관찰된 생산성이 t 와 $t+1$ 시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기술효율성 변화를, 두 번째 항은 동일한 투입 대비 산출요소에 대한 기술 변화 측정을 각각 의미한다.

(식 4)

$$M_c(x^{t+1}, y^{t+1}, x^t, y^t) = \left[\left(\frac{D_c^t(x^{t+1}, y^{t+1})}{D_c^t(x^t, y^t)} \right) \left(\frac{D_c^{t+1}(x^{t+1}, y^{t+1})}{D_c^{t+1}(x^t, y^t)} \right) \right]^{1/2}$$

(식 5)

$$M_c(x^{t+1}, y^{t+1}, x^t, y^t) = \frac{D_c^{t+1}(x^{t+1}, y^{t+1})}{D_c^t(x^t, y^t)} \times \left[\left(\frac{D_c^t(x^{t+1}, y^{t+1})}{D_c^{t+1}(x^{t+1}, y^{t+1})} \right) \left(\frac{D_c^t(x^t, y^t)}{D_c^{t+1}(x^t, y^t)} \right) \right]^{1/2}$$

한편, (식 4), (식 5)에 제약조건 $\sum_{k=1}^K \lambda^{k,t} = 1$ 을 추가하면 Banker, Charnes and Cooper(1984)의 변동규모수익(Variable Return to Scale ; 이하 VRS)을 가정한 거리함수 측정모형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식 6) 과 같이 기술

효율성 변화를 순수기술효율성변화와 규모효율성변화로 각각 분해할 수 있다.

(식 6)에서 오른쪽 첫 번째 항은 순수효율성 변화(아래 첨자 ν 는 VRs 를 의미)를, 두 번째 항은 규모효율성 변화를 그리고 세 번째 항은 기술변화를 각각 의미하며 각각의 변화율들은 1보다 작으면 감소, 1보다 크면 증가를 그리고 1과 같으면 변화가 없음을 의미한다.

(식 6)

$$M_c(x^{t+1}, y^{t+1}, x^t, y^t) = \frac{D_v^{t+1}(x^{t+1}, y^{t+1})}{D_v^t(x^t, y^t)} \times \left[\left(\frac{D_c^{t+1}(x^{t+1}, y^{t+1})/D_v^{t+1}(x^{t+1}, y^{t+1})}{D_c^t(x^t, y^t)/D_v^t(x^t, y^t)} \right) \right] \\ \times \left[\left(\frac{D_c^t(x^{t+1}, y^{t+1})}{D_c^{t+1}(x^{t+1}, y^{t+1})} \right) \left(\frac{D_c^t(x^t, y^t)}{D_c^{t+1}(x^t, y^t)} \right) \right]^{1/2}$$

이처럼 MPI는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기술적 효율성 변화와 기술변화 요인으로 분해가능하며, 이를 통해 기술적 비효율성이 높아 잠재적인 생산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신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기술과 급과 활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진보의 둔화로 생산성이 악화되는 경우라면 생산변경을 상향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등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박만희, 2008:115).

2. 선행연구

최근까지 연구개발과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정량적인 성과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생산성 혹은 효율성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는 연구들이 <표 3>처럼 있어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병철(2008)의 연구에서는 DEA와 MPI를 이용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를 연구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내 16개 시도의 연구개발 효율성과 생산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중 인천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분석기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각 해당년도 기술효율성은 0.374, 0.392, 0.421, 0.501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으로 기술적 비효율성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분석기간 동안 인천지역의 기술적 효율성은 전체 평균 미만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PI에 의한 생산성 분석결과 인천지역의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는 분석기간 중 약 24.5% 증가하여 전체 평균인 22%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효율성의 변화, 기술변화 역시 각각 8.6%,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인 7.2%, 13.8% 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과 효율성의 변화가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백철우 등(2009)의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5개국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DEA를 이용하여 계측하고 토빗(Tobit)모형을 통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시아 5

개국의 연구개발 효율성은 선진국 수준으로 급성장하였으며 비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개방성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될수록 아시아 국가의 효율성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기(2010)의 연구에서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 24 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의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은 0.837, 0.834로 각각 나타나 OECD 회원국 평균 0.80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국은 0.420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또한 OECD 회원국의 생산성은 연평균 2.1%의 증가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과 중국은 각각 1.9%, 0.9%의 생산성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25.2%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진·방민석(2010)의 연구에서는 MPI를 이용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6개 시도의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생산성은 분석기간 동안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효율성의 변화는 약 9%, 기술변화는 약 7% 각각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생산성의 변화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지역의 생산성의 변화는 약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효율성의 변화는 약 1% 증가하였으나, 기술변화는 약 12%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감소시켰다.

〈표 3〉 주요 선행 연구

연구자	분석대상과 목적	산출변수	투입변수	분석방법
이병철 (2008)	전국16개 시도의 연구개발 효율성과 생산성	특허출원건수, 특허등록건수	연구개발비, 연구원수	DEA, MPI
백철우 등 (2009)	아시아 주요 5개국의 효율성과 영향요인 분 석	논문건수, 삼극특허건수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DEA, Tobit
조윤기 (2010)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특허건수, 논문수, 기술수출액	연구개발비, 연구원수	DEA, MPI
정혜진·방민석 (2010)	전국16개 시도의 연구개발 생산성	특허출원건수, 논문게재건수	연구개발비, 연구원 수, 연구장비구입액	MPI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생산성과 효율성은 연구마다 각기 상이한 변수와 연구기간 설정 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가령, 이병철(2008)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인천지역 연구개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경향으로 보고하였으나, 정혜진·방민석(2010)의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지역 연구개발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임을 보고하였다. 다만, 타 지역 평균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의 하락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의 분석기간을 포함하되, 특허출원과 등록을 중심으로 인천지역 연구개발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성과(출원과 등록건수)를 이용하여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생산성 추세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분석이론과 선행연구를 차례로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변수선정, 자료수집 등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설계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수선정의 경우 본 연구의 산출변수는 특허출원건수와 등록건수를 이용하였다. 특허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연구 활동의 성과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혁신의 경제적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Griliches, 1990). 투입변수 역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연구원 수와 연구개발비를 적용하였다. 다만 연구개발비의 경우 GDP deflator(2003년 기준)를 이용하여 불변화 시켰다.

둘째, 연구개발 자원의 투입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양적 성과로 구현되므로 이에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간에 일정한 시차(time lag)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시차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관한 합리적인 대안이 없어 연구마다 다소 상이하게 시차를 두고 있다. 가령, 이병철(2008)은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간의 시차를 1년과 2년, 백철우 등(2009)의 연구에서는 2년, 조윤기(2010)의 연구에서는 3년, 정혜진 · 방민석(2010)의 연구에서는 2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시차범위를 참고하여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간의 시차를 2년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따라서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기간은 공개적으로 자료수집이 가능한 최대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투입변수의 경우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산출변수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설정하였으며,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IV. 실증분석

1. 기술통계 분석요약

특허성과를 이용한 연구개발 생산성의 변화를 계측하기에 앞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간의 상관관계분석과 이들 변수의 기술통계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지면 관계상 본 연구의 처음 분석시점과 마지막 분석시점의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표 4>는 투입-산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서 모든 변수들이 0.83 이상의 높은 (+)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변수 선정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표 4〉 투입-산출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특허출원	특허등록
2003년	연구원수	1			
	연구개발비	0.947	1		
2005년	특허출원	0.972	0.857	1	
	특허등록	0.962	0.830	0.997	1
2009년	연구원수	1			
	연구개발비	0.956	1		
2011년	특허출원	0.986	0.900	1	
	특허등록	0.994	0.923	0.998	1

이러한 각 투입변수와 산출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 〈표 5〉와 〈표 6〉이다. 먼저 〈표 5〉는 투입변수의 기술통계를 요약한 것으로서 2003년 기준 전체 평균 연구원 수는 약 12,385.7명, 2009년의 경우는 약 20,198.4명으로 각각 나타나 분석기간 동안 약 6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2003년 기준 11,917.9억 원, 2009년의 경우 약 23,705.3억 원으로 각각 나타나 약 99%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투입변수의 기술통계 요약

(단위 : 명, 억 원)

구분	2003년		2009년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연구원수	연구개발비
최대값	61,500	81,576	105,460	155,632
최소값	495	307	1,731	1,095
평균	12,385.7	11,917.9	20,198.4	23,705.3
표준편차	17,438.5	20,270.6	29,438.6	38,562.6

산출변수인 특허출원과 특허등록건수의 경우는 2005년 특허출원의 전체 평균은 약 7,634.1건으로 나타났고, 2011년의 경우 약 8,626.2건으로 나타나 동 기간 약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등록의 경우 2005년 전체 평균은 약 3,326.8건, 2011년은 약 4,498.6건으로 나타나 약 35%이상 증가하여 특허출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표 6〉 산출변수의 기술통계 요약

(단위 : 건수)

구분	2005년		2011년	
	특허출원	특허등록	특허출원	특허등록
최대값	51,013	22,284	43,132	22,583
최소값	172	94	461	237
평균	7,634.1	3,326.8	8,626.2	4,498.6
표준편차	14,989.4	6,240.9	12,687.3	6,828.3

2. 생산성 분석과 분해 결과¹⁾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분석·분해하여 그 결과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그림 1〉은 분석기간인 2005년부

1) 본 연구는 MPI에 기초하여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인천의 연구개발 생산성의 추세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다만, DEA-VRS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을 추가 실시하였고,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5년 기준 전국 평균은 0.576, 인천은 0.537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의 경우 전국 평균은 0.895, 인천 0.973으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 수준은 2005년 16개 광역시도 중 10위, 2011년 기준 9위 수준으로 각각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지역의 순수기술효율성은 전국 대비 중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터 2011년까지 지역별 연구개발의 평균 생산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하평균값이 1이상이면 최근 7년 간 평균생산성이 증대된 것이다. 따라서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그리고 경남이 최근 7년 간 특허성과를 이용한 평균 연구개발 생산성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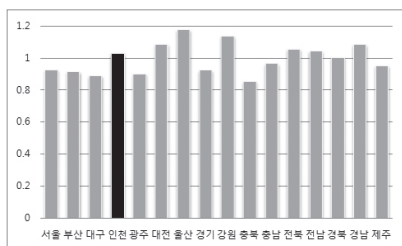
또한 <그림 2>부터 <그림 4>까지는 생산성, 기술적 효율성 그리고 기술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으로서 이를 통해 각 추세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2>에서 전체 생산성 변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을 정점으로 다소 등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서울과 경기지역)의 경우는 2007년과 2008년 높은 수준의 생산성 증대가 있었으나,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인천지역의 경우는 2006년과 2007년 이후 생산성의 변화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앞서 살펴본 인천지역의 평균 생산성의 증대는 과거의 높은 생산성 증대에 기초하며,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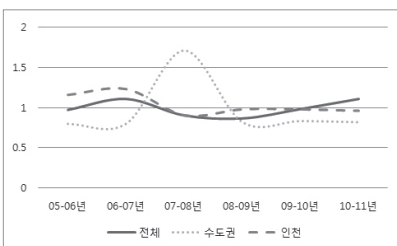
<그림 3>에서 전체 기술적 효율성 변화의 경우를 살펴보면 분석기간 동안 다소 등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서울, 경기)의 경우는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가 최근 들어 정체하는 경향을 보인 후, 최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천지역 역시 과거 높은 기술적 효율성의 증가가 있었으나, 최근 2009년 이후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4>에서 전체 기술변화의 경우 2009년 이후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나, 수도권(서울, 경기)뿐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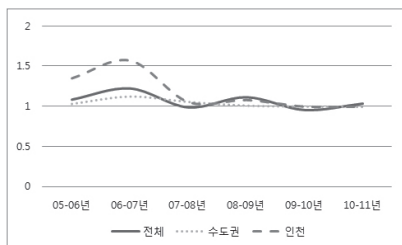
나라 인천지역은 변화율에 차이는 있으나 퇴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들 지역의 생산성 변화 감소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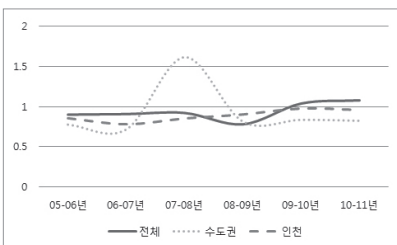
〈그림 1〉 지역별 생산성의 평균변화



〈그림 2〉 생산성의 평균변화



〈그림 3〉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



〈그림 4〉 기술변화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석기간(2005년-2011년)동안 국내 연구개발 생산성은 연평균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술효율성의 변화와 기술변화로 각각 분해해 보면 동 기간 기술효율성의 연 평균 변화는 약 6.7% 증가, 기술변화의 연 평균 변화는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순수기술효율성의 변화와 규모의 효율성 변화로 각각 분해해 보면 순수기술효율성의 변화는 약 2%, 규모의 효율성 변화는 약 4.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석기간 동안 특허성과를 이용한 국내 연구개발 생산성 변화의 감소 원인은 기술변화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효율성의 변화는 순수기술효율성의 변화, 규모의 효율성 변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지역별 평균생산성의 변화와 분해

지역	기술효율성 변화	기술 변화	순수기술 효율성 변화	규모의 효율성 변화	총요소 생산성 변화
서울	1	0.925	1	1	0.925
부산	1.018	0.897	0.972	1.048	0.913
대구	0.993	0.896	1	0.993	0.889
인천	1.16	0.888	1.023	1.134	1.03
광주	0.931	0.968	0.973	0.957	0.901
대전	1.161	0.935	1.129	1.029	1.085
울산	1.179	0.998	1.176	1.002	1.177
경기	1.072	0.861	1.029	1.041	0.922
강원	1.132	1.005	1.128	1.003	1.137
충북	0.939	0.908	0.921	1.019	0.852
충남	1.076	0.896	0.916	1.174	0.964
전북	1.121	0.941	1.121	1	1.055
전남	1.069	0.975	1.061	1.007	1.043
경북	1.143	0.878	1.04	1.1	1.004
경남	1.211	0.895	0.945	1.282	1.084
제주	0.93	1.023	0.937	0.993	0.952
기하평균	1.067	0.929	1.02	1.046	0.992

또한 수도권 지역 중 서울 지역의 경우 생산성의 평균 변화는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약 7.5% 감소하였으며, 기술효율성의 평균 변화는 없었으나, 기술변화가 약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생산성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역시 연 평균 생산성은 7.8% 감소하였으며, 기술효율성은 7.2% 증가, 기술변화는 13.9% 감소하였다.

이에 비하여 인천 지역은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생산성의 변화는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효율성 변화는 16%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술 변화는 11.2% 감소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기술효율성의 변화를 순수기술효율성 변화와 규모의 효율성 변화로 각각 구분해 보면, 순수기술효율성은 2.3%, 규모의 효율성은 13.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천 지역의 생산성 변화는 기술효율성의 증대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규모의 효율성 증가가 이러한 기술효율성의 증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평균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표 8>이며, 연도별 보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부록의 <표 10> - <표 15>로 수록하였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석기간 동안 국내 연구개발 생산성의 연 평균 변화는 약 1.8% 감소, 기술효율성의 평균 변화는 약 6.7% 증가 그리고 기술변화는 평균 약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과 2007년 이전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생산성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연 평균 10.1% 증가하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기술효율성은 연 평균 3% 증가, 기술변화는 연 평균 6.9% 증가하여 연구개발의 생산성 증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생산성의 변화와 분해

해당년도	기술효율성 변화	기술 변화	순수기술 효율성 변화	규모의 효율성 변화	총요소 생산성 변화
05-06년	1.099	0.898	1.012	1.086	0.986
06-07년	1.244	0.899	1.087	1.145	1.119
07-08년	0.989	0.917	0.996	0.993	0.907
08-09년	1.111	0.788	1.059	1.049	0.876
09-10년	0.954	1.033	0.957	0.996	0.985
10-11년	1.03	1.069	1.016	1.015	1.101
기하평균	1.067	0.929	1.02	1.046	0.992

또한 이러한 변화를 전체지역과 수도권(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지역과 각각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 〈표 9〉이다. 〈표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석기간 동안 생산성의 연 평균 변화는 전국 1.1% 감소, 수도권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천지역은 오히려 연 평균 생산성이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지역은 2006년과 2007년 생산성 증대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지역과 경기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생산성 평균 변화가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구개발 생산성의 감소 원인은 기술효율성의 변화보다는 기술 변화의 감소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기술효율성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분석기간 동안 연 평균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지역 3.5%, 인천 15.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변화의 경우 전국 6.8%, 수도권 10.8% 그리고 인천 11.1%

〈표 9〉 인천지역 평균생산성의 변화의 비교

구분	생산성변화			기술효율성변화			기술변화		
	전체	수도권	인천	전체	수도권	인천	전체	수도권	인천
05-06년	0.976	0.801	1.161	1.083	1.032	1.352	0.900	0.776	0.859
06-07년	1.111	0.802	1.234	1.224	1.122	1.573	0.907	0.715	0.785
07-08년	0.907	1.713	0.905	0.984	1.056	1.057	0.921	1.621	0.856
08-09년	0.870	0.821	0.979	1.113	1.010	1.081	0.781	0.813	0.906
09-10년	0.986	0.836	0.979	0.951	1.000	1	1.037	0.836	0.979
10-11년	1.111	0.821	0.961	1.032	0.995	1	1.076	0.824	0.961
기하평균	0.989	0.923	1.030	1.061	1.035	1.159	0.932	0.892	0.889

주 : 전체 및 수도권은 인천을 제외한 수치임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기간 동안 생산성 평균변화의 감소는 기술 변화의 퇴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인천 지역 내 제조업의 성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관련 중장기 정책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 기반의 확충뿐만 아니라 현재 제한된 연구개발 자원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DEA에 기초한 MPI를 이용하여 특허출원·등록건수와 같은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최근 7년

간 국내 연구개발 생산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생산성의 상대적 추세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가 인천의 연구개발 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지역의 연구원 수, 연구개발비와 같은 자원의 투입량은 전국 대비 각각 약 4% 수준이었으며, 수도권 대비 각각 약 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출원·등록건수와 같은 산출량의 비중은 전국 대비 약 4%, 수도권 대비 약 7% 수준으로 각각 나타났다. 결국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자원과 특허성과의 절대적 비중은 전국·수도권 대비 모두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보다 적극적인 연구 자원 확충과 성과 개선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둘째,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생산성의 변화는 분석기간(2005년-2011년) 동안 연 평균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천 지역을 제외한 전체 생산성의 평균 변화(약 1.1% 감소)와 수도권 지역 평균 변화(약 7.7% 감소)와 대비되는 결과로서 열악한 연구개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생산성은 분석기간 동안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생산성 추세변화 분석결과 인천지역의 생산성 변화는 분석기간 동안 다소 증감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2005년-2006년의 약 16.1% 증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2010년-2011년에는 오히려 연 평균 약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분석결과는 인천지역 내 연구개발 생산성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셋째,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기술효율성의 변화와 기술변화로 각각 구분해 본 결과 분석기간 동안 기술효율성의 연 평균 변화는 약 15.9%

증가한 반면, 기술변화는 분석기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 평균 변화는 약 1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근까지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생산성 감소 주요 원인은 상대적으로 지역 내 연구개발 혁신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은 생산가능곡선 자체를 변동시켜 동일 투입 대비 산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연구개발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역 내 전통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구조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현재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되고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역 내 전통제조업은 이러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벤처생태계를 복원하여 신기술 창업, 도입 및 기술사업화의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전통제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정책적 배려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박만희(2008),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파주, (주)한국학술정보.
- 백철우, 권명화, 유승훈(2009), 「아시아 국가의 기술혁신 환경요인이 R&D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아시아연구』 12(2), pp.113-139.
- 이병철(2008), 「우리나라 광역시·도별 특허성과를 통한 연구개발 효율성과 생산성 분석」, 『지식재산연구』 3(2), pp.99-118.
- 정혜진, 방민석(2010), 「지방 R&D사업의 효율성과 Malmquist 생산성 분석」,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공동학술대회발표자료집. pp.224-241.
- 조윤기(2010), 「한·중·일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14(2), pp.43-60.
- 한국은행(2012), 『최근 인천지역 GRDP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서울, 한국은행.
- Banker, R. D., A. Charnes, W. W. Cooper(1984). "Some Models for Estimating Technical and Scale In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30(9), pp.1078-1092.
- Caves, D., Christensen, L., Diewert, E(1982), "The economic theory of index numbers and the measurement of input, output, and productivity.", *Econometrica* 50, pp.1393-1414.
- Charnes, A., Cooper, W. W and Rhodes, E(1978)", "Measuring the in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 pp.429-444.
- Färe, R., Grosskopf, S., Norris, M., Zhang, Z(1994), "Productivity growth, technical progress, and efficienc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84, pp.66-83.

Griliches, Z. (1990), "Patent statistics as economic indicator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8(4), pp.1661-1707.

과학기술통계서비스. <http://sts.ntis.go.kr>.

부록 : 분석기간 별 생산성 변화 분석

〈표 10〉 2005년-2006년 생산성 변화 분석

지역	기술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순수기술 효율성 변화	규모의 효율성 변화	총요소 생산성 변화
서울	1	0.688	1	1	0.688
부산	0.696	0.867	0.669	1.041	0.604
대구	0.591	0.862	0.873	0.677	0.51
인천	1.352	0.859	1.144	1.182	1.161
광주	0.593	0.879	1	0.593	0.522
대전	1.328	0.859	1.159	1.147	1.142
울산	1.804	1.122	2.264	0.797	2.024
경기	1.065	0.875	1.03	1.034	0.932
강원	1.746	0.879	1.712	1.02	1.535
충북	0.482	1.001	0.662	0.728	0.483
충남	1.008	0.846	0.447	2.257	0.853
전북	1.692	0.892	1.983	0.854	1.509
전남	1.495	1.127	1.43	1.046	1.685
경북	1.761	0.752	1.294	1.362	1.325
경남	1.415	0.851	0.358	3.95	1.205
제주	1	1.129	1	1	1.129
기하평균	1.099	0.898	1.012	1.086	0.986

〈표 11〉 2006년-2007년 생산성 변화 분석

지역	기술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순수기술 효율성 변화	규모의 효율성 변화	총요소 생산성 변화
서울	1	0.737	1	1	0.737
부산	1.265	0.821	1.024	1.235	1.039
대구	1.555	0.821	1.145	1.358	1.278
인천	1.573	0.785	0.914	1.722	1.234
광주	1.356	0.821	1	1.356	1.114
대전	2.12	0.896	1.986	1.068	1.9
울산	0.926	1.217	1.021	0.907	1.128
경기	1.26	0.693	1.154	1.092	0.873
강원	1.202	1.22	1.202	1	1.467
충북	1.384	0.821	1.006	1.376	1.137
충남	1.64	0.821	1.477	1.11	1.347
전북	1.057	1.083	1	1.057	1.145
전남	1	1.113	1	1	1.113
경북	0.759	0.874	0.599	1.266	0.663
경남	1.57	0.821	1.409	1.114	1.29
제주	0.924	1.056	1	0.924	0.976
기하평균	1.244	0.899	1.087	1.145	1.119

〈표 12〉 2007년-2008년 생산성 변화 분석

지역	기술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순수기술 효율성 변화	규모의 효율성 변화	총요소 생산성 변화
서울	1	1.58	1	1	1.58
부산	1.06	0.856	1.068	0.993	0.907
대구	0.999	0.856	1	0.999	0.856
인천	1.057	0.856	1.071	0.987	0.905
광주	0.953	1.188	1	0.953	1.132
대전	0.777	1.01	0.792	0.981	0.785
울산	1.157	0.739	1.073	1.078	0.855
경기	1.116	1.663	0.987	1.132	1.857
강원	1	0.764	1	1	0.764
충북	1.04	0.85	1.074	0.968	0.884
충남	0.945	0.886	0.958	0.986	0.837
전북	0.819	0.753	1	0.819	0.616
전남	1	0.739	1	1	0.739
경북	1.188	0.831	1.201	0.99	0.987
경남	0.984	0.856	0.989	0.995	0.842
제주	0.829	0.751	0.798	1.038	0.622
기하평균	0.989	0.917	0.996	0.993	0.907

〈표 13〉 2008년-2009년 생산성 변화 분석

지역	기술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순수기술 효율성 변화	규모의 효율성 변화	총요소 생산성 변화
서울	1	0.793	1	1	0.793
부산	1.202	0.872	1.368	0.879	1.048
대구	1.032	0.91	1	1.032	0.939
인천	1.081	0.906	1.022	1.058	0.979
광주	1.257	0.694	1	1.257	0.872
대전	1.131	0.905	1.122	1.008	1.025
울산	1.073	0.682	0.867	1.237	0.732
경기	1.021	0.834	1.014	1.007	0.851
강원	1	0.649	1	1	0.649
충북	1.371	0.763	1.398	0.981	1.045
충남	0.98	0.895	0.928	1.056	0.877
전북	1.105	0.679	0.856	1.291	0.75
전남	1	0.691	1	1	0.691
경북	1.114	0.872	1.082	1.03	0.971
경남	1.228	0.913	1.214	1.011	1.121
제주	1.276	0.664	1.253	1.018	0.847
기하평균	1.111	0.788	1.059	1.049	0.876

〈표 14〉 2009년-2010년 생산성 변화 분석

지역	기술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순수기술 효율성 변화	규모의 효율성 변화	총요소 생산성 변화
서울	1	1.011	1	1	1.011
부산	0.893	1.01	0.759	1.177	0.902
대구	0.967	0.971	1	0.967	0.939
인천	1	0.979	1	1	0.979
광주	1.003	1.168	1	1.003	1.172
대전	0.957	0.979	0.961	0.996	0.937
울산	1.189	1.162	1.1	1.081	1.382
경기	1	0.692	1	1	0.692
강원	1	1.175	1	1	1.175
충북	0.742	1.076	1	0.742	0.798
충남	1.015	0.972	1.01	1.005	0.986
전북	0.847	1.168	0.834	1.016	0.99
전남	1	1.16	1	1	1.16
경북	1.171	0.995	1.154	1.015	1.165
경남	0.983	0.972	0.962	1.021	0.955
제주	0.648	1.171	0.663	0.977	0.759
기하평균	0.954	1.033	0.957	0.996	0.985

〈표 15〉 2010년-2011년 생산성 변화 분석

지역	기술 효율성 변화	기술변화	순수기술 효율성 변화	규모의 효율성 변화	총요소 생산성 변화
서울	1	0.973	1	1	0.973
부산	1.111	0.972	1.109	1.002	1.08
대구	1.046	0.963	1	1.046	1.007
인천	1	0.961	1	1	0.961
광주	0.673	1.184	0.85	0.792	0.797
대전	1.034	0.967	1.052	0.983	0.999
울산	1.09	1.237	1.12	0.974	1.349
경기	0.99	0.698	1	0.99	0.692
강원	1	1.647	1	1	1.647
충북	0.969	0.975	0.612	1.582	0.944
충남	0.999	0.965	0.998	1.001	0.963
전북	1.448	1.204	1.401	1.033	1.743
전남	1	1.16	1	1	1.16
경북	1.078	0.969	1.088	0.991	1.045
경남	1.198	0.968	1.218	0.984	1.159
제주	1.023	1.65	1.017	1.005	1.688
기하평균	1.03	1.069	1.016	1.015	1.101

국 문 초 록

인천광역시 연구개발 생산성 추세변화 분석 -특허성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16개 광역시도의 특허성과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생산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천 연구개발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분석방법은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이용하였으며, 산출변수는 특허출원·등록건수를, 투입변수는 연구원 수, 연구개발비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인천지역 연구개발 생산성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기술변화의 퇴보에 기인하였다. 따라서 인천지역의 연구개발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혁신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연구개발, 생산성,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Abstract

A Trend Analysis on the R&D Productivity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 Based on patent right

Han, Ha-Neul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D productivity changes of Korean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or the 2005-2011. To explore this study question, it uses non-parametric frontier methods such as Malmquist Productivity Index(MPI).

Total number of researchers and R&D expenditures are used as inputs, and total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and patent grants as output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overall R&D productivity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decrease over the 2005-2011 period mainly due to sluggish technical progress.

This results implies that R&D innovation growth is a more important source of productivity growth than technological efficienc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Key words: R&D, Productivity,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도시리포트

근대 개항도시의 화교(華僑)사회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 인천(仁川)과 요코하마[橫濱]를 중심으로 -

• 리위롄
(李玉蓮)

- 인천발전연구원 ·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

“황해에서의 초국경협력과 동아시아평화 - 한중일 역사 · 문화교류와 국가전략”

인천발전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은 “황해에서의 초국경협력과 동아시아평화-한중일 역사 · 문화교류와 국가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2013년 9월 12일 (목) 인천송도파크호텔). 본 국제학술회의는 인문 · 역사 · 문화와 같은 소프트 자산에 기초하여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대화와 협력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별 세션에는 후쿠하라 타다히코(福原紀彦)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 총장, 바이캉(白鋼)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교수, 김학준(金學俊)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한 · 중 · 일 석학들의 기조연설과 특별대답이 있었다.

세션1은 ‘황해에서의 교류 역사와 현재’라는 주제로 세션2는 ‘환황해권 초국경협력과 국가 · 지역전략’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한 · 중 · 일 3개국 2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과거 동북아의 지중해였던 황해를 매개로 한 국제협력의 경험을 돌아보고,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제학술회의 세션1에서 인천과 관련 깊은 주제를 발표한 리위렌(李玉

蓮) 교수(중국 연변대학 외국어학원)의 『근대 개항도시의 화교사회 및 동아시아의 해상네트워크-인천, 요코하마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를 『인천연구』 제7호 도시리포트에 게재한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인천발전연구원 ·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 일 시 : 2013년 9월 12일(목) 오전 10:00~18:00
- 장 소 : 인천송도파크호텔 릴리홀
- 주 제 : “황해에서의 초국경협력과 동아시아평화 - 한중일 역사 · 문화교류와 국가전략”
- 주 최 : 인천광역시, 동북아역사재단, 인천발전연구원
- 주 관 : 인천발전연구원, 서해평화정책포럼
- 후 원 : 인천일보,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 주요내용

구 분	시 간	내 용
개 회 식	10:00 ~10:20	• 인사말 :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 축 사 : 지용택 새얼문화재단 이사장 • 환영사 :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기조연설	10:20 ~11:00	• 연설 1 : 후쿠아라히코(福原紀彦) / 주오대학(中央大學) 총장 • 연설 2 : 바이캉(白鋼) /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 前중국정협 중앙위원
특별대담	11:00 ~11:40	• 진 행 :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 패 널 : 김학준 / 동북아재단 이사장 후쿠아라히코 / 주오대학 총장 바이캉 /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기념촬영	11:40 ~11:50	

구 분	시 간	내 용
오 찬	11:50 ~13:00	송도파크호텔 19층 라스텔라
세션 I	13:00 ~15:00	“황해에서의 교류 역사와 현재” • 좌 장 : 백영서 연세대 사학과 교수 / 국학연구원장 • 발표 1 : 천상성(陳尙勝) / 중국산둥대학(山東大) 역사문화학원 교수 “황해해역교류네트워크의 역사변천과 동북아협력기제” • 발표 2 : 박장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고려시대 한중교류와 개성의 문화지정학” • 발표 3 : 리위롄(李玉蓮) / 중국연변대학(延邊大學) 외국어학원 교수 “근대 개항도시의 화교 사회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인천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 토 론 : 홍면기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은경 / 인하대 인문학부 교수 송승석 /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교수
휴 식	15:00 ~15:10	
세션 II	15:10 ~17:10	“환황해권 초국경협력과 국가·지역전략” • 좌 장 : 김영봉 한반도연구원장 • 발표 1 : 주용하오(朱永浩) /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 연구주임 “중국 동북지역과 한국·일본의 경제관계 분석 및 전망” • 발표 2 : 우잉즈(禹穎子) / 랴오닝사회과학원(遼寧社會科學院) 연구원 “중국 랴오닝성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 발표 3 : 시모노히사코(下野寿子) / 키타큐슈시립대학 교수 “동북아경제금융협력의 정치실행 가능성 - 중국의 시각에서” • 발표 4 : 김수한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한중 국제교류의 새로운 방식” • 토 론 : 염동호(廉東浩) / 게이오대학 SFC연구소 수석연구원 이진영 / 인하대 정치과 교수 한재진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17:10 ~17:40	• 좌 장 : 최원식 / 인하대 인문학부 교수, 서해평화정책포럼 공동대표 • 토 론 : 백학순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엄성준 / 인천광역시 국제관계대사 사토노부유키(佐藤信行) / 주오대학(中央大學) 부총장

근대 개항도시의 화교(華僑)사회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인천(仁川)과 요코하마[橫濱]를 중심으로-

리위렌(李玉蓮) *

I. 머리말

II. 인천의 화교(華僑)사회와 산둥반도(山東半島) 네트워크

III. 요코하마[橫濱]의 화교(華僑)사회와 매판(買辦)상인의 네트워크

IV. 맺음말

I. 머리말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의 성공은 대량의 생산물과 잉여물을 낳았으며 열강의 세계시장 개척과 해외확장을 추진하였다. 유럽열강들의 강력한 외압하에서 아시아제국(諸國)은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하여 상이(相異)한 역사

* 중국옌벤대학(延邊大學) 외국어학원 교수.

과정을 겪어왔다. 결국 1842년 아편전쟁의 패배로 청국은 영국과 남경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오래 동안 실시해온 쇄국정책의 막을 내림과 동시에 광주·하문·복주·닝파·상해(廣州·廈門·福州·寧波·上海) 등 5개 항구도시를 개항하였다. 1854년에는 아메리카 페리(Perry, Matthew Calbraith)와 막부(幕府)사이에 맺은 일미화친조약(日美和親條約)에 의하여 1859년에 일본의 요코하마가 개항되었다. 이어서 1876년에는 일본의 강압으로 조선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었으며 1883년에 부산(1876)·원산(1880)에 이어 인천이 개항되었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제국은 19세기 중, 후기에 맺은 불평등조약에 의하여 개항되었다.

인천과 요코하마는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개항된 근대 개항도시이다. 양 도시는 국내의 중요한 항구 도시일 뿐 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주요한 지위에 처해있었으며 대외무역면에 있어서도 최대 무역항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무역항도시로부터 상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이 시기 인천과 요코하마는 국내외 상인과 노동자들의 대량 유입으로 이어졌으며 동아시아 유통망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동아시아의 해상 네트워크 도시로 성장하였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개항후 인천과 요코하마 화교사회의 형성과정과 화교들의 경제활동, 특히 양 도시 화교사회와 동아시아 해상네트워크를 고찰한다. 이는 개항도시 인천과 요코하마를 동아시아 이민사의 시각으로 그 역할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네트워크라는 구조 속에서 화교사회의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인천의 화교(華僑)사회와 산둥반도(山東半島) 네트워크

1. 개항초기 인천 화교사회의 형성

개항초기 인천은 제물포라고 불렸으며, 전체 거주 인구가 5천명을 밑도는 작은 어촌마을이었다. 인천은 1883년에 개항되었는데, 이 시기는 1882년의 임오군란과 관련하여 청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이 관철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청국정부는 1882년의 임오군란 이후 무려 3,000명에 달하는 청군(淸軍)병력을 조선에 파견하여 임오군란을 탄압하고 대원군을 납치하는 등 전통적인 조공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적극간섭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¹⁾ 이 시기 청국정부의 적극간섭정책은 주로 리홍장(李鴻章)이 입안하고 실행했으며 리홍장의 부수(副手)로 오대징(吳大澂)이 조선문제에개입했다.³⁾

청국은 1882년 8월,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에서의 치외법권, 내지통상권, 조선연혁에서의 운항순시와 어채(魚採)활동 등 특권을 취득하는 등 淸商(淸商)의 조선이주와 더불어 청상들의 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았다. 1883년 9월에는 총판조선상무위원(總辦朝鮮常務委員)으로 진수당(陳樹棠)을 조선에 파견하였는바 진수당은 먼저 서울에 상무위원 분서(分署)를 설치하고, 동년 11월, 인천에 상무위원 분서(分署)를 설립하여⁴⁾ 이내영(李內榮)에게

1) 陳偉芳 저, 권혁수 역, 『청일갑오전쟁과 조선』, 백산자료원, 1996, 92~99쪽.

2) 권혁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2007, 260~261쪽 참고.

3) 권혁수, 위의 책 264쪽.

영사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청국은 또 1884년 4월, 민영목과 인천구화상지계장정(仁川口華商地界章程)을 체결하였는데 이렇게 인천에 정식으로 청국조계지를 설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인천화교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1883년 9월, 인천에는 이미 최초로 일본 조계지가 설립되었으며 이어서 1884년 4월에 인천 중구 선린동에 5,000여 평에 이르는 청국 조계지가 설치되었다. 그 해 10월에는 또 각국 공동 조계지가 설치되었다.

한편 임오군란 때, 오장경(吳長慶)(1883-1884) 제독을 수행해 온 40여명 군역(軍役) 상인의 상업 활동은 초기 인천 화교사회의 구성과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⁵⁾ 그 뒤 1883년 11월과 12월, 청상 33명이 인천에서 영업허가를 받고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었다.⁶⁾ 이 시기 진수당이 리홍장에게 보낸 보고서(1884.2.27)를 살펴보면 1883년 10월부터 인천항의 상무(商務)는 중국 무역선박의 빈번한 왕래로 번거롭게 되었다고 기록하고⁷⁾ 있듯이 1883년부터 청상들은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1883년부터 1885년까지 인천에서 활동한 청상들의 출신지를 분석해보면 중국 남방상인이 주류가 되어 인천화교사회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그러나 1886년부터 인천의 화교사회는 점차 구성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화교사회는 중국 남방출신과 북방출신자들이 함께 어울려서 활

4)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3권, 1972, 1666쪽.

5) 이옥련, 『인천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천문화재단, 2008. 참조.

6)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앞의 책, 1340~1341쪽.

7) 위의 책, 1356쪽.

8) 이옥련 앞의 책을 참고.

발한 경제활동을 벌인것으로 기록되었다. 이 시기부터 서서히 산둥(山東)인 즉 북방인을 중심으로 한 화교사회로 이행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은 청일전쟁 전까지 이어지며 그 뒤 20세기 20~30년대에 이르면 산동화공(華工)들이 대거 인천으로 이주하는 상황을 엿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개항초기 인천화교사회는 인천구화상지계장정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초기는 광동성, 절강성을 중심으로 한 남방상인이 주류가 되어 구성되었다. 그 뒤 1886년부터 본격적으로 산둥성을 중심으로 한 북방인이 주류를 이루며 인천화교사회가 구성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초기 화교사회가 형성된 1883년부터 청일전쟁 직전인 1894년까지 약 10년간 인천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화교사회는 해외화교사상(華僑史上) 전례 없는 한국화교 역사의 ‘전성시대’로 자리매김 되었다.

2. 인천에서 화교들의 활동

청국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 후, 진수당을 조선에 주재시켜 조선의 내정을 총괄적으로 조종하도록 하였는데, 이로부터 청국의 본격적인 조선에 대한 간섭정책이 시작되었다. 청국의 이와 같은 조선에 대한 정책은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특히, 조선에서 일본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국은 조선에 진출한 청상에 대한 인신(人身)보호와 상업지원을 병행하면서 청상의 무역활동 즉 청상들의 경제세력 확장에 전력하였는바 이는 한국화교사회의 특성으로 자리매김되었다.

한편 1885년 11월에는 진수당의 후임으로 원세개(袁世凱)를 서울에 常

駐(상주)시커 조선의 국정과 정치·외교를 철저히 간섭·통제하도록 하였다. 그 외 독일의 뮐렌도르프(paul Georg von Mollendorff, 목린덕(穆麟德))와 마건상(馬建常)을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의 정치와 외교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청국의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정책과 청상에 대한 상업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더욱이 개항도시 인천에 청국조계지가 설치되면서 청국인들의 왕래는 눈에 띄게 빈번해졌고 무역상들이 인천으로 건너와 자리를 잡는 등 상거래가 활기를 띠었다.

1883년에 인천에서 활동한 청상들의 점포를 살펴보면 광동상인, 산동상인과 절강상인 점포로 기록되었다.⁹⁾ 그 중 산동인이 경영한 상호(商號)는 영원잔(永源棧)과 공화잔(公和棧)이고 기타 선박회사 영용순(永隆)이 있다. 전체 직원수는 19명이며 이들은 주로 동향(同鄉)인으로 구성되었다. 통상 해외화교사회를 살펴보면 초창기에 먼저 동향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결성하고 다음으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업(同業)단체를 설립한다. 아울러 이러한 단체들을 총괄하는 상위(上位)단체 즉 화교사회전체를 총괄하는 중화회관(中華會館)을 설립한다.¹⁰⁾ 한국 화교사회인 경우, 1884년 4월, 최초로 화상(華商)조직인 중화회관을 세웠으며 모든 화상은 자본의 대소를 불문하고 회관에 등록하고, 집조가 발급된 후 회관에서 집조를 수령하도록 규정하였다.

인천으로 이주한 청국인들은 상인 즉 청상 외 청국인 농민들도 포함되었다. 『인천향토사료조사사항(仁川鄉土史料調査事項)』은 이 시기 인천의

9)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위의 책, 3卷, 1338~1340쪽.

10) 橫濱開港資料館, 『橫浜と上海-近代都市形成史比較研究』, 1989, 433쪽.

신정(新町)은 청국인의 야채시장으로 유명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농민들은 새벽부터 신정에 모여 야채를 판매하였는데 이곳의 야채시장은 인천시내의 유일한 야채시장이었다고 밝히고 있어 청국인 농민들도 인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을 말해준다. 그 외 인천화교들이 경영한 업종은 상업과 농업 외 여관업도 있었는데 예컨대 1915년의 기록에는 춘양관(春陽館)여관, 개풍(開豐)여관과 흥성화(興盛和)여관 등이 유명했다고 기록하였다.¹²⁾

한편 청국인의 인천에서의 이주 생활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이 시기 청국인을 포함하여 인천거류민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을 살펴보면 일본인에 관한 것이 54건(76명)이고 청국인에 관한 것이 18건(22명)이다. 가장 범죄가 많은 것은 일본인의 절도사건이고 다음으로 일본인의 도박과 횡령사건이다. 청국인인 경우, 아편에 관한 범죄가 총 건수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도박과 세법위반이다. 아울러 이들 범죄인의 연령층을 분석하면 일본인은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자이고, 청국인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가 가장 많아¹³⁾ 인천에서 활동한 청국인들의 연령층을 40세~50세로 추정한다.

11) 今井猪之助, 『仁川郷土資料調査事項』上, 377쪽. (이동철 외 옮김,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7.)

12) 今井猪之助 위의 책, 359쪽.

13) 今井猪之助 위의 책, 65~66쪽.

3. 인천과 산동반도의 해상 네트워크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는 1883년 11월부터 청상 33명이 인천에서 상업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이들은 정식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인천에 상주(常住) 및 왕래하면서 무역업에 종사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 중 산동출신 청상들의 이주는 전체 33명 중, 3명으로 10% 미만이다. 1884년에는 ‘인천구화상지계장정’을 체결함으로써 정식으로 인천에 청국 조계지를 설정하게 되었는데 인천으로 이주한 청상인수는 전에 비하여 크게 급증하였다.¹⁴⁾ 결국 1884년에는 202명이 인천에서 활동하였는데 그 중 산동출신이 90명으로 기록되어 전체 45%를 차지하였다. 1885년인 경우 인천에서 활동한 청상은 50명이며 전부 중국 남방지역 상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886년부터 인천의 화교사회는 산동인이 다수를 점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전체 205명 중 산동상인이 79명으로 39%를 차지하였다. 특히 산동 산둥黃縣人(황현인)¹⁵⁾이 33명으로 가장 많으며 황현에서도 劉(유)씨성을 가진 사람이 15명으로 기록되었다. 그 외 산동봉래현인(蓬萊縣人)이 11명이다. 이는 중국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혈연·지연과 관련된 인적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1886년부터는 산동인을 중심으로 한 북방인의 진출이 눈에 띄게 급증하는데 이 시기부터 인천화교사회와 산동반도와의 해상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는 다른 한편 인천의 화교사회가 산동성을 중심으로 한 북방인이

14)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앞의 책, 4卷, 1796~1803쪽.

15) 山東黃縣은 현 산둥龍口市이며 연태에 속한다.

주류를 이루는 화교사회로 구성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산둥성은 중국화북(華北)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둥연해는 해안선 길이가 길고 항만이 많은바 교주만(膠州灣)·용구만(龍口灣)과 같이 세계 각지와 의 해상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하다.¹⁶⁾ 그 외 산둥성은 역사상 황하의 범람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해마다 발생하여 재해지역으로도 유명하다. 이와 같은 원인은 결국 이 지역민의 해외이주를 유도하였다. 산둥인의 본격적인 해외이주는 1910년대부터 이루어졌는데, 특히 1911년을 전후하여 산둥성에서는 해마다 35만 명이 해외로 이주하였다. 그 중 약 10만 명은 동북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하였다. 1927년부터 1937년까지는 연평균 100만 명이 이주하였는데, 그 중, 25~30%가 육로로 러시아·한반도·몽고로, 또 일부는 膠東(교동)반도에서 출발하여 해로로 러시아·한반도·일본 등지로 이주하였다.

산둥화교는 화공(華工(고력(苦力)))과 화상(華商)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화공이 다수를 차지한다. 산둥화공의 조선 도래(渡來)는 192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급증하였다. 이 시기 산둥인의 한반도 이주는 내적인 원과 외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내적인 원인으로는 중국내 자연재해와 정치·사회·경제적 배경을 꼽을 수 있다. 외적인 원인으로는 1910년 한일합방에 이은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식민지 건설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원인으로 1920년대부터 산둥인의 한반도 이주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외적 요인을 기반으로 산둥인은 혈연·지연과 관련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반도로 대거 이주하였다.

16) 安作璋 主編, 『山東通史』(近代卷) 上冊, 山東人民出版社, 1994, 3쪽.

이 시기 언론매체의 표현을 빌리면 실로 ‘밀물처럼’ 한반도로 몰려왔다.

산동인은 육로·해로로 한반도로 이주하였는데¹⁷⁾ 특히 1920년 말에 이르르면 북쪽 신의주에서부터 남쪽 부산에 이르기까지 ‘청의(靑衣)입은 고력군(苦力群)이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산동인의 이주가 많았다고 신문자료에 기록하고 있다. 1920년대 한반도로 도향한 산동화공은 대체로 인천항을 이용하여 입항하였으며 그 인수는 크게 급증하였다. 인천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인천항에는 산동노동자만여 명이 이주해 생활하였다.¹⁸⁾ 1924년에도 인천항을 통해 산동노동자가 6개월에 2만여 명이 이주하였으며¹⁹⁾ 1925년에는 3월 중에만 5천여 명이 인천항으로 입국하였다.

1927년 3월인 경우, 중국의 은값 폭락과 중국 내 동란으로 인하여 산동화공의 내항(來航)수가 더 급증하였다. 산동지부항(芝罘港)으로부터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선박에는 매일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입국하였다.²⁰⁾ 1927년 1월부터 4월까지만 인천에 상륙한 산동노동자는 무려 2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이어서 5월에도 6천명이 입국하였다.²¹⁾

이와 같은 양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는데 인천항을 통해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하는 상황은 다른 한편 노자쟁의(勞資爭議)가

17) 千田稔・宇野隆夫共編,『東アジアと「半島空間」-山東半島と遼東半島』, 思文閣出版, 1995, 316~318쪽.

18) 『東亞日報』1923년 4월 4일자.

19) 朝鮮日報』1924년 7월 7일자.

20) 毎日申報』, 1927년 3월 3일자.

21) 『朝鮮日報』1927년 5월 12일자.

많았던 인천노동계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²²⁾ 결국 1928년에 이르러 산동화공들의 이주가 급증하는 양상에 대비하여 조선총독부는 거주 규제 제한 조치와 노임문제를 중심으로 산동화공들의 조선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제한 정책을 강구함에도 불구하고 1928년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28,906명이 이주하였다고 인천 세관통계자료에 기록되었다. 특히 연초인 2월부터 3월에 집중적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 17,000여명으로 기록되었는바 산동화공의 이주특성인 ‘계절이민’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1910년에 조선에 거주한 중국인은 11,800여명 이었는데, 1927년의 통계에 따르면 6만 명 노동자를 포함하여 전체 중국인 수는 1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²³⁾

이와 같이 1920년대 중반부터 중국노동자들이 급증하는 현상은 조선노동시장을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노동자와의 갈등관계를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노동기회를 침탈당한 조선노동계에서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인노동자를 추방하자는 목소리가 높아갔다.²⁴⁾ 경기도에서는 도내(道內)만이라도 중국노동자의 입도(入道)를 금지하려고 중국인이주를 금지할 방침을 세웠다.²⁵⁾ 여론에서도 이미 ‘노동계(‘勞動界)를 침식(侵蝕)하는 고력(苦力)에 대항(對抗)’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고력(苦力)에게 잠식(蠶食)되는 인천(仁川)의 노동계(勞動界)’의 심각한 사태를 호소

22) 『朝鮮日報』1925년 4월 2일자.

23) 『朝鮮日報』1928년 12월 6일자.

24) 『朝鮮日報』1925년 4월 3일자.

25) 『朝鮮日報』1927년 10월 25일자.

하면서 산둥고력(山東苦力)의 도선(渡鮮)에 따른 영향을 설명하였다.²⁶⁾ 이와 같이 중국인노동자 문제는 이 시기 한반도의 ‘대사(大事)’로 거론되어 화교 또는 중국인은 ‘문제 집단’으로 인식되었으며 아울러 ‘화교배척’ 감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3·1운동 이후, 조선노동운동이 고조되면서 중국인노동자문제는 조선노동계의 당면 해결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 되었다.

한편 한반도로 건너온 산둥노동자들은 혈연·지연에 따라 형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방(幫)’ 조직에 가입하였으며 ‘방(幫)’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20~30년대 조선에서 활동한 산둥노동자들의 이주생활을 살펴보면 노동자의 자치조직인 ‘고력방(苦力幫)’을 형성하여 집단생활을 하였다. ‘고력방’은 우선 특정인물인 파두(把頭)를 선출하고 그 휘하에 적게는 십여 명, 많게는 수백 명의 회원을 두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²⁷⁾ 파두는 주로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대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산둥반도와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시로 산둥지역의 노동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이는 결국 1920년대 산둥인의 한반도 이주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반도에서 활동한 산둥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인천으로 입국하였으며 우선 ‘방(幫)’ 조직과 동향조합에 가입하였다. 특히 신의주는 산둥노동자들이 일찍부터 활동한 지역인데, 1920년대 초반에 이미 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었다. 1920년대의 ‘고력

26) 『毎日申報』 1926년 10월 28일자; 『毎日申報』 1925년 5월 17일자; 『毎日申報』 1925년 5월 6일자. 참고.

27) 王正廷, 『朝鮮華僑概況』, 1930, 24~25쪽.

방’ 조직은 조선 내 많은 지역에 확산되었다. 분포특징은 육로로 이주한 경우, 신의주를 중심으로 분포되었고 해로로는 진남포를 중심으로 평양까지, 그 외, 인천을 중심으로 서울지역에 확산되었다.

한마디로 인천화교사회와 산동반도 네트워크는 산동인이 한반도로 ‘밀물처럼’ 도래하는 양상을 초래하였다. 이는 다른 한편 한국화교사회만의 특성 즉 산동인이 95%를 차지하는 특성을 구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20년대 한반도로 이주해온 산동인은 조선노동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다른 한편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의지가 강한 특성으로 조선노동현장에서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산동노동자들의 조선이주는 한국화교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놓았다. 산동노동자들은 계절이민으로부터 점차 한국사회에 적응·정착하면서 소규모 상업을 경영하는 상인으로, 일부는 규모가 큰 무역업을 경영하면서 한국사회에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Ⅲ. 요코하마 화교사회와 매판상인의 네트워크

1. 요코하마 화교사회 형성과 경제활동

요코하마는 원래 쿠라기군(久良岐郡)에 속했고 겨우 백호남짓이 거주하고 있는 반농반어촌(半農半漁村) 마을이었다.²⁸⁾ 1859년 7월 1일, 개항되어

28) 陳昌福 著, 『日本華僑研究』,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89, 10쪽.

외국인조계지를 설치하면서부터 광둥(廣東)·향항(香港)·상해(上海) 등지에 근거지를 둔 구미(歐美)상인이 요코하마로 건너왔다. 아울러 이들 구미상인과 함께 광둥인을 중심으로 요리사, 매판, 통역, 짐꾼, 하인 등과 같은 업종에 종사한 청국인들이 요코하마로 이주해 왔다. 초기 1867년에 일본 정부로부터 적패(籍牌)를²⁹⁾ 받은 청국인은 1002명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들 화교들의 안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당(張堂)·진옥지(陳玉池)·위향포(韋香圃) 등 3명은 청국인집회소(淸國人集會所)(1867)를 설립하였으며 1871년에 중화회관으로 개칭하였다.³⁰⁾

초기 요코하마 화교사회는 매판상인이 요코하마로 이주해와 화교사회를 형성했다는 특성으로 자리매김되었는데 이 시기 매판은 거의 광둥인들로 구성되었다. 그런 관계로 요코하마 화교사회는 광둥계가 70%남짓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다. 그 외, 복건과 절강·강서·강소인과 같이 주로 중국 남방(南方)상인으로 형성되었다. 그리고 매판상인 외, 일본에 거주하는 구미상인과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화교 기능직인들도 요코하마로 이주하여 요코하마 화교사회를 형성하였다. 요코하마 중화가는 대략 1880년경에 형성되었다.³¹⁾

요코하마의 화교경제 활동을 논할 때 우선 매판을 떠올리는데, 매판은 외국상관과 계약한 상인으로 요코하마로 건너온 뒤 일본산의 해산물을 흥

29) 籍牌제도는 1880년에 청국인거류등록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는 청국인을 상·중·하 3등급으로 나누어 각각 洋銀 15枚, 10枚, 7枚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籍牌를 교부한 것으로 원래는 청국인에 대한 단속수단이었는데, 실지로 청국인의 거류를 승인하는 것으로 되었다. (兵庫史編集委員會編 『兵庫縣百年史』兵庫縣, 1967, 참조)

30) 横濱市史 編, 『横濱市史』 제3권 하, 1963, 862쪽.

31) 伊藤泉美, 『横浜中華街』, 横浜開港資料館, 1994년, 참고.

쿵, 상해에 수출하고 대만으로부터 설탕을 수입하는 등 무역업에 종사하였다. 요코하마 개항 후, 30~40년간, 화교들은 요코하마라는 신흥 항만도시의 개발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화교들은 대외무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그 중 대중(對中)무역은 항상 입초(入超)현상을 유지하였다. 이 시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주로 생사(生絲)·약재(藥材)·설탕 등이고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동·해산물 등이다. 요코하마 개항초기 이와 같은 수출입 업무는 대체적으로 구미상사의 중국인 매관상인이 전담하고 진행하였다. 이들 매관은 무역교섭에서부터 상선임차(商船賃借), 하역(荷役), 노동자 고용 등 무역의 전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요코하마 화교들은 상인뿐만 아니라 기술자들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일본에 전수하여 큰 공헌을 하였다. 1878년부터 요코하마 외국인 조계지에는 화교들이 경영하는 건축회사들이 여기 저기 설립되는데, 이 시기 화교 건축사무소, 도장점(塗裝店)이 상당수 있었다. 특히 막말(幕末)·명치(明治)초기 일본인들에게는 양관(洋館)건축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이 시기 외국인 조계지의 양관(洋館)건물은 주로 홍콩, 상해로부터 건너온 중국인 기사(技師) 혹은 직인(職人)들이 건설하였다. 당시 거류지에서 출간한 신문자료를 살펴보다도 중국인 대공(大工)과 도장점(塗裝店)에 대한 광고가 상당히 많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요코하마 화교사회 구성을 살펴보면 광둥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 중에서도 학산현(鶴山縣)과 남해현(南海縣)의 사람들은 인쇄기술을 소유하고 있어 요코하마에서 인쇄점을 경영하였다. 이 시기 일본인들은 영자(英字) 활자를 뽑는 기술이 없었으므로 초기 요코하마의 영자 신문은 주로 화교들이 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명치말년에 이르면 요코하마

의 중화가에서 중국인들은 요리점, 인쇄점, 재봉점, 건축업을 경영하였으며 그 외 피아노를 제작하는 등 악기점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요코하마의 중화 요리점은 1900년부터 개업하기 시작하였다.³²⁾

한편 중·일 국교수립 전인 1870년, 요코하마 화교인구는 1002명으로 기록되었다. 1871년 7월, 청국은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고 1878년에 거류지 135번지에 정식으로 청국영사관을 설치하였으며 범석명(范錫明)을 초대(初代)영사로 임명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요코하마로 화교들의 이주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청일전쟁직전 요코하마의 청국인수는 3000명을 초과하였다. 청국은 일본과 국교수립 후, 7년 뒤 요코하마에 청국영사관을 설치하였는데, 영사관이 설치된 뒤에도 중국국내의 정치상황과 국제적 정세로 인하여 요코하마 화교사회는 청국정부의 지원과 보호정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요코하마시사(横浜市史)』에 따르면 1877년~1884년 사이에 요코하마 화교인구는 전체 재일 화교인구의 60%이상을 점하였으며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는 수위(首位)를 점하였다. 그리고 이들 출신지역은 주로 중국의 광둥·복건·삼강(三江(강남(江南)·강서(江西)·절강(浙江)))지역이다.

한마디로 요코하마 개항후, 화교들이 종사한 업종은 주로 수출입 무역업에서 활발한 활동을 진행한 것 외, 원양항해(遠洋航海)와 관련된 補修(보

32) 요코하마 중화가의 화교점포 지역을 살펴보면 의복점은 譚有發이 1864년에 山下町 147번지에 최초로 개설하였는데, 그 뒤, 1879년부터 여성복 전문점이 97번지와 106번지에 개업하였다. 船舶補修塗裝店은 1868년에 최초로 개업하였다. 그리고 1870년부터 건축목공점이 개설되었는데, 이 점포들은 1880년대에 本村으로 이전하였다. 요코하마의 중화요리점은 1900년부터 개업하기 시작하였다.(伊藤泉美, 「橫濱居留地の諸相」 「橫濱居留地の中國人商館」; 橫濱居留地研究會 編『橫濱居留地の諸相』, 31~35쪽, 115~118쪽)

수)·塗裝(도장)업종에 종사하였다. 개항 초기는 이들 화교도장공(塗裝工)들이 이 업종을 독점하였었는데, 화교들의 작업지역은 곡호교(谷戶橋)부터 중화가남문(南門)까지 이어졌으며 이 거리가 그 뒤 요코하마 중화가로 형성되었다. 1870년~1890년간 화교들이 종사한 업종은 주로 수출입무역·건축목공·가구제조·의복(衣服)·식품제조·해산물·제판인쇄(製版印刷)·중국요리·소매상(小賣商) 등 영역을 포함하여 광범하였다. 초기 요코하마 화교사회는 매판상인이 주류가 되어 형성되었는데 이들 매판상인은 우선 구미상사가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였으며 다음으로 일본사회가 필요한 무역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요코하마 화교사회는 청일관계에서 청국의 정치적 지위로 인하여 청국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초기 인천화교사회와 비교하여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2. 요코하마 매판상인의 네트워크

「요코하마영사서상무보고(横浜領事署商務報告)」에 따르면 개항초기 구미상사에 고용된 중국인 중개자는 500~600명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듯이 매판상인은 이 시기 일본최대의 무역향으로 선정된 요코하마의 수출입 무역업을 독점하였다. 그 중에서도 설탕의 수입과 해산물의 수출은 매판상인을 중심으로 한 요코하마 화교들이 독점하였다. 1893년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대외수출의 84%와 수입의 95%를 구미상사가 취급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구미상사 내에서도 구체적인 업무는 매판상인이 전담하였다. 요코하마로 진출한 매판상인은 남경조약체결이후 중국에서 형성된 새로운 근대

상인계층으로서 구미상사에 고용된 신분이었다. 매판상인은 이 시기 중국 동남연해지역의 광범한 상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요코하마로 이주하였으며 초기 요코하마 화교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편 남경조약이 체결되면서 구미상사가 본격적으로 중국 내 각 개항장으로 진출하였었는데, 이는 우선 종래 독점적인 공행제도(公行制度)³³⁾를 서서히 폐지시킴과 동시에 자유무역의 진행을 추진시켰다. 초기 매판상인들은 광주의 공행제도(公行制度) 내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유능한 자(者)들로 형성되었으며 구미상사에 고용되었지만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관리하는 중임(重任)을 맡기도 하였다. 아울러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시장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심지어 전장(錢莊)의 어음발행을 보증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구미상인의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매판상인은 구미상사에 근무하면서 신진적인 근대 상업방식을 습득하는 등 다양하고 폭 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일부는 독립상인으로 발전하였다. 이와 같이 매판상인은 한편으로 매판 직책을 보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분야의 상인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상업망을 발전시켰다.

개항초기 요코하마의 구미상사에 고용된 매판상인은 대체적으로 광둥인들이었으며 이들은 19세기 중엽까지 각 개항장 무역에서 혈연·지연 관계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활발하게 활약하였다. 특히 매판상인은 중·일 양국이 한자(漢字)문화권에 속한다는 문화적 배경

33) 공행제이란 외국과의 무역을 진행할 수 있는 독점상인 조합을 말한다. 청국은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행을 설치하고 상인들에게 직접 무역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었다. 대신 관세를 책임지고 징수하여 국가에 상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공행제도는 아편전쟁 뒤 자유무역이 진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을 기반으로 한자를 도구로 일본인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상업계를 넘나들며 교역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요코하마의 매판상인은 비록 외국상사와의 계약에 의해 고용된 신분이지만 중·일 양국의 상업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동시에 외국상인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하여 새로운 근대기업에 투자하는 안목까지 키웠다.

한편 요코하마의 외국인조계지 내에서 화교들의 활동은 여러 면에서 제한받았다. 우선 요코하마 외국인조계지는 행정적으로 일본정부의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특히 화교경제는 일본당국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한 제한과 간섭을 받았다. 화교들은 일본국의 법률에 따라 경제소송과 형사안건을 심리(審理) 받아야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미상인의 배척과 차별을 받아 기민(棄民)으로 전락되기도 하였다. 이는 청국의 정치적 우세를 기반으로 조계지내에서 치외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초기 인천의 화교사회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마디로 초기 요코하마 화교사회에서 주류를 이뤘던 매판상인은 구미상사의 고용인신분으로 활동하였지만 광범한 상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요코하마의 수출입무역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 업종선택 면에서 구미상사가 취급하는 품목과 구미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아울러 일본정부의 외국인조계지에 대한 규제제도를 비롯하여 요코하마 화교들의 상업 활동은 크게 제한 받기도 하였다. 특히 조약미체결국(條約未締結國)의 국민으로서 일본정부의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제조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청일전쟁 뒤,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 적성(敵性)국민으로 전락되면서 상업 활동영역에서 밀려나 서서히 서비스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IV. 맺음말

인천과 요코하마는 근대 불평등조약에 의하여 개항됨과 동시에 외국인 조계지를 형성하였으며 근대초기 화교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지역이다. 따라서 화교들의 상업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개항도시이며 한국과 일본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화교사회·경제·문화 등 면에 있어서 상이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화교들의 근거지(根據地)로 자리매김 되었다.

양 도시 화교들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우선 인천의 화교사회는 주로 광둥인·절가인을 중심으로 남방상인이 주류가 된 화교사회로 부터 1886년부터 인천과 산둥반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둥인을 중심으로 북방인이 주류가 된 화교사회로 변용하였다. 이에 반하여 요코하마 화교사회는 광둥인을 중심으로 절강인·북건인·강소인으로 구성되었는바 전형적인 중국 남방계열(南方系列) 상인들로 이루어졌다. 그 외 요코하마 화교사회는 매판상인의 활약을 중심으로 선진적인 근대 상업방식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상업활동을 진행한 반면 인천의 화교사회는 중국의 전통적인 상업방식을 기반으로 한 상업활동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개항도시 인천과 요코하마는 개항초기 화교들의 이주와 화교사회가 형성되면서 중국 산둥반도와 동남연해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특히 인천으로 부터 시작된 산둥반도를 중심으로한 네트워크는 그 뒤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해상 네트워크로 확장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개항도시 인천과 요코하마는 산둥반도와 중국 동남연해지역의 연해도시를 연결하는 인적이동과 물적이동, 아울러 상업의 중심항구도시로 성장하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나아가 세계로 연결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현재 요코하마의 중화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바 요코하마 중화가를 찾는 관광객은 1년에 2000만여 명이며 관광명소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요코하마 중화가의 번영은 더 많은 화교자본과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요코하마시의 재정과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 국 안에서 화교들은 혈연·지연·업연을 중심으로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화교 네트워크의 거점은 바로 세계 각 지역의 중화가이다.

인천과 한국의 화교사회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특히 노화교와 신화교와의 교류문제, 화교사회 자체의 내부문제, 그 외 화교사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처문제 등 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참 고 문 헌

- 陳偉芳 著, 권혁수 역(1996), 『청일갑오전쟁과 조선』, 백산자료원.
- 권혁수(2007),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 이현중(1975), 『韓國開港場研究』, 일조각.
- 이옥련(2008), 『인천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천문화재단.
- 今井猪之助 著, 이동철외 옮김(2007), 『仁川郷土資料調査事項』,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 安作璋 主編(1994), 『山東通史(近代卷)』, 上冊, 山東人民出版社.
- 陳昌福 著(1989), 『日本華僑研究』,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 秦裕光(1983), 『旅韓六十年見聞錄: 韓國華僑史話』, 臺北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 王正廷(1930), 『朝鮮華僑概況』.
- 許寅輝(1906), 『客韓筆記』, 長沙出版.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3권, 泰東文化社.
- 伊藤泉美(1994), 『開港のひろば』, 「横浜中華街」, 横浜開港資料館.
- 伊藤泉美(1993), 『横浜居留地の諸相』, 「横浜居留地の中國人商館」, 横浜開港資料館.
- 千田稔・宇野隆夫共編(1995), 『東アジアと「半島空間」-山東半島と遼東半島』, 思文閣出版.
- 兵庫県史編集委員会編(1967), 『兵庫県百年史』兵庫県.

横浜開港資料館編(1989), 『横浜と上海-近代都市形成史比較研究』, 横浜開港資料館.

横濱市編(1963), 『横濱市史』 제3권, 横濱市.

『東亞日報』 1923. 4. 4일자.

『每日申報』 1925. 5. 17일자.

『每日申報』 1925. 5. 6일자.

『每日申報』 1926. 10. 28일자.

『每日申報』 1927. 3. 3일자.

『朝鮮日報』 1924. 7. 7일자.

『朝鮮日報』 1927. 5. 12일자.

『朝鮮日報』 1925. 4. 2일자.

『朝鮮日報』 1928. 12. 6일자.

『朝鮮日報』 1925. 4. 3일자.

『朝鮮日報』 1927. 10. 25일자.

국 문 초 록

근대 개항도시의 화교(華僑)사회와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

19세기, 유럽 산업혁명의 성공은 대량의 생산물과 잉여물을 낳았으며 열강의 세계시장 개척과 해외확장을 추진하였다. 유럽열강들의 강력한 외압하에서 아시아 각국은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하여 상이한 역사과정을 겪어왔다.

인천과 요코하마는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개항된 근대 개항도시이다. 두 도시는 국내의 중요한 항구 도시일 뿐 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또한 불평등조약에 근거한 개항 이후 외국인의 조계지가 설립되었다. 인천과 요코하마는 근대초기 화교가 가장 먼저 도착한 지역으로서 화교경제가 가장 활발했던 항구도시로서, 화교의 ‘근거지’로 불리어진다.

인천과 요코하마의 화교사회는 그 특수한 역사, 지리, 인문요소로 인해 독특한 집단을 형성하였다. 본고는 인천과 요코하마 화교사회의 특수성 및 그 형성원인을 탐색한다.

주제어 : 근대개항도시, 화교사회, 동아시아해상네트워크, 인천화교, 요코하마화교

서 평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이기봉 저, 새문사, 2008) • 김 종 혁

『자본의 도시』 (최병두 저, 한울, 2012) • 서 종 국

『장소』 (팀 크레스웰 저, 심승희 역, 시그마프레스, 2012) • 현 광 일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이기봉 저, 새문사, 2008)

김종혁*

김
종
혁

1. 책과의 인연

평자가 저자를 알고 지낸지도 벌써 십 년이 넘었다. 전공분야가 같은데다가 국내에 동일 전공자가 별로 많지 않아 이러저러한 업무와 행사로 얼굴을 맞댈 일이 많다. 저자를 처음 만난 때는 아마 박사학위 논문을 서로 같이 끝냈던 2001년 말이거나 2002년 초였을 것이다. 이 즈음에 우리가 주로 만났던 곳은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모임이었다. 2002년 30대 중반의 나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한국 근대역사지도 편찬실), 연구교수

이에 학위를 취득하니 학회에서는 우리 처지와 같은 사람들을 크게 반겨주었다.

그러다가 새로운 만남의 계기가 있었다. 저자는 2006년 어느 날 다른 업무로 내가 근무하는 학교를 방문했다가 옮김에 차 한잔 마시자며 나를 찾아왔다. 차를 한 잔 내고 평소 생각을 두런두런 얘기를 하다가 의기투합되는 뭔가가 몽글몽글 피어났다. 그것은 일종의 공부모임을 꾸려보자는 것이었다.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자연스럽게 비슷한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멤버십이 형성되었고, 내친김에 ‘안팎너머’라는 모임 이름으로 책을 한 권 내기도 하였다.¹⁾

저자는 자신의 박사논문(『新羅 王京의 範圍와 區域에 대한 地理的 研究』)을 좀더 발전시켜 2007년에 『고대도시 경주의 탄생』(푸른역사)이라는 책으로 엮어냈다. 저자는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자신의 연구계획을 종종 얘기하였고, 이를 매우 즐거워했다. 책의 머리말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저자는 경주에 이어 후삼국과, 고려, 조선의 도시, 근대를 지나 현대 도시까지를 섭렵, 한국의 도시사를 정립하고 싶어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야심찬 학문적 계획과 열정을 자주 부러워해야했다. 그러나 천 년을 뛰어 넘어 고대 도시 경주에 이어 조선의 도시가 책으로 나왔다.

저자는 “원래의 연구 계획에 의하면 『고대도시 경주의 탄생』에 이어 신라의 멸망-후삼국-고려전기를 중심으로 한 연구서가 나왔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계획이라는 것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다는

1) 안팎너머(2011), 『역사지리학 강의-처음 만나는 역사지리 열다섯 마당』, 사회평론.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뿐이다. … (중략) … 고려에 대한 연구를 바로 시작하려 했지만 먹고 사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왔” 다. 그러던 중 저자는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 연구 프로젝트 팀원이 되면서 조선시대 도시를 연구하게 된다. 그 결과물 중의 하나가 이 책이다. 인문학도가운데 그가 비록 교수일지라도 맘 편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럼에도 이런 책을 내주니 저자가 고맙고, 나는 부끄러울 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1장과 2장을 안팎너머 공부모임에서 발표한 적이 있다. 혹시나 하여 책장을 뒤져보니 그때의 발표문이 있다. 겹장에 2007년 6월 23일 토요일이라고 적혀 있다. 모임은 당시 저자가 근무하던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그의 연구실에서 진행 되었다. 이날 저자는 두 개의 발표문을 갖고 왔는데, 이 책의 1장과 2장이다. 그리고 책이 나오자 저자는 내게 책을 선물로 주었다. 동료로부터 책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고맙고 기쁜 일이다. 이미 책상과 술상 앞에서 수 차례 그의 논지를 듣고 서로 질의응답과 토론이 오갔기 때문에 책을 받았을 때 크게 새로울 것은 없었다. 그런데 여차저차 하여 서평을 쓰려하니 이 책이 그 전과는 또 달리 읽히기 시작했다. 다시 읽어보니 다시금 저자가 조분조분 자신의 논리를 펴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평자는 지금 이 책을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정도로 서평을 쓰고자 한다. 그것은 이 논문집의 서평을 읽는 독자의 입장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이 책의 논리와 구성, 그리고 평자 능력의 한계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 한국적 전통도시 경관의 원형 탐색』

책 제목이 위와 같다. 제목에 저자의 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언뜻 조선시대에 무슨 도시가 있었나? 반문하는 독자도 있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저자에게는 조선시대에도 도시가 있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지방의 읍치들이 다 도시였다는 것이다. 도시 입지를 결정하거나 도시시설 또는 구조를 계획할 때 특별한 조영 원리가 작용하는데, 이때 도시는 지배자의 공간이고 비생산적 공간이기 때문에 피지배자로부터 자연스럽게 권위와 상징적 공간으로 인지되도록 기획된다는 ‘보편적’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 반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보편적 원리가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그러나 시대마다 구체적인 형태가 다른 특수성도 함께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1430년대 이후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한국적 전통도시의 경관이 창출되었고, 이것이 바로 조선적 도시 경관의 전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해보자.

2. 도시의 개념, 권위와 상징 그리고 풍수

책의 제 1장 ‘조선시대 읍치 연구의 의의와 방법’에 저자의 도시에 대한 인식과, 그 인식 근거한 연구방법론이 잘 드러나 있다. 저자는 조선시대의 지배적인 가치와 신념이 계획적이고 상징적인 경관 이미지로 창출되는 조영 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개별적인 읍치가 아니라 조선시대 대부분의 읍치에 적용된 보편적 경향성을 찾아내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저자가 이해하는 도시는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물자가 모여 축적되는 새로운 인간, 즉 지배자의 삶터이다. 이 지배자는 결국 정치권력의 담지자이고, 도시는 이 지배층의 기생적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는 지배-피지배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피지배층의 공간인 마을(=촌락, rural settlement)²⁾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그 존재 의의를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조선시대 도시 경관 조영 원리에 대한 기초를 다음과 같이 정립한다.

정치권력에 대한 내외적 도전과 일상적인 불안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피지배층에게 지배-피지배의 구조를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권위적 이데올로기’이고, 도시에서는 이 권위적 이데올로기를 일상적으로 느낄

2) 저자는 이 책에서 ‘촌락’이라는 용어 대신 ‘마을’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한다. 지리학에서는 통상적으로 취락(settlement)을 도시(urban settlement)와 촌락(rural settlement)으로 구분한다. 즉 이 책에서 사용된 ‘마을’이라는 용어는 비도시적 생활공간을 일컫는다.

수 있게 하는 ‘경관적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 경관적 이미지 창출에서 핵심은 지배층이 피지배층이나 도전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최고’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시대의 도시 입지와 건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고 지배자나 집단적 최고 지배층을 상징하는 장소³⁾를 최고로 보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로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지배이데올로기의 경관적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물을 배치해 내는 것이다.

이에 입각하여 저자는 기존 전통도시 연구 또는 그 연구 시각을 비판한다. 그 중 가장 큰 대목은 ‘풍수’이다. 저자는 풍수가 마치 ‘한반도 역사시대 전기간 동안 (읍치의 조영 원리로) 작동해온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풍수적인 배산임수의 입지 형태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경관적 이미지 창출에서 일정 시기의 조건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형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경상도의 읍치를 조사해 보니,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1430년대 이후에는 읍치의 입지를 풍수적인 조영 원리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례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1430년 이전에는, 즉 고려시대에는 최소한 조선시대보다는 훨씬 왕성하게 작동하였을 것임을 인정한다.

3) 지방에서는 곧 읍치를 의미한다.

3. 조선시대 읍치 경관의 원형

이어서 저자는 조선시대의 읍치 경관의 원형을 탐색한다. 책에는 읍치의 개념이 “조선시대에 지방관이 파견된 부·목·군·현의 고을 중심지로서 지방통치를 위한 정치·행정·제사의 장소가 집중되어 있는 지방 도시”로 규정되어 있다. 간단히 오늘날 시·군청 소재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읍치가 공간적 범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냐는 것이다. 분명 읍치에는 그 공간적 범위가 설정될 법한데, 아직까지 학술적으로 이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역사학과 지리학에서는 중요한 논의점임에도 공인되는 결론은 없다. 1960-70년대에 시골 어른에게 “어디가십니까?” 하고 물으면 “으응, 볼 일이 있어서 읍내에 잠깐 나갔다 올러구” 할 때의 ‘읍내’와 비슷하다. 이때 읍내가 읍내면은 아니다. 딱 꼬집어 드러낼 수 없는, 그러나 서로의 심상에 그려지는 그러한 범위의 교집합이 있다.

어쨌든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이들이 정착하여 근무하는 장소가 필요해졌다. 이에 지방관이 집무를 보는 동헌, 내외빈 접객과 의례 공간으로서의 객사,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들이 근무하는 향청 외에 각종 식량 창고나 감옥과 같은 행정시설, 무기고나 화약고 같은 군사시설, 여단이나 성황당 같은 의례시설, 향교 등의 교육시설 등이 대체로 특정 바운더리 안에 조성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읍치의 공간적 범위를, 읍치에 공통적으로 조성되는 구성 요소들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읍치에 읍성이 있다면 이 읍성 내부를 읍치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모든 읍치에 읍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구성 요소들이 모두 읍성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조선시대에 읍치가 소재한 면은 대체로 군내면, 현내면, 읍내면, 부내면, 읍면 등의 이름이 붙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소재면을 읍치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평자가 이해하기에 이 책에서의 읍치의 범위는 위의 두 번째 범위와 가까운 듯하다. 3장에서 읍치의 입지를 분석함에 읍성을 읍치와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있다. 이를 위해서도 읍치에 대한 전수 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평자의 서론이 좀 길었다. 2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읍치는 어떤 특정한 구성 요소들에 의해서 대체로 동감할 수 있는 경관(landscape, 풍경, 풍치, 외관, 모습-평자 주)을 자아냈으며, 조선시대만의 것, 즉 그 이전 시기와는 사뭇 다른 조선시대적인⁴⁾ 경관을 만들어냈는데, 이때 이 경관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역시 『주례고공기』에 의거한 기존의 한국 고대 ‘도시의 경관적 원형으로서의 모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말문을 연다. 이어서 통일신라 말기와 후삼국시대에 도입된 풍수 역시 도시 조영 원리로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고분이나 탑, 사찰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입지나 형태, 크기, 규모의 측면이 풍수 논리와 배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드는데,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들의 결과는 풍수가 아니라 권위의 상징화 작업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그 권위는 곧 하늘로부터

4) 저자는 ‘조선시대적’, ‘조선적’이라는 관형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평자는 이 수식어를 ‘다른 시대와 구별되는, 조선시대만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였다.

산을 타고 내려와서 지배자·권력자에게 부여되는 방식으로 상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논지를 전개하고는 조선시대 읍치 경관의 원형을 수도 개성과 한양에서 찾는다.

저자는 “개성과 한양의 도성 입지와 조영 원리로서 풍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명당-명당수 등 세련된 풍수적 개념이 개성과 한양의 도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다”고 풍수의 역할을 인정한다. 그리고 곧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전통시대 천자 또는 천손으로서의 최고 지배자인 왕을 하늘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인식 구조가 도성에 어떠한 경관 이미지로 창출되었는가와 같은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일갈한다. 사실 평자는 이 대목에서 여전히 궁금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지배자들이 하늘과 산을 통해 권위를 이양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와, 실제 이에 근거하여 조성된 상징물이 과연 얼마만큼 피지배자들에게 권위의 상징물로서 작동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말미 보론에서, 풍수에서 주장하는 ‘어머니 품과 같은 아늑한 공간’을 일반인(피지배자)들이 얼마나 공감했는지를 의심하겠다고 했는데, 평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논리가 이 대목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저자의 입장으로 돌아오자. 저자는 개성의 경우 ‘하늘=송악산=회경전(즉 왕)’이라는 구조 속에서 건물의 배치와 도로 구조가 결정되었음을 주장한다. 좀 길지만 원문을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렇다는 것이다.

광화문에서 회경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송악산과 회경전의 관계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다. 서쪽으로 가다가 궁성의 남

문인 승평문 남쪽에서 북쪽으로 돌아서면 앞쪽으로 송악산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나며, 회경전을 비롯한 주요 건물은 승평문에 의해 가려지게 될 것이다. 또는 북쪽으로 걸어 승평문을 들어서면 489m나 되는 송악산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나며, 회경전을 비롯한 주요 건물은 신봉문에 의해 가려지게 될 것이다. 승평문에서 신봉문을 걸어갈수록 송산의 웅장한 모습은 점점 사라지며, 신봉문을 들어서면 송악산의 웅장한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7.8m 높이의 축대 위에 건축된 회경전의 전문이 시야에 들어올 것이다. 만약 이 때 7.8m 높이의 축대가 없었다면 489m나 되는 송악산의 모습을 시야에서 없애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신봉문을 지나 창합문을 통과하면 앞쪽에 7.8m의 축대 위에 건축된 회경전의 전문과 회랑만이 푸른 창공의 하늘 속에 우뚝 솟아 있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7.8m의 축대 계단을 올라가면 이러한 느낌은 더욱 강해지며, 회경전의 전문을 들어가면 우뚝 솟은 회경전의 모습만이 앞에 펼쳐져 있게 된다. 그리고 회경전으로 점점 다가가면서 회경전 안에 앉아 있는 왕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국가의 중요 행사 때 이러한 통로를 따라 회경전에 들어서는 사람은 모두 하늘에 웅장하게 솟아 있는 송악산으로부터 시작된 경관 이미지가 회경전 그리고 왕으로 끝나는 시각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하늘=송악산=회경전(또는 왕)’이라는 시각적 경관 이미지를 체험함으로써 왕의 권위가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부여된 존재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인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광화문으로부터 시작되어 회경전에 이르는 통로는 왕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자연스럽게 부여되었다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송악산과 회경전의 시각적 이미지의 관계 속에서 체험하도록 철저하게 계산되어 구획된 것이다(95-97쪽).

이러한 효과를 노리기 위해

황궁의 정문을 동문인 광화문으로 하였고, 도시 전체의 도로 구조를 황성이나 궁성의 남문과바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적으로 배치시켰다. 중요한 관아 건물들을 『주례고공기』나 당의 장안에서 궁성 남쪽의 주작대로 좌우에 배치한 것과 달리 황성의 동문이 광화문 밖의 관도 남북에 배치시킨 것도 이와 같은 도시 구조의 큰 틀 속에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99쪽).

산으로부터 권위의 이양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경관적 이미지 창출 방식은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논지는 개성과 같다. 남대문을 들어온 사람은 종각을 돌아 세종로 끝에 도착할 때까지 볼 수 없는 경복궁-북안산-북한산 경관을 그 끝에 섰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다. 이어 직선의 세종로-광화문-홍례문-근정문 통로를 따라가면서 산의 경관은 사라지고 마지막엔 근정전에 앉아 있는 왕으로 끝나는 경관 이미지를 체험하게 된다. 결국 한양의 경복궁 위치와 도로의 배치는 경복궁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하늘=북한산·북안산=왕’이라는 경관 이미지를 순차적으로 체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로 구조가 하늘과 연결된 왕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만드는 철저한 계획에 의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늘=산=왕’이라는 경관 이미지의 창출을 기본 목표로 했던 도성으로서의 한양 건설이 기본적으로 고려의 개성을 원형으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증명한다. 그간 연구 성과에서 도성 건설에 관여되었던 『주례고공기』나 당의 장안성 및 명·청 시대의 북경, 그리고 풍수적 해석 등은 저자에 의해 이렇게 정리된다.

한반도에서 도성으로서의 개성과 한양의 권위, 도성 안 최고의 권위 장소로서의 궁성과 정전의 권위는 풍수적인 논리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도성과 궁성 및 정전의 위치가 결정된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도시의 기본 구조는 풍수적 논리에 의해서만 설명되기 어렵다. 풍수에 초점을 맞추어 개성과 한양의 도성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도시의 입지와 전체적인 국면, 일부 중요 건물의 위치 등을 제외하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도성에 대한 풍수적인 연구는 전통시대의 도성이 ‘하늘=왕’이라는 경관적 이미지를 가시적으로 창출하여 궁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하늘과 연결피 왕의 존재를 인식시키여 한다는 세계적 보편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다(106-107).

(『주례고공기』에 근거한) 연구나 인식에서는 『주례고공기』의 원칙들이 평지에서 ‘하늘=왕’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를 ‘하늘=웅장한 궁성이나 정전’이라는 2단계적 경관 이미지로 표현하기 위해 나타난 결과물이란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한양에서 나타난 ‘하늘=산=왕’이라는 3단계적 경관 이미지의 창출을 위해 여러 경관 요소가 배치되고 도시의 기본 구조와 형태가 결정되었다는 관점을 가질 수 없었다. 실제로 한양의 도시 구조와 경관 요소의 배치 중 『주례고공기』의 원칙과 맞는 것은 겨우 천자남면, 전조후시의 전조, 좌묘우사(대청이 아닌 비대청) 정도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한양의 기본 구조와 형태를 결정지은 것은 『주례고공기』의 원칙이 아니며 『주례고공기』의 원칙은 최종적으로 몇 가지의 요소만이 삽입되었을 뿐이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조선초기까지, 사상적으로는 풍수와 『주례고공기』로 대표되는 중국적 문화의 영향력을 저자가 부분적으로 비판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세워 간 것이다. 사실 비판의 핵심은 풍수와 『주례고공기』가 개성이든 한양이든, 그리고 그 이전의 도시들의 조영 원칙에 미친 영향력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조선의 도시들 이야기 시작된다. 다음 이야기는 앞에서 피력한 저자 자신의 일반론적 논리 전개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한 증명 과정이다. 이 가운데 압권은 경상도 읍치 연구 성과를 기술한 제 3장이다.

4. 조선의 도시들

조선은 어느 신왕조가 그랬듯이 초기부터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이 개편의 핵심은 효율적 지방통치를 위한 군현 통폐합이었고, 일제가 조선을 합병하고 3년 반이 지난 1914년에 단행한 행정구역 통폐합 역사이와 같은 맥락이었다. 고려의 군현 통폐합은 태종(재위 1400-1418)과 세종(1418-1459) 대에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실시와 번복, 재실시 등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대체로 세조 대에 이르러 거의 완성되었다. 그 결과 500읍이 넘었던 고려의 행정(특수)구역이 330여 읍으로 통합되었고, 각 읍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어 속현(屬縣)이 없어졌다. 전국 각 지에 파견된 지방관은 왕의 대리자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이에 조선은 지방을 통치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그만큼 왕권도 강화되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

적인 해석이다.

저자는 우선 이들 330여 읍을 지방에 존재했던 도시로 인식한다. 비생산적 생활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역시 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존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일반적인 견해란 첫째, 조선시대의 읍치 대부분이 조선시대 훨씬 이전에 정해진 후 계속 이어져왔다는 것과 둘째, 읍치 입지의 전형이라 여겨지는 배산임수식 풍수적 조영 원리가 조선시대 훨씬 이전부터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견해는 사료에서 쉽게 확인되므로 사실 별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평라도 고백컨대 조선초기에 이렇게 많은 읍치 이동 사실이 있었는지는 저자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고려와 조선의 지방통치구조가 크게 달라졌음을 인지한다면, 조선 초기 군현 통폐합 과정에서 기존의 읍치가 없어지고 새로운 읍치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읍치 이동이 쉽게 예상되는 문제임에도 사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그동안 수 없이 봐왔던 고현(읍)면, 구읍면 등의 지명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냥 단순히 옛터인 줄로만 알았던 『대동여지도』 ‘지도표’(地圖標)에 등장하는 ‘고현, 구읍지, 고진보, 고산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대충만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 위와 같은 사례에만 국한되지 않을진대 저자는 이러한 점을 포착하는 데에 뛰어난 동물적 감각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일반적인 견해를 반박하기 위해 저자는 연구진과 함께 경상도 읍치를 발로 찾아다녔다. 이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장을 다녀본 사람은 알겠지만 보통 지난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각 읍치의 입지를 ① 지형(산지-구릉지-평산지-평지), ② 풍수 요소(來龍-장

풍·득수), ③ 뒷산 배경의 경관 이미지 유무/강약 정도 등의 세가지 지표로 유형을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지형적 측면에서 44%에 해당하는 읍치가 배산임수를 이루는 평산지 입지가 아니었고, 풍수적 형국과 무관한 것이 24%에 달했으며, 뒷산 배경의 경관 이미지와 무관한 것이 25%였다. 둘째,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의 입지적 특징에는 다양성이 존재했지만, 와중에 개성이나 한양과 유사한 형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개성과 한양을 원형으로 하는 전형적인 입지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첫 번째 결론을 다시 좀더 쉽게 풀면, 경상도의 91개 읍치 가운데 지형의 측면에서는 44%, 풍수적 형국의 측면에서는 24%, 그리고 저자가 주장하는 뒷산 배경의 경관 이미지의 측면에서는 24%에 달하는 읍치가 기존의 일반적인 견해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입지 형태의 다양성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이 입지의 다양성, 즉 지형적인 측면, 풍수적인 측면, 뒷산 배경의 경관 이미지 측면에 어느 하나라도 특별히 탁월한 입지 특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를 읍성의 입지 시기와 관련하여 풀어낸다. 저자는 143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부터 조선시대 전형적인 읍성 입지 형태인 평산성-풍수-뒷산 배경의 경관적 이미지에 가까운 것이 다수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는 이전에도 조선시대와 비슷했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30년대라는 기준 시점은 읍치를 이전한 사례 지역에 대한 검토 결과이다. 즉 1430년대를 기점으로 읍치를 이전한 곳에서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읍성 입지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1430년대를 전후하여 조선시대 전형적인 읍치 입지 형태가 상대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반발적으로 읍치의 이동을 촉발하

기도 했는데, 이는 수도와 지방도시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며(즉 왕권 강화를 반영),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기보다는 과거와의 차별성을 강화하려는 의도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읍치의 다양성은, 그래서 1430년대 이전에 입지가 결정되어 새로운 읍치를 찾아 이동하지 못한 읍치 때문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례로 1430년대 이전에 이미 읍성 축조가 완료되어 읍치를 옮기기 어려웠던 지역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조선시대 읍치 입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모든 읍치에 그대로 적용시키기보다는 전반적인 경향성 정도로 이해하면서 신축적으로 적용시킬 것을 제기하고, 풍수에 대해서도 ‘한편 비보(裨補) 등의 풍수적 조치 역시 전형적인 입지 형태가 아닌 읍치에서 완결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풍수적 경관이 현전할 수 있었던 배경을 해석한다.

평자는 서두에서 이 책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정도로 서평을 쓰겠다고 했지만, 중간중간에 부분적으로 사건을 피력했다. 평자는 이 책이 내용과 논리를 아직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머리말에서 “저자의 전통시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이 책은 기존의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 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을 독자들에게 알려드린다. … (중략) … 아직은 미흡한 연구 결과를 책으로 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대목에 근거하기도 한다. 물론 이것이 저자의 겸사일 수 있겠지만, 평소 솔직 담백한 그의 성격에, 특히 학문적 양심을 버리지 못하는 그의 학자적 태도에 비춰보면 저 글귀는 말 그대로 독자에게 보내는 통보 또는 공지이다.

그럼에도 평자는 이 책이 갖는 도시사적 연구 의의, 또는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저자는 이 연구를 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일제시기 또는 1950-60년대 지적도와 함께 조선시대 고지도를 분석했을 것이며, 지리지와 연대기 자료와 같은 고문헌을 정리했을 것이며, 읍치 현장을 답사했을 것이다. 구읍을 포함하여 경상도에 읍치가 91처이니 고려의 치소까지 고려하면 남한만 해도 답사해야할 읍치 터가 300 군대를 넘을 듯하다. 이러한 점들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문제 제기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게 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책으로 엮어내어 한국 도시사 연구의 한 페이지를 기술하고, 또한 후학과 동료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촉발케한 것은 실로 평자가 할 수 없는 저자의 담대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저자는 이 책이 “조선시대의 읍치에 대한 본 연구는 현대의 한국 도시 속에서도 면면히 흐르는 한국적 도시상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세계화시대 한국인의 문화정체성과 한국적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강화된 지방화시대에 지역민의 정체성 확보에도 좋은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것이다. 평자 또한 그렇다. 동학으로서 이기봉 선생이 때때로 이 책의 후속편을 계속 출간하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투고(접수)일 : 2013. 07. 15 게재확정일 : 2013. 07. 30

『자본의 도시』

(최병두 저, 한울, 2012)

서종국*

서
종
국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어 지구촌의 경제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전국의 부동산경기가 꺾여 얼어붙어 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천광역시도 예외 없이 과거 불패의 호황을 누리던 송도마저 미분양 아파트가 산적하고 원도심은 아예 개발사업이 모두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실정이다. 이 모든 것이 과거 개발 전성 시대에 비하면 더욱더 그 고통과 실망감은 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방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 대부분이 대외적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시간이 지나면 큰 대세로 인해 해소될 것이라는 막연한 진단과 기대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학자들은 후기산업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저성장시대의 서막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많은 도시가 여러 도시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고 또 무한 경쟁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면서 나타나는 모습을 세밀하게 진단하는 최병두 교수의 「자본의 도시」는 그동안 고민스러웠던 진단의 문제를 다소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제목에서 풍기는 의미와 같이 도시 속에서 자본이 팽배하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새롭게 나타나는 도시의 문제를 신자유주의라는 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 전개되는 도시화와 도시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써 도시공간은 인간과 자본의 욕망이 뒤얹히며 신자유주의가 서식하고 진화하는 데 최적의 장소이며 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투기장소라고 비판하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가 설자리를 상실한 것 같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복지’, ‘경제민주화’ 같은 용어들이 자주 거론되는 분위기이지만, 저자는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전 세계와 우리 사회의 주도적인 이데올로기이며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어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대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탈취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설정하고 그 답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의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화를 분석하며,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도시정책의 경험적 사례를 상술하

였다. 신자유주의의 과정과 정책 사례들으로써 기업주의 도시에 대해 살살이 분석하고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허상, ‘민영화’와 ‘민자사업’의 실패와 폐해, ‘비엔날레’나 ‘축제’ 같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그 대안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 회복이라고 제시하였다. 즉 무의식중에 사로잡고 지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도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도시인 스스로가 우선 깨닫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임을 강조하였다.

신자유주의는 먼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중심부 국가들에서 우선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강압적 또는 자의적으로 주변부 국가들로 확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1년에 미국상업회의소가 자유기업체계에 대한 비판과 반대가 지나치다고 주장하면서 대응책으로 등장하였고, 뉴욕의 재정위기에 대응하면서 신자유주의 전략이 1970년대 후반 레이건정부하에서 도시적 수준에서 국가적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영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오래된 제국적 잔재로서 런던-기반 금융자본이 있었는데 이 자본은 근본적으로 케인스적 정책보다는 자유시장적 정책을 선호하였고 경제침체와 더불어 복지국가에 대한 반대와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면화시키면서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자유주의가 촉진되었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정확히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서 “일상적 공간환경을 매개로 지구적,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적, 도시적 차원에서도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이며 현실 메카니즘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기본적으로 저자는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바탕은 고전경제학이라고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덤스미스의 고전경제학 이론을

재해석하여 시장을 통한 경제적 합리성만이 개인적 선택과 복리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둘째, 재정한계에 관한 대안 설정을 위해 통화주의에 바탕을 둔다, 셋째, 수요보다 공급을 우선하는 공급측면 경제학을 선호한다. 넷째,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를 둔 공공선택이론에 바탕을 둔다. 끝으로, 공동체적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도시사회문제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기본적으로 “1970년대 이후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경제정책이나 행정 체계 나아가 일상생활의 사회와 문화 전반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이데올로기적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의도적으로 그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실제 이의 결과를 통해 분석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적 생산 또는 자본축적 과정에 직접 기여하기보다는 자본계급의 권력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저자는 대부분의 논거로 하비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비의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국제자본주의의 재조직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유토피아적 기획 또는 자본축적 조건의 재구축과 계급권력의 복원을 염두에 둔 정치적 기획”이라는 것을 인용하였고, 또 “전 세계 엘리트 집단에게 부와 권력을 집중시키려는, 특히 각국의 금융적 이해관계에 이익이 되며 국제적으로는 미국 자본에 이익이 되는 헤게모니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것을 인용하였다. 하비의 이론을 분석의 준거틀로 제시하고 지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발생배경과 그 본질,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하비가 이해하고 주장하는 이론적이고 바람직하고 규범적인 신자유주의와 실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의 차이를 신자유주의의 폐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독자들의 이해를 난해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나 도시공간에서 전개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날카

롭게 지적한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하비의 주장을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실제 신자유주의는 궁극적으로 많은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이를 지키고 더욱 증식시키고자 하는 경제엘리트와 자산가들, 그리고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유와 권력을 확대시켜, 신자유주의의 과정에서 배제된 개인이나 집단, 지역이나 국가는 오히려 자신들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가 ‘노동에 의한 확대 재생산’ 보다는 ‘탈취에 의한 축적’에 더 많이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신자유주의 과정에서 부와 소득의 창출보다는 재분배과정에서 노동계급에 돌아가야 할 몫을 자본계급이 더 많이 가지도록 하였기에 결국 자본가 엘리트의 계급권력을 복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규명하게 이른다. 탈취에 의한 축적은 네가지 요소들, 즉 민영화 상품화, 금융화, 위기의 관리와 조작, 그리고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통해 이루지는데, 이 요소들이 상호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현실에서도 서로 결합적으로 전개되고 특히 중요한 점은 금융화라고 지적하였다.

1970년대 실물부문에서의 이윤율 하락을 금융부문에서 만회하려는 시도로 시작한 배경과 1990년대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붐, 2000년대 주식시장 거품 붕괴후 부동산시장과 이에 기반을 둔 증권화를 촉발시킨 파생상품시장의 팽창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신자유주의의 전지구적 금융자본의 활성화와 그 지배과정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급기야 2007~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유발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확산시킨 점을 그 폐해로 지적하고 있다.

각국의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전개과정을 분석하면서 경로의존적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출발해서 주변국가로 확산되면서 그 본질이 혼종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설명한다.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이유로서 국제금융시장의 발달과 해외직접투자의 급증,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자본이동성 증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 및 국제기구들의 압박,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이론의 세계적 확산과 이데올로기적 영향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세계 각 나라들은 다양한 목적들의 달성을 위해 도입하고 추진함으로써 지구적으로 불균등한 전개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각 나라들이 헤게모니적 외부 권력에 의한 이식뿐만 아니라 해당국가의 산업 다변화 및 기술 혁신의 정도, 국가 간 및 지역 간 경쟁, 광역도시의 거버넌스 모형들의 산물로 신자유주의가 다양하게 추동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우 흥미롭고 다소 충격적인 추동과정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다양한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자유주의의 도래를 1980년대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 냉전체제의 해체와 같은 외적 요인과 권위주의적 정권의 붕괴와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성숙이라는 내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김영삼 정부의 출범에 의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되었고 대표적으로 도입한 공간정책으로 토지공개념과 수도권권밀규제를 예로서 설명하고 있고 OECD가입은 신자유주의적 지향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상징된다.

이후 김영삼 정부의 과도한 세계화 전략과 방만한 탈규제정책의 시도에 따라 초래된 1997년 외환위기는 불가피한 신자유주의화로서 수동적이지만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신자유주의의 경험을 겪은 심층적 또는 전진적 신자

유주의라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경제위기 또는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전략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행되어 급기야 주택 및 토지가격의 폭등으로 특징되는 ‘신개발주의’ 또는 ‘토건주의’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어서 이명박 정부는 앞서 정부와는 달리 경쟁적인 권위주의에 바탕을 두고 강력한 보수적 신자유주의화를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각 정부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평가는 통치 레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전개과정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전개내용이다.

저자는 최근의 현상이 외형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영향력이 소멸하여 몰락하지 않았다고 경계심을 강조하였다. 세계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이 엄존하고 국가나 세계 정치적 거버넌스체제를 추진한 정치가와 정책가들이 여전히 시장메카니즘의 복원을 위해 역할을 하는 ‘신자유주의적 심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위기의 다양한 곳에서 발화되고 있지만 위기들을 관리한 체제는 동일하게 신자유주의적 전략과 거버넌스,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어 세계 각국의 현재 경제체제는 결국 신자유주의화의 연장선상에서 경로의존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직도 새로운 형태의 신자유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탈신자유주의’에 관한 논의의 미진함과 분발을 독촉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지방화를 배경한 도시주의의 구체적인 형태인 세계도시론, 세계시민적 도시론, 초국가적

도시론을 평가하고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저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숙의적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 생활중심의 실용정치, 사안별 이슈정치, 다양성과 관용의 정치를 강조하는 숙의적 민주주의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가는 계획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여 공공참여를 촉진하고 논쟁에 참여하되 엘리트 거버넌스가 아닌 숙의적 거버넌스를 실천함으로써 경제적 박탈과 사회적 소외가 없는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공동체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도시계획 논의의 발전이 신자유주의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근의 모형인 신도시주의, 도시디자인론, 스마트성장론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장이 결실로 이어져 인간적 공동체적 삶이 영위되는 사회적 공간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가 지구적 정의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결론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대부분의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와 같이 인천시가 안고 있는 원도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현혹하는 정보와 우매한 정책에 시달리지 않는 현명한 시민이 스스로 권리를 지혜롭게 행사하는 것만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장소』

(팀 크레스웰 저, 심승희 역, 시그마프레스, 2012)

현 광 일*

현
광
일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이 장소의 묘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장소의 느낌이 모든 것에서 기본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풍경에 대한 체험도 지리적 묘사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둘러싸여 의미가 부여되는 장소 역시 중시된다. 풍경이 주는 감동이란 바로 그 안에 자리한 장소들에 깃든 삶의 모습으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이다. 시골에 고향을 두고 있는 도시민에게 고향은 언제나 정겹게 느껴지는 기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풍수지리를 통해 장소에 대한 지형학적 체험

* 마을공동체연구협동조합 이사장

을 명당 또는 길지라는 형태로 재현하였다. 특히 조선왕조의 도읍지인 한양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토착사상인 풍수지리사상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장소란 의미로 충만된 실존적 사상들이 경험되는 현장이며, 세계의 열림으로 나아가는 지향적인 행위가 수반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들 자신의 경험과 장소와 공간에 대한 이해를 고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왔고, 우리가 방문해 봤고, 우리가 일해 봤고, 우리가 상상해 왔고, 그림·영화·텔레비전 속에 재현된 모습을 보아왔고, 읽어왔고, 가보고 싶고, 가보지 못했고, 우리가 구매하는 제품들과 서비스를 생산해 왔고, 또 뉴스에 등장하는 장소들과 공간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장소들과 공간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서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교실과 같은 특수한 공간이 생산해 내는 사회적 관계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교사와 학생에 의한 공간, 학생들 사이의 공간, 성적 차이에 의한 공간으로서의 장소 등등 여러 가지의 기억과 상상력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장소와 정체성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팀 그레스웰(Tim Cresswell)의 『장소』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는 장소가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존재론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인식론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제 1장은 장소를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제 2장 장소의 계보학은 인문지리학과 인접 분야에서의 장소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장소는 분명히 복잡한 개념이다. 지역지리학자들은 장소를 자신만의 생활방식을 가진 일정한 영역의 땅으로 간주한다. 인본주의자들은 장소

를 세계 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방식으로 기술한다. 급진적 지리학자들은 장소가 권력의 반영으로서 구성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구조화 이론의 다양한 변형태와 관련된 접근은 장소를 사회의 재생산 과정의 일부로 본다. 이 접근 하나 하나가 인문지리학을 위한 가치를 지니는 것인가에 대해 저자는 반문한다.

제 3장은 지구화에 직면한 장소의 본질에 관한 최근 논쟁들을 두루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글로벌화의 가속화와 ‘시공 압축’의 현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공간적 제약의 극복, 한계들의 붕괴 등과 같은 표현들이 두드러진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장소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한 관심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시공 압축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이며, 또한 어떻게 경험하는가?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얻거나 고통을 받는가? 게다가 공간과 장소에 대한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해본다면 시공 압축을 경험하는 방식들 - 공간을 통한 움직임과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들의 지리적 확장,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제 4장에서는 장소 개념이 어떻게 연구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동성이 높은 세계에서의 장소의 창조나, 기억의 장소, 삶의 장소에 대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장소 자체가 고유한 문화적 생산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장소 창조 행위가 정치적이고 경합적이라는 점에서 ‘장소의 정치학’이 성립한다. 실뱅 라자뤼스(Sylvain Lazarus)는 “정치는 주체적인 것을 장소에 귀속시키는 것, 그러한 장소들의 목록을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최근 마

을 만들기 운동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장소의 정치에 대한 관점은 새로운 정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책에 대한 내용구성적 소개를 일단락 맺으면서, 윌리스 스티븐스의 시 ‘바위(The Rock)’ 을 통해서 이 책에서 배운 장소의 개념들을 재정리해 보려고 한다.

바위(The Rock)

- 윌리스 스티븐스

바위를 앞으로 덮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바위에 익어, 땅을 익히고
우리 스스로를 익히고, - 그것은 땅을
익히는 것과 같은 일로, 잊지 않게 익히는 것이다.
그러나 잎들이 짙으로 핀다면,
짙으로 피어 꽃이 된다면, 그리하여 열매가 된다면,
그리고 싱싱히 끌어낸 것의 첫 빛깔을 먹는다면,
그 잎들도 땅을 익힘과 같다.
잎들의 꿈은 시의 성스러운 초상, 지복(至福)의 모습이다.
그리고 초상은 인간이다.....

이 시를 인용하는 것은 장소라는 것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과정을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시에 따르면 장소는 자연지리적 관점에서 볼 경우 바위로 된 물질성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바위는 생물이 살기 척박하다는 이

미지를 담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바위에 적응함으로써 동화되고 조절하는 유기체적 삶을 거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바위를 덮은 잎들에서 싹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인간은 바위에 얽매어 있던 유기체적 삶에서 벗어나 문화적 삶의 방식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시는 인간에게 장소에 거주한다는 것의 존재론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하이데거는 거주로서의 장소에 대해서 철학적 접근을 한다. 하이데거에게 거주는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으로서 존재의 본질이다. 거주로서의 장소는 자연적인 것과 인간 세계를 결합시키는 정신적이고 철학적인 노력이다. 따라서 진정한 존재란 장소에 뿌리내리는 존재이다.

에드워드 랠프(Relph, E)는 하이데거의 문제인식을 이어받아 장소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현상학에 기대고 있다. 관념론적 철학으로서의 현상학이 장소라는 물질성을 토대로 장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이끌어낸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장소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은 이 장소가 무엇인가 또는 그 장소는 어떤 것인가라고 질문하기 보다, 무엇이 장소를 장소로 만드는가라고 질문한다. 실제로 현상학적 기획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장소 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장소는 문화정치적 관점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일상 생활경험은 특정 장소 속에서 이루어지며 다시 그러한 경험 속에서 장소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고 인식된다. 장소란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배경과 이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를 말한다. 흔히 광장은 인간이 만든 최초의 문명으로 불리며 자연적 조건으로서 광야와 달리 인간이 만든 인공의 빈터이다. 장소로서의 광장은 일정한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한정된 범위의 공간이다. 광장에서는 정치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재화의 교환과 인류의 기복을 염원하는 행위가 벌어졌다. 지금의 ‘시청 앞 광장’도 과거에는 ‘태평로 2가 시장광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한다. 즉 공간 혹은 지역이 일정한 활동이나 사물들 또는 환경을 가지는 위치들 간의 연장으로써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범위와 관련된다면, 장소는 행위자들이 의미를 공유하면서 경험을 함께 하고 관계를 맺는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범위와 관련된다. 투안(Tuan) 역시 공간과 장소를 대비시키면서 장소가 멈춤, 쉼, 관계를 맺어감에 대한 것이라면, 공간은 행동, 움직임의 개방적 무대라는 의미로 발전시켰다. 즉 공간이 추상화된 합리성에 적합하다면, 장소는 ‘가치’, ‘소속’과 같은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범주로 정의했다. 장소는 의미들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특수한 장소에 관해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기독교도에게 지역 교회는 공동체의 버팀목이라는 연상을 일으키는 장소이자 자신의 신념과 가치들을 키워 주는 공간으로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공간이 될 수 있다. 무신론자에게 교회는 건축학적으로 흥미있는 옛 건물일 수 있지만, 그 안이나 그 주위에서의 그 혹은 그녀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화지리는 장소와 공간이 형성되는 방식과 장소와 공간 스스로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피터 잭슨의 주장처럼, “문화지리는……역사적으로 우발적이고, 지리적으로 특수한 문맥들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회 실천들을 통해 문화가 생산되고 재생산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지리는 장소와 그에 고착된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들의 입장들을 종합해 보면, 장소는 인간의 삶의 장(場)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방식이자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다. 세계 내 존재로서 당사자들의 경험의 폭과 가치에 따라 장소는 다르게 인식될 수 밖에 없는 대상이기도 하다.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이에 관한 또 다른 시각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장소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세계내 존재로서 자리를 잡는다. 이 책은 장소를 삶과 연관지어 사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개론서로서 안정 맞춤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연구』 규정

| 『인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 『인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인천연구』 논문심사 규정

| 『인천연구』 연구윤리 규정

| 『인천연구』 편집위원회

『인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2007년 3월 12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8월 20일 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I. 『인천연구』의 성격과 구성

1.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인천연구』라 칭한다.
2. 『인천연구』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창의적인 연구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을 말한다.
3.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인천연구』의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II. 논문투고 및 게재절차

1. 원고는 상시접수하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심사용 논문출력본 4부(그림, 표, 사진 등이 포함된 원고)와 논문이 수록된 CD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메일(E-mail)을 통해 원고를 제출한 투고자는 원고출력본과 원고가 수록된 CD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투고자는 본지의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목차, 주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 뒤에는 참고문헌과 국문초록 및 영문 초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4.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 교신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책임연구자와 공동연구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5. 접수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Ⅲ. 논문의 기본요건

1. 투고자는 『인천연구』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파일, 논문 투고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투고신청서에는 논문제목(한글 영문), 필자명(한글 · 영문), 소속기관과 직위, 주소(주택 및 직장), 전화 및 팩스번호(E-메일 주소 포함),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출간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연구원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논문의 내용은 제목(한글 및 영문), 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4. 주제어는 5개 이내로 한정한다.
5. 논문의 본문 원고분량은 글, 그림 및 표, 사진을 포함해 200자 원고지 100매 이내로 한정한다.(단, B5용지1매는 (81Columns × 27Lines 기준) 원고지 4매에 해당)
6. 원고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초록은 B5용지 15행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며, 논문명, 저자명, 초록 및 주제어는 모두 국문과 외국어(영어)로 표기해야한다.
8. 모든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의 편집체제를 따라 작성해야 한다.

※ 『인천연구』 편집체제

편집 용지	용지 B5, 단면, 좁게 여백 : 상/하 15, 좌/우 20 머리말 15, 꼬리말 15, 제본 0	
문단 모양	여백 : 좌/우 0, 상/하 0 줄간격 : 160 들여쓰기 : 2 양쪽 혼합, 낱말간격 0	
글자 모양	큰 제목	글꼴 :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진하게 크기 : 18 point 장평 : 100, 자간 : 0
	중간 제목	글꼴 :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진하게 크기 : 14,5 point 장평 : 100, 자간 : 0
	본문	글꼴 :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크기 : 10 point 장평 : 100, 자간 : 0
	기타	각주크기 : 9 point 목차크기 : 10 point 이름 : 14 point

IV. 본문 및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저자표시 및 저자약력작성

-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다(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 기입 가능)

- (3) 저자의 약력에는 주요 저자의 현재소속기관과 부서(또는 학과), 직위(또는 직급), 최근 주요연구분야(관심분야) 및 대표논저를 순서대로 작성한다.
2. 내용목차의 번호는 (I . 1. 1) (1) ①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3. 표와 그림에는〈표 1〉, 〈그림 1〉 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표 제목은 해당표의 상단 중앙에 맞추기로, 그림제목은 해당그림 하단에 중앙 맞추기로 표기해야 한다.
4. 본문 주는 내용 주와 참고문헌의 주로 구분된다.
- (1) 내용 주(content notes)는 본문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체에 걸쳐서 일련번호를 매기고 본문 하단에 각주로 처리해야 한다.
- (2) 참고문헌 주(references)는 인용 또는 참고한 자료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본문 중에는 괄호 안에 저자의 이름, 출간연도, 인용한 쪽을 제시하며 그 자료에 대한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의 말미에 첨부해야 한다.
5. 참고문헌의 작성양식
- (1)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으로 구분하며, 저자의 성에 따라 한글 및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해야 한다.
- (2) 참고문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저자, 출판연도, 제목, 권, 호, 쪽, 출판장소와 출판사명 등이다.
- (3) 서명은 한글 및 동양문헌은 『 』로 묶고, 서양문헌은 이탤릭체(기울림체)로 표기한다. 논문(학위논문, 기사포함)은 출판 연도 다음에 해당 논문 명을 “ ”로 묶어 표기해야 한다.

(4) 참고문헌 속의 모든 외국 저널은 약어대신 풀어서 써야한다.

6. 초록 작성법

(1) 국문초록의 경우 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본-국문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2) 영문초록의 경우 영문제목-영문저자명-영문요약본-영문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V. 기타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땐 풀어쓰고 그 다음 번부터는 약어를 사용하여도 된다.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 ‘줄고’ 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혀야 한다.
3. 국문원고의 경우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와 외국어는 괄호 안에 표기해야한다.

VI. 발간

1. 원고교정

(1) 편집위원회는 오탈자, 비문(非文), 논리 전개의 오류 등을 교정하거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게재순서

(1) 원고의 게재순서는, 기획논단의 경우 계획된 목차에 준하여 게재하고, 일반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재 확정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료 지급

- (1)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료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원 일반 예산·확충지 발간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발행 횟수와 시기

- (1) 본지는 1년에 한번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5. 발행 부수

- (1) 본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연구원에서 정한다.

6. 발행일

- (1) 매년 9월 30일에 1회 발행한다.

『인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007년 7월 15일 제정

2010년 5월 20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1. 구성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보좌하기 위해 별도의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 (2) 약간 명의의 지역 위원과 해외 위원 등을 둘 수 있다.

2. 임무

- (1) 편집위원회는 학술 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편집, 발간 등 『인천연구』의 발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또한 『인천연구』의 편집 및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회칙 등 『인천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제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3.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선출기준

- (1) 편집위원장은 인천발전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의 구성은 특정 지역 및 전공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4. 편집위원장 및 위원, 간사의 역할

-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모집, 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발간 등 『인천연구』의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자 추천 및 의뢰,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 중재, 심사결과에 대한 심의, 원고수정의뢰 및 원고 수정보완 여부 확인, 최종게재논문의 선정, 게재순서의 결정, 본지의 발행부수의 결정, 원고 게재료 및 심사료 수준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진다.
- (3)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4) 간사는 위원장을 실무적으로 보좌하며, 편집위원회 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투고원고 접수, 심사결과 통보, 『인천연구』의 출간·배포, 원고 게재료 및 심사료 지급서류 작성 등 『인천연구』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5.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1)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 회의

- (1) 편집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의 결석시에는 출석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한다.
-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임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4)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7. 회의비 지급

- (1) 편집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원(인천발전연구원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연구』 논문심사 규정

2008년 9월 10일 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1. 심사대상

- (1) 『인천연구』에 게재하려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술대회에 발표·토론을 거친 논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심사절차

- (1) 심 사 :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 (2) 재심사 : 심사위원 평가 결과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 되었을 경우, 필자가 수정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를 한다. 1)
- (3)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총평과 함께 심사결과(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특정심사위원의 판단에 좌우되는 오류를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 (4)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5)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 수정요구가 수반되는 경우, 투고자는 판정결과
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수정사항과 수정원고를 제출해야 한
다. 다만 수정사항에 따라 편집위원장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 (6) 재심의 경우에도 동일한 심사절차 과정에 의해 심사를 진행한다.
- (7) 심사결과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장은 제출된 이의 내용 검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출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
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여부를 의결한다. 출
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결과를 적용한다.

3. 심사위원 선정

- (1) 편집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공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
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 (2)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
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
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인천발전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발전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하며,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와
정에서 각각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한다.

- (5)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 (6)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4. 논문심사 기준

-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본지 투고규정 및 원고작성방법의 준수 여부
 - 주제의 독창성
 -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자료의 신뢰성
 - 논문의 학술적 또는 정책적 기여도
 -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타도시, 국가의 연구
 - 논문 및 체제의 일관성
 - 표 · 그림 · 사진 · 지도 · 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선행연구의 검토
 - 국문 · 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2)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심사위원의 익명성

(1)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외부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할 수 있다.

6. 논문심사 평가 기준

(1) 심사위원은 6가지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논문을 평가하고, 이를 종합한 평가를 심사의견서에 기재한다.

(2) 심사위원 3인중 전원이 '게재가(A)' 로 혹은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A)' 로 평가하고 1인이 '수정 후 게재(B)' 로 평가한 경우, 심사위원 3인중 1인이 '게재가(A)' 로 평가하고 2인이 '수정 후 게재(B)' 로 평가한 경우 원고수정 없이 게재한다.(평점의 평균 3.3점 이상, 유형번호 1번부터 4번까지)

(3)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게재불가(D)' 로 평가하고 1인이 '수정 후 게재(B)' 로 평가한 경우와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이 '수정 후 재심(C)'으로 평가하고 1인이 '게재불가(D)' 로 평가한 경우 그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불가(D)' 로 평가한 경우도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평점의 평균 1.7점 이하, 유형번호 17번부터 20번까지)

(4)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로 평가받은 경우 필자가 논문 수정 후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한다.(평점의 평균 3.0점 이상 평점의 평균 3.3점미만, 유형번호 5번부터 7번까지)

- (5) ‘수정 후 재심’ 으로 판정한 논문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필자가 수정하여 수정 논문과 수정 사항 개요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3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평가결과 평점의 평균 3.0점 이상이면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게재한다.(유형번호 1번부터 7번까지)
- (6) 재심사결과 심사위원 평가 점수가 평균 3.0점 미만일 경우 당해 발간하는 『인천연구』에 게재하지 않는다. (평점의 평균 2.0 이상 평점의 평균 3.0점 미만, 유형번호 8번부터 16번까지)
- (7) 심사결과(재심사결과) 및 판정에 대해 필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의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인정될 만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제 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을 의뢰한다.
- (8)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인천연구』에 재투고 할 수 없다. 다만 연구방법 및 자료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유형번호 17번부터 20번까지)

※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유형 번호	판정 결과			총점	평균	심사 결과	비 고
1	A	A	A	12	4.0	게재가	게재확정
2	A	A	B	11	3.7		
3	A	A	C	10	3.3		
4	A	B	B	10	3.3		
5	A	A	D	9	3.0	수정후 게재	필자가 원고 수정 후 편집위원 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6	A	B	C	9	3.0		
7	B	B	B	9	3.0		
8	B	B	C	8	2.7	수정후 재심사	심사위원의 의견을 필자가 수 정하여 수정 논문과 수정 사항 개요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 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3인에 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평가결 과 평점의 평균 3.0점 이상이면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게재
9	A	B	D	8	2.7		
10	A	C	C	8	2.7		
11	A	C	D	7	2.3		
12	B	B	D	7	2.3		
13	B	C	C	7	2.3		
14	B	C	D	6	2.0		
15	C	C	C	6	2.0		
16	A	D	D	6	2.0	게재 불가	-
17	C	C	D	5	1.7		
18	B	D	D	5	1.7		
19	C	D	D	4	1.3		
20	D	D	D	3	1.0		

7. 소요기간

- (1) 논문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10일 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인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2주 내로 기간을 연장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2) 1차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2주 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 하에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거절, 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3) 재심사: 심사위원은 재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10일 내에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 하에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4) 논문 수정보완: 1차 심사결과 ‘게재불가’를 제외한 수정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보완 의뢰를 받은 후로부터 10일 내에 수정보완 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정보완 기한을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5) 논문 수정확인: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수정보완 한 논문을 수정확인한다. 1차의 경우 10일 내에, 그 이후에는 7일 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천연구』 연구윤리 규정

2009년 4월 15일 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제1장 연구윤리규정 제정 배경

인천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가 능동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술지 『인천연구』를 발간한다. 『인천연구』의 발간은 도시정책 관련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아카데미즘의 기초를 마련하고 인천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

또한 『인천연구』 연구윤리규정의 제정은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인천연구』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수준을 명백히 밝혀둌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이다.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으로 지켜져 오고 있는 규정들을 정리한 것이지만, 모든 관련자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편집에 대하여 연구원이 추구하는 윤리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장 연구논문 윤리규정

제1조(사회적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 등의 연구활동이 사회 공익적 책임을 수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 연구윤리)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3조 (보편성의 원칙)

연구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을 수 없으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5조(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명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6조(연구대상의 존중)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7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처음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8조(저자 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 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 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제9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연구의 독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

제11조(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정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 참여한다.

제12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윤리위원회

제13조(구성과 의결)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두며,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보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보고자, 제보자에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제보나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윤리규칙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협조)

윤리위원회로부터 윤리규칙 위반으로 조사를 요청받은 대상자 등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위반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16조(소명)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으로 보고된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제척)

윤리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피조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위원자격이 일시 상실된다.

제18조(제재조치)

인천발전연구원 원장은 윤리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1) 투고 논문 및 그 저자에 대해서는 그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게재 이후 위반판정이 밝혀질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 (3) 제재조치의 결과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보호)

윤리위원회 위원 기타 윤리규칙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4장 저자 윤리규정

제20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연구 업적의 명기)

-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 논문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22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제23조(재투고)

『인천연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의 방법’, ‘자료의 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부문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고를 인정한다.

제24조(인용 및 참고 표시)

-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할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선행 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5장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25조(기본자세)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양심 및 전문성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6조(형평의 원칙)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 투고자의 성별 · 나이 · 소속기관 · 출신 등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소성을 배제하여 동등한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27조(심사의뢰)

심사의뢰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투고자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8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심사위원 등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논문심사자 윤리규정

제29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0조(저자의 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31조(중복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또는 중복심사 중인 경우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2조(심사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을 타 연구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

이 지침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창수(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편집위원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종혁(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박진한(인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서종국(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심진범(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원종찬(인하대학교 인문학부(한국어문학) 교수)

이종현(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정지원(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조경두(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조승현(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최병국(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간사 전승용(인천발전연구원 인천도시인문학센터 전문연구위원)

통권 제7호 인천연구

발행 2013년 9월 30일

발행인 김민배

발행처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775 팩스 033)260-2729

홈페이지 www.idi.re.kr

편집·인쇄 장원문화인쇄

ISSN 1976-0167
